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感情」の比喩表現の研究  
- 戦争文学を中心に -

済州大学校 大学院

日語日文学科

伊藤 江美

2023年 2月



# 「感情」の比喩表現の研究 —戦争文学を中心に—






指導教授 李昌益

伊藤江美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12月

伊藤江美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證함

審査委員長	손영석	
委員	손범기	
委員	이정주	
委員	고용진	
委員	이창익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2年 12月



<국문초록>

‘감정’의 비유표현 연구  
—전쟁 문학을 중심으로—

伊藤江美

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이창익

비유는, 언어학 분야에서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언어화할 때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표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언어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 작품 속의 언어 가운데, 감정을 나타내는 비유 표현을 대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 무엇으로 대체되어 인식되고 있는지를 인지언어학의 연구 방법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겠다. 연구 대상으로 전쟁문학을 선정하고, 러일전쟁 작품에서 전후 작품까지(1906~1969)를 전쟁 배경별 다섯 시기로 나누어 고찰한다. 다섯 시기의 감정의 개념, 감정과 신체와의 관계를 분석·고찰하여 감정의 표현 방법, 언어화된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를 밝힌다.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이나 인지 구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하겠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되는 감정은 18종류이다. 긍정적 감정은 ‘기쁨, 애호, 안도, 즐거움’의 4종류, 상황에 따른 긍정·부정적 감정은 ‘추억, 흥분, 긴장, 놀람’의 4종류, 부정적 감정은 ‘슬픔, 분노, 공포, 불안, 절망, 원한, 혐오, 회개, 후회, 수치’의 10종류로 분류했다.

러일전쟁을 무대로 한 세 작품의 고찰에서, 군국주의의 작품은 전쟁에 대한 ‘흥분’이 많이 그려져 있고, 반군국주의의 작품은 ‘슬픔’이 많이 그려져 있었다. 표현에서는 <흥분은 공격성이 있는 것>이라는 개념 메타파(은유)가 많이 보였다. 전투에 대

한 흥분이 많이 그려져 있어 러일전쟁 시대의 군국주의적 사상이 작품 표현에도 나타났다. 또한, 신체 부위를 이용한 표현에서는 ‘눈’이 포함된, ‘눈물’을 이용한 표현이 풍부하게 나타난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신체 부위의 표현에서는 ‘원한’이 주로 ‘입’에서 삼키거나 ‘치아’로 표현되는 등 ‘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일 전쟁을 무대로 한 네 작품의 고찰에서, 정부가 파견한 글쓰기(펜)부대가 썼기 때문에, 슬픔의 감정에서는 동료의 죽음에 대한 한탄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불쌍한 생각의 표현도 많이 나타났다. 전쟁터라 할지라도 긍정적 감정이 18%나 차지할 정도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에서는 <불안은 생물이다>라는 개념 메타파가 많이 보였다. ‘불안’한 감정이 ‘기어서 접근하다’나 ‘쪼먹다’ 등과 함께 사용되어 웬지 불쾌한 기분으로 그려져 있었다. 또한 불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신체 이상(異常)으로 표현된 것이 많았던 것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태평양 전쟁의 네 작품의 고찰에서, 전쟁터로 향하는 흥분보다는 병사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보도원의 감정,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는 병사에 대한 슬픔 감정이 주로 그려져 있었다. 표현의 특징으로는 ‘공포’와 ‘불안’에서는 <감정은 생물이다>라는 개념 메타파가 눈에 띄고, 이것은 감정이 체내에서 발생한다는 인식 이외에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보여주었다. 또 <감정은 고체이다>라는 개념 메타파도 많아, 각 감정과 사물의 유사성에서 도출한 비유가 풍부하게 그려져 있어 폭넓게 표현되었다. 신체 부위에서 ‘분노’와 ‘회개’, ‘원한’ 등의 부정적 감정은 ‘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자기 신체 일부를 자신과 분리해서 다루는 서양적 표현이 보인 것도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전후 바로 발표된 세 작품의 고찰에서는 종전 가까이까지 전투가 없는 대기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보내는 불쾌한 감정이 많이 그려졌고, 전투에 임하는 흥분은 적었다. 표현의 특징은 많은 감정에서 <감정은 생물이다>라는 개념 메타파가 많아, ‘감정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보다 감정의 의인화나, ‘감정은 소유물이 아닌 외부의 미지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감정은 고체이다>라는 개념 메타파도 많아서 감정을 다양한 시점에서 보고 그리는, 즉 폭넓게 표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신체 부위에서는, 신체의 상태뿐만 아니라 놓여

있는 상황을 문장 전체의 비유로 나타낸 예문이 몇 개 보였다. 단순히 감정을 유사한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아닌, 문장 전체를 이용한 비유 표현이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신체 부위와 감정의 관계에서는, ‘마음’을 신체 일부로 파악하는 것보다 용기나 물체로 파악하고 있는 표현이 많아, ‘시대가 흐르면서 감정이나 신체 부위가 몸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종전 때 10대였던 작가의 작품 고찰에서는 GHQ에 지배되고 있다는 억압된 감정 때문에 ‘분노’의 사용 빈도수가 아주 많았다. 또, 작가가 정한 주제에 따라 감정의 편향이 보인 것,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보다 문장을 꾸미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감정과 신체 부위의 관계에서 ‘분노’는 여섯 부위가 사용되었으며 ‘배’뿐만이 아닌 많은 부위와 관계있는 감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유 표현의 양도 늘어나 창작 수준도 높고, 감정을 다양한 시점으로 파악하는 등 표현의 폭도 매우 넓어졌지만, ‘슬픔’을 나타내는 울음의 행위는 이 비유 대상에서는 적어지는 등, 관용적인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보였다.

통시적 고찰에서는 총 730개 예문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슬픔’, 다음으로 ‘흥분’, ‘혐오’, ‘공포’, ‘분노’ 순으로 이어졌다. 감정의 사용횟수는 내용이나 시대 배경과 관련이 있었다. 직유·은유에서는 <고체>에 비유한 것이 가장 많고, <용기 안의 액체>, <생물> 순으로 이어졌다. 긍정적 감정과 긍정·부정의 양 감정은 전체적으로 <액체>라는 인식이 강하고, <공격성이 있다>는 인식은 약했다. 부정적 감정은 ‘슬픔’만이 <공격성이 있다>는 인식이 강했고, ‘불안’은 <생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 이외는 <고체>의 인식이 강하고, 부정적 감정이라도 <공격성이 있다>라는 인식은 약한 것도 있었다. 특히 ‘분노’의 감정은 <공격성>을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액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감정에도 적용되지만, ‘공포’와 ‘불안’에서는 그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감정 종류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감정을 신체 외부의 것으로 파악하려는 표현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 부위를 이용한 환유에서는 ‘얼굴’의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았고, ‘눈’, ‘몸’으로 이어졌다. 감정과 신체 부위가 강하게 연결되는 것은 ‘기쁨·즐거움·혐오’와 ‘얼굴’ 특히 ‘미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슬픔’과 ‘눈’이며, 이 대부분은 ‘눈물’이 차지했고, 나머지는 ‘색’과 ‘빛’이 많았다. 그리고 ‘공포’와 ‘몸’인데, 체온 저하나 떨림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원한, 회개’와 ‘입’은 ‘치아’와 ‘입술’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환유 표현은 시대와 함께 줄었고, 신체의 일부를 본체에서 떼어내는 표현이 늘어났다.

이 논문에서는 감정을 나타내는 비유 표현을 대상으로 감정의 개념, 신체 부위와 감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감정이 어떤 개념, 어느 부위를 사용하여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지를 고찰하여 다양한 감정에 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현의 통시적 고찰에서 감정의 사용횟수는 시대 배경과 내용에 좌우되지만, 감정의 개념 메타파는 시대가 변해도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사(喩辭)는 변화한다. 은유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복잡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문장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서, 유사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한다면 감정에 대한 인식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용례 수집을 늘려 고찰하면서 일본어의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는 연구로 연결해 나가고 싶다.

# 目次

국문초록 ..... i

## 序論

1. 研究目的と意義 ..... 1

2. 先行研究 ..... 3

3. 研究対象 ..... 10

    3.1 研究対象 ..... 10

    3.2 比喩の収集における範囲・問題点・基準 ..... 10

4. 本論文の構成 ..... 11

## I. 感情 ..... 14

1. 基本の感情の定義とその価値 ..... 15

2. 感情の分類 ..... 16

3. 感情の語彙の分類—日本 ..... 18

4. 認知言語学における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 ..... 21

## II. 日露戦争を背景とした文学作品の比喩表現 ..... 24

1. 感情別比喩表現の分類と分析 ..... 25

    1.1 喜び ..... 26

    1.2 愛好 ..... 27

    1.3 楽しさ ..... 27

    1.4 追憶 ..... 28

    1.5 興奮 ..... 29

    1.6 緊張 ..... 32

1.7 悲しみ	33
1.8 怒り	36
1.9 恐怖	36
1.10 不安	38
1.11 絶望	39
1.12 恨み	40
1.13 恥	41
1.14 混合	41
2. 比喩理解の分析と考察	42
2.1 喩辞と被喩辞	42
2.2 喩辞の使用回数	44
2.3 身体部位別表現	45
2.4 身体部位別の使用回数	47
3. まとめ	48
Ⅲ. 日中戦争を背景とした文学作品の比喩表現	49
1. 感情の比喩表現の分析と考察	50
1.1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	50
1.2 喩辞と被喩辞	55
1.3 身体部位と感情	58
1.4 身体の部位別・状態別表現	61
2. まとめ	63
Ⅳ. 太平洋戦争を背景とした文学作品の比喩表現	65
1. 感情の比喩表現の分析と考察	66
1.1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	66
1.2 喩辞と被喩辞	71

1.3 身体部位と感情 .....	73
1.4 身体の部位別・状態別表現 .....	76
2. まとめ .....	79
V. 戦後の文学作品の比喩表現 1 (1946~1949) .....	81
1. 感情の比喩表現の分析と考察 .....	82
1.1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 .....	82
1.2 喩辞と被喩辞 .....	85
1.3 身体部位と感情 .....	88
1.4 身体の部位別・状態別表現 .....	92
2. まとめ .....	93
VI. 戦後の文学作品の比喩表現 2 (1958~1969) .....	95
1. 感情の比喩表現の分析と考察 .....	96
1.1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 .....	96
1.2 喩辞と被喩辞 .....	100
1.3 身体部位と感情 .....	105
1.4 身体の部位別・状態別表現 .....	108
2. まとめ .....	111
VII. 比喩の通時的考察1 —使用数と使用率を中心に— .....	113
1. 背景別比喩用例数 .....	113
1.1 感情の使用率 .....	114
1.1.1 正の感情 .....	115
1.1.2 正負の感情 .....	115
1.1.3 負の感情 .....	116
1.2 各作品背景の考察 .....	117

2. 喩辞使用数 .....	118
2.1 喩辞 .....	116
2.2 感情別喩辞—全体 .....	119
2.2.1 正の感情の認識と考察 .....	119
2.2.2 正負の感情の認識と考察 .....	120
2.2.3 負の感情の認識と考察 .....	121
2.3 感情別喩辞—背景別 .....	122
2.3.1 興奮 .....	122
2.3.2 悲しみ .....	123
2.3.3 恐怖 .....	124
3. 身体部位表現 .....	125
3.1 部位使用数 .....	125
3.2 部位と感情—全体 .....	127
3.3 部位と感情表現 .....	128
VIII. 喩の通時的考察2 —身体部位「胸」を用いた表現の考察— .....	132
1. 作品別喩用例数 .....	132
2. 喩の構成と表現方法 .....	133
2.1 喩表現の構成別分類 .....	133
2.2 感情の表現方法 .....	135
2.2.1 背景別感情の表現方法 .....	136
3. 背景別喩表現の考察 .....	138
3.1 換喩 .....	138
3.2 隱喩（感情） .....	138
3.3 隱喩（胸） .....	140
4. まとめ .....	142

結論 .....	144
参考文献 .....	149
要旨 .....	158

## 表目次

表1-1 .....	15
表1-2 .....	16
表1-3 .....	17
表2-1 .....	25
表2-2 .....	43
表2-3 .....	44
表2-4 .....	46
表2-5 .....	47
表3-1 .....	49
表3-2 .....	51
表3-3 .....	56-57
表3-4 .....	58
表3-5 .....	62
表4-1 .....	65
表4-2 .....	67
表4-3 .....	72
表4-4 .....	74
表4-5 .....	78
表5-1 .....	81
表5-2 .....	82
表5-3 .....	86-87
表5-4 .....	89
表5-5 .....	93
表6-1 .....	95

表6-2	97
表6-3	102-104
表6-4	105
表6-5	109-111
表7-1	114
表7-2	119
表7-3	126
表7-4	127
表7-5	129
表7-6	131
表8-1	133
表8-2	136
表8-3	138
表8-4	139
表8-5	141



## 目次

☒1-1	14
☒2-1	45
☒3-1	58
☒4-1	73
☒5-1	88
☒6-1	104
☒7-1	115
☒7-2	116
☒7-3	116-117
☒7-4	119
☒7-5	120
☒7-6	120
☒7-7	121-122
☒7-8	123
☒7-9	123
☒7-10	124
☒7-11	126
☒8-1	137

## 序論

### 1. 研究目的と意義

言語の重要な機能は情報伝達であるが、実際には情報伝達だけを目的としないものも少なくない。その中の一つが比喩である。比喩ははっきりしない事柄を受け手に分かりやすく伝えるために用いられる場合と修辭的に文を彩る場合に用いられている。ニュースなど情報伝達のみを目的としたものでは慣用句程度の比喩が用いられ修辭的な比喩が用いられる機会は少ない。一方、文学では文章に彩りが必要になるため工夫を凝らした比喩が用いられる。登場人物の感覚や感情などを読み手に分かりやすく伝えるためであり、さらには読み手に強い印象を与えるために多様な表現が選ばれているのである。

比喩は西洋で説得の技術として生まれ、そして、文を装飾する役割を担う修辭技法として用いられていた。そのため、言語学ではこれまで送り手の技術に注目し研究が行われてきた。しかし、近年では表現の技術の文芸評論的な研究に限らず、言語学や心理学など様々な分野で研究が行われている<sup>1)</sup>。比喩は言語学分野では情報伝達的手段とし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して注目されているが、その中で認知言語学では伝達的手段にとどまらず人間の認識の基礎にあるものというLakoffら(1980)の発表により、人間の言語の理解過程において伝達された比喩を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るのかに重点が置かれ研究が進められている。

認知言語学での比喩の研究対象の一つに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がある。感情とは人間の心の動きであり抽象的なもので、感じている主体も把握できない複雑な感情もあるため、受け手に話し手の感情を伝えるのは容易でない場合もある。このような受け手に伝えることが困難な感情を表わす場で比喩という高度な情報伝達能力が存分に発揮される。そのため感情は慣用表現を用いられることが多い。例えば、怒りを表わす「腹が立つ」や「頭に血がのぼる」などが挙げられる。これらの慣用句は怒りの感情を経験したことによる体の状態から作られたものである。顔の表情を通しての感情表現も豊富で、「顔がくもる(不快)」や「顔色が青くなる(恐怖)」などがみられる。このように身体を用いて作られた表現が慣用化され多用されているのは、感情と身

1) 文学では修辭性と創造性、心理学では連想、論理学では推論の仕組みが研究される。

体が密接に繋がっているからであり、誰もが同様の経験をするからである。これら身体を用いた表現は認知言語学の比喩研究においては、換喩<sup>2)</sup>に分類されている。比喩には直喩や隠喩など多くの表現方法があるが、感情を身体の変化や状態によって表現したものは換喩として分類される。感情を表わす換喩には、「部分—全体」の空間的隣接性を利用したものと、「原因—結果」の時間的隣接性を利用したものの2つがある(楠見, 1996)。

・ 身体(部分)の記述で、感情(全体)を示すもの

例) 歯を噛む(部分) — くやしい(全体)

・ 身体の変化(結果)で、感情(原因)を示すもの

例) 涙が流れた(結果) — 悲しい(原因)

ただし、身体の状態を言葉で表現したものだといっても、実際は身体にその変化が現れていなくても比喩的に拡張して使われる場合もある。例えば、慣用句などでは「頭から湯気を出す(怒り)」は頭から実際湯気が出ているわけではなく、湯気が出そうなほどの怒りの強さを表わしたものである。また、「耳がよごれる(嫌悪)」は、聞きたくないことを聞き不快に思う気持ちを表わしている。「舌を巻く(驚く)」も同様に、驚いて何も話せない状態を表現したものである。舌を折り曲げると何も話せないことから作られた慣用句であるため、感情によって起こる身体変化を言語化したものではない。

慣用句だけでなく、修辭的に作られた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も多い。例えば、「怒り」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る。怒りを火とした「憤慨の火の手は益す(桜井忠温「肉弾」)」、怒りを熱湯とした「激昂は沸騰点に達す(水野広徳「此一戦」)」などである。どちらも怒りを「熱さ」で表現しており、怒りによる体温の上昇を「火」や「熱湯」に置き換えた隠喩<sup>3)</sup>に属する。これらは「怒り」は「熱い」という連想<sup>4)</sup>から作られた表現であり、そして、これは「怒りは熱いもの」という認識を我々が持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感情の表出は、習得されるものではなく、人間の脳に最初から組み込まれているものであり、普遍的なものである(エヴァンズ, 2005)。しかし、それを相手に示したり、隠したりする行動には

2) 換喩とはあるものとあるものの隣接関係に基づいている。例えば、「長髪(部分)」で「長髪の人(全体)」を示し、「鍋(全体)」で「鍋の中身(部分)」を示すなど。(中村, 1977)

3) 類似性に基づく比喩。

4) 類似点を探す「連想」という認知能力は比喩の世界の基にある心理であり、異なる物事の類似点を探し物事を解釈し理解するという心理メカニズムのことである。文脈によって連想されるものは皆同様とは限らず、文化や民族、時代、地域によって変動がありうる。

文化的差異が見られるという<sup>5)</sup>。感じている気持ちが同じであっても行動に差が見られるとすれば、相手に伝えるための表現やそれを理解する過程にも違いがみられるはずである。そして、個人差もありうるだろう。特に文学作品などに表われる表現は作者の自由創作であり、その作者の趣向に沿った表現になっている。特に純文学では高度な飾った表現が使われる。複雑な表現であっても文脈によって読者の理解が可能であるためである。また、文化間や個人差のみならず、時代の差も考えられる。例えば、韓国語の場合、「哀しみ」の表現が豊富でその悲しみの程度も強い用例が日本語よりも多いという。その理由は「韓国は恨みの民族」という言葉が生まれるほど苦しい状況が続き、その過程で恨みの表現が多く作成されたからである<sup>6)</sup>。我々を取り巻く状況は常に変化し、それらが言葉に与える影響は大きい。時代ごとに使用されている表現を収集し考察することで、それらの変遷もみられる可能性は高い。

本論文では、文学言語の日本語の感情を表わす比喻表現を対象に、目に見えない感情が何に置き換えられているのか、そして、認識されているのかを中心に議論を展開していく。直喩・隠喩からは、感情が何に喩えられているのかを認知言語学の概念メタファー理論を用いて分析を行い、換喩からは、感情ごとに使用されている身体部位の把握、そして、認知言語学の近接性の原理に基づき感情と部位の関係を明らかにしていく。これら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各感情がどのような特徴を持っているのかを示すことができる。そして、時代で表現の変化がみられるのかという点で通時的考察を行う。これは、表現方法の移り変わりを考察できるのに加え、時代の流れの中で外国から流入した文化が日本語に影響を与えたことをみ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に、慣用句のみならず日本語の幅広い表現を考察することは、我々がどのように感情を捉えているのかを解明するにとどまらず、今後外国語との対照研究をする上でも多くの例を提示す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 2. 先行研究

文学作品などで用いられる比喻表現は、修辭的文彩として表現技法とその効果の關係が研

---

5) 心理学者ポール・エクマンらによって行われた実験では、日本人はアメリカ人より多く微笑み、嫌悪感を表わさなかったという結果が出ている。日本人は嫌悪感を感じないのではなく、一瞬でその表出を隠す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エヴァンズ(2005)『感情』 p.13)

6) 張富妍(2014)『感情의 身体関連表現 様相에 日·韓 対照研究』 韓国外国語大学 博士学位論文

究されている一方、認知言語学では、表現から解釈までの認知構造に焦点が当てられ研究されている。比喩文の装飾効果ではなく、比喩の理解に注目した研究である。研究の始まりである Lakoff&Johnson (1980) は、人間の思考過程の大部分がメタファー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ると述べ「概念メタファー(Conceptual metaphor)」という考えを提唱した。概念メタファーとは、説明したい内容を身近で具体的経験が豊富な知識領域に照らし合わせて理解する認知能力のことをいう。認知言語学の隠喩理論でよく例に挙げられるもののひとつに「時は金なり (Time is money.)」という慣用句がある。これは我々は「時間＝金である」と時間をお金に見立て理解していることから作られる表現である。「時間を浪費する」「時間を稼ぐ」など、「時間」という抽象的なものを「お金」に対して持っている知識で把握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この別のものに置き換えて理解するという認知の仕組みを概念メタファーと呼ぶ。しかし、お金の領域がすべて時間の領域に当てはまるわけではなく、「お金を拾う」を「時間を拾う」と置き換えはできない。概念メタファーとは言い換えが必ずできるものではなく、ある一部分の重なりを示す非常に部分的なものである。

この概念メタファー理論を用いた研究では、楠見 (2002) の「愛の概念比喩」がある。被験者に「愛」に関する比喩を作らせ、愛の概念を明らかにしたものである。愛の熱さ<愛は炎>、美しさ<愛はバラ>、壊れやすさ<愛はガラス>などの特徴が比喩に表われたと述べる。また、大石 (2006) はコーパスを用いて「水」の概念メタファーの分析を行っている。76種類の液体のカテゴリーに属する動詞「流れる・湧き上がる・包囲する・降り注ぐ・移り変わる」を抜き出し、水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ものを明らかにしている。「湧き出る水」と認識されているものには「感情・力・考え・笑い・音声・言語」を挙げている。その中で「言語は水である」とし、言語は流れたり、湧き出たり、撒かれたり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結果を示している。しかし、これらの研究はLakoffら (1980) が明らかにした認知構造の日本語による再確認であり、また、限られた言葉の範囲内での研究になっている。

言語認知に焦点を当てた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の研究は、概念メタファーを提唱したLakoff (1987) の怒りのメタファーの研究を始め、Kövecses (2000) や楠見 (2004) など言語と感情の相互関係において、基本的な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がどのように認知されているかの研究が行われてきた。Kövecsesは「怒り」と「恐怖」に関して次の概念メタファーが存在すると述べる。

---

7) 本論文では、語句や表現は「 」で示し、概念は「 > 」で示す。

Kövecses	怒り	・怒りは容器の中の熱い流動体である・怒りは炎である・怒りは狂気である・怒りは闘いにおける敵である・怒りは捕えられた動物である・怒りは重荷である・怒った振る舞いは攻撃的動物の振る舞いである・怒りの原因は侵害である・怒りの原因は体の苦痛である・怒りは自然の力である・怒った人は作動する機械である・怒りは社会的上位者である
	恐怖	・恐怖は容器内の液体である・恐怖は隠れた敵／超自然的対象である・恐怖は人を苦しめるものである・恐怖は狂気である・恐怖は重荷である・恐怖は乖離である

感情を表わす表現は、人が怒りや恐怖を感じたときに起こる身体の変化や状態が関与しており、怒りで体が熱くなるのを感じることで「怒りは熱い流動体」であると捉えている。これは「彼女は怒りで沸騰している (She is boiling with anger.) 」という液体を連想させる比喩から導き出された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そして、これまでの研究 (Kövecses,2000 ; 大石,2006など) で我々は感情の存在場所として心や胸を「容器」と捉えたイメージ・スキーマ<sup>8)</sup>を持ち、「感情は水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によって感情が理解されており、感情自体はこの「容器から湧き上がりあふれ出す水」と認識され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sup>9)</sup>

- (1) わき上がるよろこびにすなおに身をまかせて、幸福を感じきっていた。
- (2) 恐怖が胸に湧く。
- (3) 怒りで胸が一杯になる。

用例の(1)から(3)は『感情表現辞典』に載せられている用例である。(1)の「わき上がる」や(2)の「胸に湧く」が根拠となり「感情は水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が導き出され、(3)の「胸が一杯になる」からは「胸は感情の容器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が導き出されている。ただし、これらは使用された表現から導き出した感情のほんの一部分であり、必ずしも全ての感情が「水」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のではなく、「火」や「所有物」や「移動物」など様々なものに捉えられて表現されており<sup>10)</sup>、多くの感情で共通する代表的なものとして「感情は水である」とい

8) 言葉の形成と概念化に先立って存在する心的表象に関わる認知能力の1つ。人間は具体的な身体経験に基づいて様々なイメージを形作っている。つまり、我々が持つ共通した経験から形作る理想像のことをスキーマと呼ぶ。よく知られているイメージ・スキーマとして「容器のスキーマ」がある。人間が身体部分を容器としてイメージし、内側・外側・境界を設定することで様々な事態を理解する仕組みとしてはたらく。例えば「頭がからっぽ」「愛情があふれる」など。容器のイメージ・スキーマを規範とし、それを拡張することで事態を換喩的・隠喩的に理解することが可能となっている。(辻幸夫(2013)『新編 認知言語学キーワード事典』研究社, p.16)

9) 詳細は第1章4節の認知言語学における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の項目で述べる。

10) 「不満がくすぶる」は「感情は火である」、「不安を抱える」は「感情は所有物である」、「衝撃が走る」は

う概念メタファーが挙げられる。感情表現の研究は我々の日常的に使う言語認識の理解過程を示す目的で行われているため、基本の感情と身近に使用される慣用句を対象にした研究になっている。特に日本語においては英語に日本語を当てはめ両言語の共通性を取り上げ、異なる言語であっても人間の認知構造は同様であると示すことに留まっており、また、用例の少ない感情の研究はまだ進められていない。

次に、日常的な言語領域ではなく、文学作品を対象にした研究である。坂本（2007）は、認知言語学におけるメタファーの研究ではあまり取り上げられない色彩語メタファーの研究を行っている。感情を色彩で表わすメタファー「黒い残酷な感情」や「青い観念的な嫌悪感」などの名詞を修飾して作られた比喩表現を『新潮文庫の100冊CD-ROM』に収録されている文学作品テキストから抽出し、本来の色が持つイメージと比喩表現での色のイメージが異な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例えば、「赤い」は単独では火の概念に基づく「暖かい」という要素が中心になるのに対し、「赤い」を用いた色彩語メタファーでは、「暗い」「重い」「醜い」といった否定的なイメージが喚起される傾向があると述べている。「青い」も同様、空を連想することから、「冷たい」「澄んだ」「美しい」「高い」「透明な」と結び付くが、名詞を修飾するメタファー表現の場合「暗い」という否定的イメージが喚起されるという。「黒い」は「重い」というイメージを持つが、メタファー表現の場合「醜い」が多く喚起されると述べる。これは経験領域から抽象的経験領域への写像という観点からのみでは説明できない、その語に対するイメージのずれが見られるという興味深い研究となっている。このように文学作品からは色を使用した表現などが得られ、日常的な言葉にはない表現が収集でき考察の幅を広げている。しかし、コーパスCDを利用した研究は多くの例を得られる一方、共通する言葉が使われている文章のみの抽出となるため限界があり、限定された範囲の研究になる。

次に、身体部位を用いた比喩表現の研究である。感情と身体部位の関係は慣用句を対象に感情はどの部位を用いて表わされているかなどの分類が行われている。認知言語学においては、感情に関する慣用的な言語表現に焦点をあて、それがどのような概念構造に支えられているかを明らかにしている。特に感情概念の全体構造より、個々の感情に焦点をあて、概念構造を詳細に検討している（楠見，1996）。また、感情ではなく身体部位に焦点をあて、比喩的に使われる部位の意味拡張に関する研究も行われている。楠見（1996）は、感情を言語で説明した感情言語を、認知心理学や認知言語学、そして、認識人類学や感情社会学の観点からとらえ考察を行っている。その中で認知言語学的アプローチでは、感情の身体語彙表現を辞書などから収

---

<感情は移動物である>と分類される。（大石，2006）

集し分析している。まず、感情の身体語彙表現の用例数は、顔（目、鼻、口を含む）がもっとも多く、次に内臓（胸、腹、肝を含む）で、姿勢（手、足、腰）は少ないという結果を示している。顔が多い理由は顔の表情の変化が感情の微妙な変化をもっと表現しやすく、認知しやすいからだと述べ、姿勢や身体部位の変化は感情の強度が関係し、また、生理的変化は感情主体は認知できるが、他者は認知できないからであると述べる。以下、楠見が示した身体語彙を用いた感情表現の分析である。

A 感情の比喩表現を支える身体語彙	
a.表情や身体部位の変化の記述にもとづく感情表現	
1) 顔面部位の筋肉や色の変化で表現。 [目を見張る (驚き) /眉をしかめる (不快) ]	
2) 感情にともなう身体部位の反応を描写することで感情を表現。 [手がわななく (悲しみ) /身の毛もよだつ (恐怖) /腰を抜かす (驚き) ]	
b.身体の内的・生理的变化にもとづく感情表現	
・感情の動く場や源として、内臓をとらえ、その変化で感情を表現。 [喜びが溢れる /胸を裂く (悲しみ) /腹の虫がおさまらない (怒り) /肝をつぶす (驚き) ]	

Aのaは身体部位の変化や状態で感情を表わしたものである。驚きは「目を見張る」、恐怖は「身の毛がよだつ」などがある。bは内臓を用いたもので、「胸」や「心」を<容器>としてとらえた「喜びが溢れる」などをはじめ、怒りの「腹の虫がおさまらない」という身体内部の動きを虫に喩えたものなどがある。これら身体を用いた感情表現は普遍的な生理-身体的経験に依存しているため、異文化で共通しているものが多いと述べている。このように身体語彙の慣用句を対象に身体の外部と内部に分け、感情は身体の変化や反応で表わされていると述べる。しかし、感情ごとの身体の変化や部位別の表現など、細かい分析は行われておらず、感情によって表現の差異があるのかなど明らかにしたい部分が尽きない。

次に、身体部位と感情の関係に注目した研究は、有菌（2007）がある。「頭」と「胸」と「腹」を用いた表現から、認知言語学の観点でこれらが持つ概念の共通点と相違点を提示している。精神活動は知的側面（思考）と情緒的側面（感情）に大まかに分類可能であると述べ、「頭」は感情の知的側面を、「腹」は感情の情緒的側面（負の感情）を、そして「胸」はその両者の意味を担うという傾向を示している。しかし、重なる部分もあり、明確に区別できるものではないとしている。まず、「頭」を含むものは大部分が知的精神活動に関わり、感情を表わすものはない。しかし、「怒り」を表わす表現は存在するという。「頭にくる」や「頭に血が上る」などである。怒りは血液が上昇し頭を巡るという身体経験に基づいているためこのような表現が作られる。次に「胸」は感情全般に関わっていると述べる。「胸が詰まる」などの表



現は「喜びで-・悲しみで-・悔しくて-」と結びつき、文脈で判断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また、感情の〈容器〉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ると、「期待で胸が膨らむ」や「胸にしまう」などを挙げている。そして、「胸に入れる」などという表現もあり、知的側面はものを記憶しておく場合に使われると述べる。最後に「腹」である。腹も感情を表わすが、「腹が立つ」という怒りの感情に関わる表現に限られることを示している。腹もまた感情の〈容器〉としての役割を持つが、「うらみを腹にもっていた」などの負の感情を納める容器として限定されると述べる。このように感情を表わす表現における身体部位の役割を詳細に分析した興味深い研究であるが、身体部位の頭と腹と胸の3部位のみであり、対象の例文も慣用句を用いたもののみであるため、限界がみえる。

以上、身体部位の研究は身近に用いられる表現を考察することが目的になっており、辞書に載せられている慣用句やよく使われる簡単な慣用表現に対象が限られている。これらを越えて、自由に創作された感情表現も考察の対象に加えることで考察の幅が広がると考える。

最後に、対照研究である。言語が異なっても人間の認知構造は同じであるとされているが、言語間での相違を明らかにする研究は行われている。言語は歴史的・文化的存在である以上、言語間に差があることは当然だと考えられているためである。日本語と英語の比較研究を行った大石（2008）は、〈感情は水〉のような基本レベルの概念は言語が異なっても多くを共有しているが、全く同じではないと述べている。以下、大石が示した日本語と英語の異なる点をまとめた。

日本語	英語
過程重視 (胸が張り裂けるほどの悲しみ)	結果重視 (怒りで胸が張り裂けた)
自己投入 (もし私だったら～)	自己分裂 (化学者としての自分)
分裂した自己を避ける (体を投げ出す)	分裂した自己 (自分をカウチにドスンと落とした)
襲撃・侵入 (不安に襲われる)	把握・所有 (不安を押収する)
自己は身体の内部にある (気を散らす)	自己の統一と散らばり (私はいたるところに散らばっている)
自己を他者化する度合いは低い (*自分と話し合う)	自己を他者化する (自分と話し合う)

比喩の理解過程で結果を見るか、過程を見るかなど視点の違いを挙げ、「胸が張り裂ける」は英語では「怒り噴出後の破裂」をイメージするが、日本語では「張り裂ける過程の痛み(悲しみ)」をイメージすると述べる。これは日本語は「過程重視」、英語は「結果重視」と

いう特徴からであるという。また、英語にあって日本語にない、または少ない領域として、感情を別人格として取り上げ、それが理性的自己を騙したり支配したりするといった捉え方がある。これが日本語にみられないのは、「自己の他者化」を避けるという傾向を日本語が持つからであるという。日英ではこのような違いがみられるが、明治以降急速に西洋化した日本で「自分を見つめ直す」や「自分探し」など西洋の表現が増えていく。しかし、大石は自己分裂を避け、自己投入的表現を好み、「過程重視」を「結果重視」よりも好むという傾向は残っていると述べている。これを受け、本研究では明治時代から戦後にかけての比喩表現の収集を行うため、明治以降にこのような差異が表われているのかも考察の対象にしたいと考える。

以上で述べたように、認知言語学では、感情の比喩表現として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の発見、そして、身体語彙の感情表現を対象に研究が進められている。それらは慣用句や慣用的表現が主な研究対象であり、各感情、または各身体語彙がどのような感情と結び付いているのか、その部位はどのような意味の拡張があるのかという分析となっている。本論ではこの認知言語学のアプローチに沿って研究を進めたいと考えているが、研究対象としては実際に使用され認識されている幅広い様々な表現を取り上げたい。それにはまず表現の収集が先決であると考えている。本研究では文学作品で用いられている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出来る限り多く収集し考察の対象としたいため、検索に制限が出る既存のコーパスは使用せず、作品内から手作業で収集する。手作業で行えば文脈の比喩など、文章を読まなければ比喩とは分からないものも収集できるからである。ダイグナン（2010）は、経験に基づく概念メタファーであっても経験では例証できない語源の力があると述べ、また、異なる時期に算出されたテキストのコーパスがあれば比喩言語の通時的発達を示すことができると述べる。実際、日英の比較研究によって異なる言語の概念の差異がみられ、明治以降の西洋の文化の流入により、その差異のある西洋の概念が日本語の表現に変化を与えている可能性が考えられる。時代による比喩言語の発達による変化もあるが、異文化から影響を受けた表現の発見も目的の1つとして通時的考察を行いたい。

### 3. 研究対象

#### 3.1 研究対象

本論の研究対象は、戦争文学である。戦争がテーマである作品から比喩を収集する。戦争とは心理的に大きなダメージを与えるため、その心理を描く上で豊富な感情表現が使われていると考えたからである。また、戦争を題材とした作品は明治から戦後にかけて多く書かれており、同テーマの作品から比喩を採集し、背景別に考察をすれば比喩の変遷もたど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狙いもある。

戦争文学とは「戦争を題材とした文学。ふつう、近代、現代ものをさし、それ以前のは、英雄叙事詩、軍記物などと呼んで区別する。(『国語大辞典』)」と記述されている。日本での戦争文学の始まりは明治時代の日清戦争を題材としたもので、国木田独歩の『愛弟通信』や平田仙骨の『黄海海戦』があり、続いて日露戦争を題材とした田山花袋の『一兵卒』、桜井忠温の『肉弾』、水野広徳『此一戦』が挙げられる。これらの作品は戦争の体験に基づく記録的なものとなっている。日清戦争から日露戦争前後にかけての期間は、最も軍国主義的精神が盛んな時期であり作品にも影響を与えている。しかし、反軍国主義を主張する作家もあり、田山花袋の『一兵卒』は反軍国主義作品である。その後、第2次世界大戦後になると、文学の中心題目であった天皇に忠義を尽くし、勇敢であるという「忠勇壮烈」の記述は忌避され、左翼的・反戦的傾向を露骨に含む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世の中も文学も変化し、そして、戦争文学は純文学の中に吸収され、「忠勇壮烈」を題材にした戦争文学は消滅した(星野, 1973)。戦後の作品が純文学であっても「戦争文学」に含まれる。しかし、近代の戦争文学と現代の戦争文学は異なる目でみなければならぬ。

#### 3.2 比喩の収集における範囲・問題点・基準

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の考察の対象は、毎日新聞社(1972)から出版された『戦争文学全集』全6巻である。本論ではその中に収録された、戦場を舞台とした作品と戦後の作品を対象にし、作品の背景ごとに分類し考察する<sup>11)</sup>。戦争は、日露戦争、日中戦争、太平洋戦争であり、そして、戦後は2つ時代に分け、戦後すぐに発表された戦争体験のある作家の作品と、戦争を体験していない終戦時に10代であった作家の作品とする。収集した比喩表現は作者の使

11) 作品の詳細は各章で述べる。

用言語の特徴もあるため用例に偏りがあ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が、作家の使用言語に注目するのではなく、その時代で用いられ、理解されていた言語としてくり考察していく。文学は読み手のために書かれたものであり、表現の方法が作者ごとに異なっていたとしても読み手に理解される表現が作品に用いられているためである。

比喩の収集は作品を読みながら手作業でおこなった。手作業においての問題点は、作品中から比喩表現を探す目的で読む場合、作品の内容に気を取られ、部分的なものや慣用的なものは見逃しやすいことである。そして、内容に注目しなければ、比喩だとは気がつかず読み進めってしまう場合もある。特に文学作品では複雑で高度な比喩表現が使われることが多いため、把握するのが困難な点がある。

このような困難な点を踏まえた上で、まず、登場人物の心の動きが描写されている表現と身体部位や体の状態、表情などが用いられた表現を収集した。そして、その中から国立国語研究所による『比喩表現の理論と分離』の分類法を参考にし比喩表現を抜き出した。ここでは比喩を大きく三つに分類しており、比喩として取り出す場合に分かりやすい分類法である。分類の1つ目は「指標比喩」といわれ、比喩を表わす用語の「ようだ」を用いた表現である。これは直喩と呼ばれている。2つ目は「結合比喩」といわれ、カテゴリーの異なったものを結び付けて作成した表現であり、これは隠喩と呼ばれている。そして、3つ目は「文脈比喩」といわれるもので、文や句全体が比喩になったもので、前後の文章を読んで理解していなければ比喩であるとは分からないものである。これらの3つの分類で比喩であると決定し考察の対象とした。身体部位が含まれる表現においては、これらに追加する形で、体の状態や変化で登場人物の心情を表現しているものを抜き出し、隣接性の比喩である換喩として考察に加えた。感情は感情主体の身体の状態や変化を用いて多く表現され、それらの表現は換喩に属する(楠見, 2007)とされるからである。

#### 4. 本論文の構成

本論文では、日露戦争の作品から戦後の作品まで(1906~1969)を背景別に5つの時期に分けて考察を行う。5つの時期の感情の概念と感情と身体の関係性を分析、考察し、感情の表現方法と言語化された感情から我々の持つ認知構造を明らかにする。そして、その表現方法や認知構造は時代の流れによって違いがみられるのか通時的考察を行う。実際、日中戦争と太平洋

戦争、戦後とつながっているが、戦争の背景が異なるため分けて調査し、その戦争下の感情と表現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

まず、第1章では感情について述べる。人間の持つ基本の感情とその定義、そして、その感情をなぜ我々が持っているのか感情の価値に触れる。また、研究者による感情の分類、その分類の根拠となるものを示す。加え、日本語の感情の語彙の分類、さらに、認知言語学における感情を表わす表現に関して述べる。

第2章から第6章までは背景別に比喩表現の考察を行う。2章では明治時代に発表された日露戦争が舞台の3作品である。3作品は明治時代に発表された桜井忠温「肉弾」(1906)、田山花袋「一兵卒」(1908)、水野広徳「此一戦」(1911)である。「肉弾」と「此一戦」は軍国主義作品、「一兵卒」は反軍国主義作品であり、すべて戦争での実体験を基に兵士の様子や戦闘について書かれた作品である。まず、作品別に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の使用数を求め、どの感情がどの程度使用されているのかを示す。次に、感情ごとに項目を立て、概念別、表現別に用例を分類し、感情は何に喩えられどのように認知されているのかを考察する。また、感情は身体の中のどの部位を用いて表現されているのかも示し、感情と身体の関係も考察していく。

第3章では、日中戦争を舞台とした4作品の考察をする。日露戦争から約30年後の作品である。4作品は石川達三「生きてゐる兵隊」(1938)、火野葦平「麦と兵隊」(1938)、尾崎士郎「ある従軍部隊」(1939)、日比野士郎「呉淞クリーク」(1939)である。これら4作品は作者らがペン部隊として従軍し、記した記録や記憶を基に描いた作品であり、政府の制約の範囲内で書かれたものである。以下、研究方法は第2章に従う。

第4章は、太平洋戦争を舞台とした4作品の考察である。日中戦争から数年後の作品のため時代の開きはない。4作品は井伏鱒二「花の町」(1943)、丹羽文雄「海戦」(1942)、高見順「ノーカナのこと」(1943)、吉田満「戦艦大和の最期」(1952)である。これら4作品は作者が戦地で記した記録や記憶を基に描いたものである。これら作品も政府の管理下で書かれたものである。以下、研究方法は第2章に従う。

第5章では、戦後すぐの3作品の考察を行う。3作品は、大岡昇平「俘虜記」(1946)、梅崎春生「桜島」(1946)、島尾敏雄「出孤島記」(1949)であり、これらの作品は作者の戦争体験を基に描かれているが、作者たちの年齢や戦争の体験は多様である。この時期に書かれた作品はすべてGHQの検閲を受けたものである。以下、研究方法は第2章に従う。

第6章では、終戦時に10代であり、戦争の体験のない作者らの作品を考察する。戦後(二)として4作品選定した。大江健三郎の「人間の羊」(1958)、城山三郎の「大義の末」(1959)、

開高健「輝ける闇」(1968)、石原慎太郎「待ち伏せ」(1969)である。作者らは第二次世界大戦での戦争の体験はないが連合軍に占領されていた日本での生活を経験している。「人間の羊」と「大義の末」は敗戦後の日本の様子を描き、「輝ける闇」と「待ち伏せ」はベトナム戦争が題材となっている。その中で、開高健の「輝ける闇」のみ作者がベトナム戦争の取材のためベトナムに赴き、そこでの体験が基に描かれたものである。以下、研究方法は第2章に従う。

第7章では、5つの時期の18作品から得られた全用例を用いて考察を行う。まず、1節ではどの感情が多く使用されているのか、また、背景ごとに感情の使用数の異なりに特徴が表われているのかを考察するため、感情の使用数を示す。2節では感情がど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るのかを明らかにする。その後、時期によって認識に異なりがみられるのか、全時期で用例の多かった感情を対象に通時的考察を行う。3節では感情と身体部位の関係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各感情がどの部位によって主に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のかを示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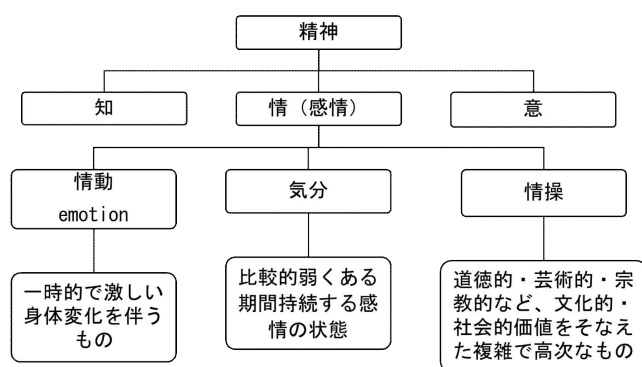
第8章では、身体部位「胸」を用いた比喩表現を対象に通時的考察を行う。まず、胸を用いた比喩表現を構成別に分類し、分類ごとに胸と感情の関係を考察し、それを基に、5つの時期の共通点や相違点を明らかにする。

以上が本論文の構成である。文学作品で用いられる表現の考察によって我々の持つ感情がどのように表現され認識されているのかを明らかにしていく。

## I. 感情

感情とは「喜んだり悲しんだりする、心の動き」<sup>12)</sup>である。感情の中には情動というものがあり、それは「急速に引き起こされ、その過程が一時的で急激なもの。怒り・恐れ・喜び・悲しみといった意識状態と同時に、顔色が変わる、呼吸や脈拍が変化する、などの生理的な変化が伴う」<sup>13)</sup>ものである。このため心理学では、感情の広義は「情動」であり、狭義は「身体表出の少ない快と不快でとらえる心の作用」として区別されている。これは英語でははっきりと区別され定義されている。感情にあたる英語の「feeling」<sup>14)</sup>は、瞬間的で皮膚や身体感覚を表わし、情動と訳される「emotion」<sup>15)</sup>は、一時的で急激な強い感情の動きであり、筋緊張や心拍数の上昇、身体表出をとともなうものである。

ドイツの哲学者カント (Immanuel Kant) は人間の精神の働きとして「知・情・意」を示した。知は知性のことであり、知性に関わる心の働きをいう。情は感情であり、感情に関する心の働きをいう。そして、意は意志であり、意思に関する心の働きのことをいう。本研究対象の感情はこの情であり、情動や気分、情操、情緒 (passion) などと分類されている。これら精神の働きとしてまとめたものを [図1-1] で示す。我々が普段用いている感情という言葉は、このように情動や気分、情操や情緒などという言葉に置き換えられ用いられているが、本論文では本章を除き、情動を含めた人間の心の動きは全て感情というひとつの言葉を用いて論じていく。



[図1-1] 人間の精神の働き

12) 松村明 (2008) 「スーパー大辞林 3.0」三省堂

13) 同上。

14) 「goo辞書」 [書籍版『プログレッシブ英和中辞典 第5版』小学館] 参照。

15) 同上。

## 1. 基本の感情の定義とその価値

まず、アメリカの心理学者エクマン (Paul Ekman) <sup>16)</sup>が基本的情動と呼ぶ6つの感情の定義とその感情がなぜ存在するのか、なぜ必要なものなのか情動の価値<sup>17)</sup>を [表1-1] で示す。定義は「どのような感じ」なのか、価値は「なんのためにある」のかの記述である。喜びと悲しみは反意語であり、繁殖に関係する感情である。驚きは情報収集、怒りは闘うため、恐れは逃げるためにある感情である。嫌悪は自分に害のあるものを避けるためにある。

[表1-1] 基本的情動の定義と価値

感情	定義 (『国語大事典』)	価値
喜び	快く思うこと。心にうれしさを覚えること。 【嬉しい】物事が望ましい有様になったり、満足すべき状態にあると感じたりして、はればれと快い。	自らの遺伝子を伝え広めるため。性交渉を持ったり、友と会ったり、贈り物もらったとき喜びを感じる理由は、先祖の繁殖上の成功に貢献したから。
驚き	【驚く】①意外なことにあって、心が動く。心の平静を失う。びっくりする。②はっとして気づく。注意がひかれる。	新奇な刺激に反応することを助ける。驚きという情動によって足を止め、注意を払う。目を大きく見開き情報を可能な限り多く取り入れる。
悲痛	【悲しい】感情が痛切にせまってはげしく心が揺さぶられるさまを広く表現する。	繁殖上の成功を妨げるものに反応。
怒り	【怒る】自分の意に反するものの存在によって感情がいらだち荒れる。	生命体が逃げるのではなく、闘うことの準備態勢を作る。
恐れ	【恐い】強い相手や危害を加えられそうなもの、正体のわからないもの、危険な場所などに対して、身をしりぞけたいくなる感じである。身に危険が感じられて不気味である。	危険の兆候に迅速に反応し、すばやく逃げるができるように身体中にホルモンを大量に放出し、心を逃げろというたった一つの思考でいっぱいにする。
嫌悪	感情的にひどくきらいなこと。	伝染病の細菌の温床となっている腐った食物や排泄物から遠ざける機能。

これらの基本の情動以外の感情で高次認知的情動と呼ばれるものがある。それは「愛・罪悪感・恥・照れ・誇り・羨み・嫉妬」である。これらの情動は基本情動よりもゆっくりと現われ、ゆっくり消えていくといい、大きな文化的差異を示すといわれている<sup>18)</sup>。基本情動といわれるものは、主に脳の表層の下に埋もれた皮質下構造において処理され、自動的で制御が効かないのに対し、高次認知的情動

16) ポール・エクマンは感情と表情に関する研究を行ったアメリカ合衆国の心理学者。

17) エヴァンズ・D. (2011) 『感情』を参照。

18) 同上。



は、大脳新皮質<sup>19)</sup>による処理を多く必要とし、より計算的に、文化的に処理される情動であるという脳の処理に違いがある。

## 2. 感情の分類

次に、感情の分類である。アメリカの心理学者エクマンは6情を基本とし、同じくアメリカの心理学者プルチック (Robert Plutchik) は8情を基本としている。中国では5情、6情、そして、『三字経』では7情が人には備わっていると述べる。エクマンは基本感情の9つの基準、例えば、顔面表出するか、短時間で終結するか、生理的反応があるかなどを設け判断している。プルチックはある状況に応じた行為を起こすのにもっとも適切な身体状態になっているかなどの生理的反応で判断している。5情から7情は人間の本性の動きを情とし、それらを5つから7つに類型化したものである。

[表1-2] 基本感情の分類

感情 \ 分類	エクマン	プルチック	5情	6情	7情	補足
喜び	○	○	○	○	○	
怒り	○	○	○	○	○	
悲しみ・哀	○	○	○	○	○	
楽しみ			○	○	○	英語では動詞。自分の気分次第
愛				○	○	心の底にあるもの。仏教では欲望の一
恨み・怨み・憎しみ 嫉妬・嫌悪	○嫌悪	○嫌悪	○	○	○憎しみ	
恐れ	○	○			○	
驚き	○	○				英語は受身の表現 外部からの働きかけが強い
欲					○	感情より本能
受容		○				
警戒・期待		○				
	外部からの影響を受け、表面に出る感情	外部からの影響を受け、表面に出る感情	人間が生活をする時に起こる出来事に対する人間の感情を大まかに述べたもの。			

19) 新皮質は、最も拡張し発達した脳の部分であり、それは意識的で論理的な分析といった複雑な認知能力の大部分を支えている。学習・思考・情操などの精神活動が営まれる。

情動として全てに選ばれている「喜び」「怒り」「悲しみ」は、ある対象から影響を受けたことに対する自分の心の動きである。「楽しみ(楽しい)」は外部から影響を受けてというよりは、自分自身が持続的行動をして満足するという意味を持つ。「愛」という概念は、仏教の教えが広まっていた日本では欲望の一つとして否定的に見られていた。キリスト教伝来時にラブ(love)は愛であると訳され、現在の肯定的な意味で広まったとされている。しかし、この愛という概念がなぜ、英語圏では感情の一つとして含まれないのか。それは、ある対象から影響を受けて表面に出る心の動きではないから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love」は神から与えられるものであり、また、動詞として相手に働きかけるものであるからである。「恨み・憎しみ・嫉妬・嫌悪」は精神に有害なものとして捉えられ、不快、不満、嫌い、許しがたい気持ちを表わす。「恐れ」は外部からの働きかけによるものが強いが、不安や心配などを恐れに含む場合、自らの心の中で作り出す感情にもなる。「驚き」は自らが作り出す感情とは異なり体の反射的反応である。英語では「You surprise me.」「I was surprised.」と動詞として、そして受身表現で使われることから、外部からの影響が強いことがわかる。

感情の分類は主に感情が起こる時の体の反応や状態によって分類される。感情の分類方法も研究者や分野によっても様々である。他の研究者による基本情動に関する考え方を参考として[表1-3]で示す。

[表1-3] 基本情動のさまざまな考え方<sup>20)</sup>

研究者	基本情動	基準
マクドゥーガル(1926)	怒り, 嫌悪, 得意, 恐れ, 服従, 愛情・慈愛, 驚き	本能
ワトソン(1930)	恐れ, 愛情, 怒り	神経学的基盤(生得性)
アーノルド(1960)	怒り, 忌避, 勇気, 落胆, 欲望, 絶望, 希望, 恐れ, 愛情, 悲しみ, 憎悪	行為傾向
プルチック(1980)	受容, 良き, 喜び, 恐れ, 怒り, 悲しみ, 驚き, 嫌悪	生物学的適応価
バンクセップ(1982)	期待, 恐れ, 怒り, パニック	神経学的基盤
トムキンス(1984)	興味, 心理的苦痛, 怒り, 喜び, 軽蔑, 恐れ, 恥, 驚き, 嫌悪	神経学的基盤(生得性)
ワイナー & グラハム(1984)	喜び, 悲しみ	原因帰属様式
グレイ(1991)	不安, 肯定的情動, 怒りと恐怖	神経学的基盤
イザード(1991)	怒り, 軽蔑, 嫌悪, 心理的苦痛, 恐れ, 罪, 興味, 喜び, 恥, 驚き	神経学的基盤(生得性) 生物学的適応価
エクマン(1992)	怒り, 恐れ, 嫌悪, 喜び, 悲しみ, 驚き	顔面表出, 神経学的基盤
ジョンソンレアード & オートレイ(1987)	怒り, 嫌悪, 不安, 喜び, 悲しみ	生物学的適応価 先行事象

20) 基本情動に関する様々な考え方から引用。研究者はカタカナ表記に変更。(土居昭司他編『感情と行動・認知・生理』誠信書房, p.17)

上記以外で、西洋文明とは異なり中国思想を中心とした東洋思想における分類もある。東洋で最初に感情の区分を指摘したのは儒教であるといわれており<sup>21)</sup>、それは「礼記」に記されている。感情は6種類で「喜・怒・哀・懼（おそれ）・愛・悪（にくむ）・欲」と分類されている。仏教では東洋思想の影響を受けているが、仏教では感情ではなく煩惱という言葉が用いられ、それは心身を悩ませる精神作用のことをいう。基本の煩惱は6種類と分類はされているが、西洋や東洋の思想とは大きく異なるため、ここでは割愛する。

### 3. 感情の語彙の分類—日本

次に、語彙の分類である。『国語語彙論』には感情に関する分類が2つ載せられている。1つ目は、「基礎日本語分類表」<sup>22)</sup>である。土居光知が1100語の基礎語彙を選定し分類し作成<sup>23)</sup>したものである。そのなかで、「心」と「心の動き」と「感情」に含まれるものを以下に挙げる。感情の項目では11種類の感情「愛・怒り・悲しみ・きらひ・苦しみ・悔み・好み・楽しみ・慰み・憎み・恥ぢ」がみられる。

心	心 意識 衝動 意志 理性 観念 思想 主義 想像 夢 慾
心の動き	見る 眺める 聞く 知る 認める 信 疑ひ 思ひ 考へ 試み 企て 計り 志し 望み 願ひ 驚き 恐れ 偽り 忘れ おぼえ 誇り 注意 計画 応用 選択 案 発展 説明 態度 主観 客観 同情 興味 賛成 反対 区別 心配 遠慮
感情	感情 感じ 愛 怒り 悲しみ きらひ 苦しみ 悔み 好み 楽しみ 慰み 憎み 恥ぢ

2つ目の分類は、1953年に国立国語研究所による婦人雑誌の語彙調査で得た4280語を分類

21) 福田正治 (2001) 「感情 (情動) の分類 -進化論的感情階層仮説-」 『富山医科薬科大学一般教育26』 pp.35-52

22) 田中章夫 (1978) 『国語語彙論』 明治書院, pp.72-78

23) 大きく44に分類。ひと, 体, 住居, 着もの, 道具, 家の家具, 食するもの, 飲むもの, 食事, 自然, 地の表面, 鉱物, 植物, 動物, 数と量, 時, 形, 色, 声, 位置, 旅, 通信, 機械・工業, 組織, 社会・文化, 知識, 心, 心の働き, 感情, 感覚, 手の働き, 足の働き, 体の働き, 働き一般, 行ひ, 状態・性質, 関係, 一般, 雑, 名の代わり, 関係を表はす語, 繋ぎの語, 添への語, 語の頭に添へる語, 語の尾に添へる語, あいさつ

したものである<sup>24)</sup>。精神および行為の項目に含まれる語彙は次の通りであった。上記の『国語語彙論』の心と心の動き、そして感情が含まれている。

気 気分 気持 心持 気立て 心情 機嫌 御機嫌 心境 情 感情 感動 感激  
感傷 落着 無我 驚き 喜び 楽しみ 嬉しさ 不快 苦しみ 苦悩 悩み 哀れ 悲しみ  
悲しさ 淋しさ 恐怖 恐れ 恐しさ 怒り 癩癩 憤り 心配 不安 満足 不満 誇り 好み  
愛 愛情 恋 恋愛 嫉妬 遠慮 反感 恨み 憧れ 友情 好意 感謝 迷惑 ユーモア  
謙譲 何気

最後に『感情表現辞典』の分類である。この辞典はどの表現を用いるか悩んだ際の手だてになるよう作られたものである。全ての用例は文学作品から集められ分類したものであり、普段用いられている感情を扱う場合に分かりやすい分類である。感情の分類に関しては次のように述べられている。

「心理学的には、全体を快・不快、興奮・沈静、緊張・弛緩という三対の方向に分け、憂鬱・悲嘆・当惑・歓喜・嫌悪・希望・恐怖・不安といった下位情緒をそれぞれの線上に位置づけるようである。が、この分類は言語表現面に反映した感情のあつかいにはなじみにくい。また、昔から感情の代名詞となっている喜・怒・哀・楽の四分説、テ・ニ・ヲ・ハが助詞の整理に向かないように、感情表現の分類には必ずしも有効でない。そこで、実際の表現例から喜・怒・苛・悲・淋・鬱・悄・苦・安・悔・昂・感動・好・嫌・憎・驚・怖・恥・惑の十九種の感情を抽出したが、境界線の引きにくさを考慮して、この第一次分類を部分的に修正した。すなわち、悲と淋を一括して哀としたのが、第一点、鬱・悄・苦・悔・嫌・憎・惑を一括して厭としたのが、第二点、苛・昂・感動を一括して昂で代表させたのが第三点である。その結果、最終的に、喜・怒・哀・怖・恥・好・厭・昂・安・驚という10類の感情を立頂し、語句編もこれに従って分類した。」<sup>25)</sup>

以上で述べたように感情の分類は心理学では基本の4分類、生物学的分類では6分類、8分類など分野や研究者によって様々で、本能や顔面表出、神経学的基盤などを基準に分類されているが、我々が普段用いている感情を分類するには一つの感情の持つ意味の幅が非常に大きい。また、上記で述べた使用語彙の分類に従えば、感情による境界線がないため感情表現を考察するには適切では

24) 田中章夫 (1978) 『国語語彙論』 明治書院, pp.125-126

25) 中村明 (1980) 『感情表現辞典』 から引用。 p.13

ない。したがって、本論では文学言語の用例を集めた『感情表現辞典』（1980）を参考にしたい。

『感情表現辞典』では、実際使われている言語を文脈から感情別に分類したもので、本論の対象となる用例の分類に適している。辞典では大きく10種類に分類されたあと、その中で感情の種類の説明と共にさらに細かく分類されている。10種類の感情は「喜・怒・哀・怖・恥・好・厭・昇・安・驚」であり、これらの中に類似した感情がすべて含まれている。しかし、収集した表現を分類するにあたって、10種類では分類が大きく、また下位分類では細かすぎると判断し、本研究では辞典の感情の分類を参考に、収集した用例に見合った分類を行う。正の感情は「喜び・愛好・安堵・楽しさ」の4種類、状況によって正にも負にもなる感情として「追憶・興奮・緊張・驚き」の4種類、負の感情は「悲しみ・怒り・恐怖・不安・絶望・恨み・嫌悪・悔しさ・後悔・恥」の10種類、全18種類である。

分類するにあたり基準にしたものは、単純ではあるが「似ている感情であってもその感情を表わす言葉がある」である。似ていてもどこか違った感情だと考えているため違う言葉が作られ使われている。これは心理学や生物学からみる感情の分類とは違い、我々の経験から作られた言葉による分類である。まず、正の感情の「楽しい」は「基本情動」や『感情表現辞典』では「喜び」の中に含まれる感情である。しかし、『国語大辞典』によると、「楽しい」は「持続的行為によって欲望などが満たされ、精神的に満ち足りて快いさま」とあり、「喜び」は「うれしく思うこと」であり、「うれしい」は「満足すべき状態にあると感じて、はればれと快い」とある。「楽しい」は自分自身が行為をすることによって満足した気持ち、「喜び」は誰かにまたは何かに明るく快い状態にされるという違いがあるため、別の感情として分類する。正負の感情の中では「追憶」は辞典では「好（なつかしい）」に含まれている。追憶は昔を想う懐かしさもあるが、実際はもう戻れないという負の感情も持ち合わせている感情であるため、正の感情に含むのではなく、正と負の両面を持つ感情として別に分類する。次に、「緊張」は辞典では「昂（興奮）」に含まれる。緊張と興奮は身体にとっては同様の種類の反応であるとしても、我々が感じる反応は異なるため、異なる感情として分類する。緊張は神経や態度にゆるみがなくなるひきしまった状態になる。興奮は体が熱くなり、細胞の活動が活発になる様子を血流から感じるだろう。最後に、負の感情では「不安・絶望」は辞書では「恐怖」に含まれ、「恨み・悔しさ・後悔」は辞書では「厭（嫌悪）」の感情に含まれている。不安や絶望は広義では恐怖の感情に含まれるが、狭義ではそれぞれ意味を持つ。特に恐怖は「死」を意識した強い感情であるのに対し、不安は「きがかかりだ」という弱い感情を指す。また、絶望は「希望が失われる」という意味であり、死を意識する場合もあるが、目の前の死を恐がる気持ちを指してはならない。「恨み」は相手を憎む嫌悪の感情も含まれるが、意味は「不利益を受けた人に対して不満を抱え、反発する気持ちをもつ。

その不満をこらえている」などとある。嫌悪は「ひどく嫌う」というように不利益をこむったわけではなく、「生理的に、また感情的に嫌いであり、不快に感じる」という意味が強く、恨みと多少の異なりがある。「悔しさ」は「負けたり、恥を受けたり、自分の無力を知って、残念だ」という意味であり、「憎んで嫌いだ」という嫌悪とは異なる。「後悔」は悔しさと重なりがあるが、「してしまったあとで、それが悪かったとくやむ」と自分の行動後への悔やみを述べており、「負けてくやしい」という気持ちとは異なるため、別に分類する。

これらに加え、「悲憤」や「怒りと恐怖が混じり合った感情」など文に見られた場合は、混じりあった感情として「混合」とする。また、なんの感情の起伏が起ってない状態を表現したのも1例みられたため、その感情は「平静」とし、これらの感情に加える。「平静」とは落ち着いている、穏やかであるという意味を持ち、感情によって心や体の変化がない様子に適切な言葉である。

このように全18種類の感情を用いて考察を行うが、人間の感情の種類を取り上げると感情は負の感情が多いことが明らかである。そのため収集した用例も作品の背景を考えると負の感情が多くなることは確実である。

#### 4. 認知言語学における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

認知言語学が対象とする「心」とは、五感<sup>26)</sup>に運動と平衡と内臓感覚を入れた8感とともに生まれる「知・情・意」の精神活動のことをいい、それを「認知」と呼ぶ。経験できるものはすべて心の中に概念として存在し、それによって比喩が作られる。認知言語学における感情を表わす比喩は隠喩と換喩に分けられる。これらの比喩を認知言語学ではどのような視点でみているのか、以下で「怒り」を例に用いて述べる。

まず、認知言語学では前述したがイメージ・スキーマという言葉が使われる。イメージ・スキーマとは、「言葉の形成と概念化に先立って存在する心的表象に関わる認知能力の1つ<sup>27)</sup>」である。例えば、容器といえば思い浮かぶイメージは人それぞれ違う。コップであったり、お椀やバケツなど様々である。このような具体的なコップやお椀などはイメージといい、その形にあたる「まるい形」をイメージ・スキーマと呼び、意味にあたる「物を入れるもの」はスキーマ的意味という。我々はこの意味を知ってい

26) 五感は学習・記憶・推論・判断など、精神活動と密接に関連した基本の感覚である。

27) 辻幸夫編 (2013) 『認知言語学キーワード事典』 研究社, p.16

れば、様々なものの様子を関連づけて理解できる。怒りのイメージ・スキーマは「熱い液体」や「火」である。これは我々の基本的な経験に結び付けられており、情報量が多く習慣的な心的イメージを持つ概念から成り立っているものである。日常的によく知っている知識を用いて怒りを理解するのに役立つものであり、これから作られた「怒りは火である」という「火」に喩えた表現は「基本レベルのメタファー」<sup>28)</sup>と呼ばれる。また、「怒りは容器の中の熱い流体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も挙げられる。これは「構成的メタファー」<sup>29)</sup>と呼ばれるもので、怒りという感情は体内という<容器>の中にある<液体>という構成的に類似したもの「容器の中の液体」に置き換えて表現したものである。

イメージ・スキーマは、感情に関するヒトの身体的経験であるため、異文化間で共通するものである。しかし、全てが共通している訳ではない。例えば、中国では怒りを表わす「nu (怒)」は「qi (気)」という概念と密接に関わっており、液体ではなく気体であるという。韓国語の場合は、「hwa naeda (火を出す)」という表現があり、「怒りは火である」という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一方、日本語の場合は、日本では怒りは隠蔽するものだという考えがあり、また「腹が立つ」という怒りの慣用句から「腹」と「怒り」には強いつながりがみられる。腹は心や気持ちなどの置き換えで使われ、怒りは腹に影響を与える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る。しかし、先行研究でも述べたが、この比喻から導き出される概念とは、ある部分のみの共通点「怒り=熱い」を指しているのであって、「怒り」と「火」は必ずしもすべてが共通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そして、その概念は我々の感情の理解を助けているが、その一つ概念だけで、その感情を理解しているのではなく、様々な角度からも見ているため、この導き出された概念は代表的なものの一つであると理解しておくことが大切である。

次に、換喩とは前述した情動と関係があるものである。情動は身体的反応が出る感情であると述べたが、それを言語化したものが換喩に当たる。身体の変化や状態を述べたもの、例えば、「顔を真っ赤にして怒る」や「怒りに震える」といったものである。「顔を真っ赤にして怒る」は怒りとともに多量の血液が流れ身体に熱が生まれている状態である。「怒りに震える」は怒りによるストレスが精神に異常を与え震えが起こっている状態である。

人間の言語には、語彙を増やして情報を豊かにしようとする反面、記憶の負担を減らすためにできるだけ少ない語彙で情報を効率よく伝えようとする機能がある。その機能とはある1つの語の意味を拡張あるいは縮小し、多くの意味を発生させることである。「連想」という認知能力がそれにあたり、主として、似通ったところを探す心理のことをいう。共通点を探すことにより合理的に解釈しようとする心理であり、この心理は比喻の世界を支え、意味拡張および縮小により比喻が生まれている。認知言語学で

28) 普段用いられている「怒りに燃える」「怒りが爆発する」など火に関する表現が多いことから導き出される。

29) 普段用いられている「怒りがこみあげる」など容器の中の液体を連想させることから導き出される。

は、このように普段用いられている言語から我々が持つ感情に対するイメージを導き出し、どのように言語を認知しているのかに焦点を当てて研究がなされている。



## Ⅱ. 日露戦争を背景とした作品の比喩表現 \*

本章での考察の対象は、第1巻に収録されている日露戦争を舞台にした3作品から収集<sup>30)</sup>した比喩表現である。その3作品は明治時代に発表された桜井忠温「肉弾」(1906)<sup>31)</sup>、田山花袋「一兵卒」(1908)<sup>32)</sup>、水野広徳「此一戦」(1911)<sup>33)</sup>である。明治時代に日露戦争を舞台にして書かれた作品は収録されているこの3作品のみであり、作者の言語使用の特徴もあるため用例に偏りがあ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が、作品別ではなく1つの時代として括りその時代で使用された比喩表現として考察する。

次の[表2-1]は作品別に収集した比喩表現を感情別<sup>34)</sup>にまとめたものである。正の感情と負の感情、正と負の両面を持つ正負の感情と大きく3つに分類されている。正の感情とは快の感情であり、明るい気持ちになる心の働きを表わす。負の感情は不快な感情であり、ものごとを悪く考える心の働きのことである。

収集した比喩表現の正の感情は「喜び・楽しさ」、状況によって正の感情とも負の感情ともいえる「追憶・興奮・緊張」、そして、負の感情は「悲しみ・怒り・恐怖・不安・絶望・恨み・悔しさ・恥」と全13種類である。これらに加え、2種類の感情が混ざったものは「混合」とする。

\* 本章は2019年『日本文学研究』第71輯(東亜細亜日本学会)に掲載された伊藤江美「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の考察—明治の戦争文学を対象に—」に加筆・修正を行ったものである。

30) 特定の作品の比喩表現コーパスはないため作品を読みながら手作業で比喩を収集した。

31) 日露戦争の旅順攻防戦の実体験を基に描いた軍記文学である。旅順要塞を総攻撃する兵士たちの心情を描いている。多くの死者を出した攻撃だが戦争に対する批判は見られない軍国主義の作品である。

32) 脚気により死に近づいていくある兵士の心の内を描いた短編小説である。自然主義の田山花袋の作品であり、反軍国主義の作品である。

33) 日露戦争の日本海海戦記であり、軍国主義作品である。海戦の様子と戦闘の合間の兵士らの様子が描かれている。

34) 正の感情として「喜び・愛好・安堵・楽しさ」、負の感情として「悲しみ・怒り・恐怖・不安・絶望・恨み・嫌悪・悔しさ・後悔・恥」、正負の感情として「追憶・興奮・緊張・驚き」と19個に感情を分類する。本稿ではこの中で13個の感情がみられた。

[表2-1] 作品別感情の比喩表現用例数 [個数(%)]

	感情	肉弾	一平卒	此一線	計	
正	喜び	4 (6.6)	0 (0)	0 (0)	4 (3.6)	7 (6.3)
	愛好	0 (0)	0 (0)	2 (7.4)	2 (1.8)	
	楽しさ	1 (1.6)	0 (0)	0 (0)	1 (0.9)	
正負	追憶	2 (3.3)	3 (12.5)	0 (0)	5 (4.5)	27 (24.3)
	興奮	13 (21.6)	1 (4.1)	7 (25.9)	21 (18.9)	
	緊張	0 (0)	0 (0)	1 (3.7)	1 (0.9)	
負	悲しみ	22 (36.6)	8 (33.3)	4 (14.8)	34 (30.6)	73 (65.7)
	怒り	2 (3.3)	0 (0)	1 (3.7)	3 (2.7)	
	恐怖	2 (3.3)	4 (16.6)	5 (18.5)	11 (9.9)	
	不安	3 (5.0)	6 (25.0)	0 (0)	9 (8.1)	
	絶望	0 (0)	2 (8.3)	2 (7.4)	4 (3.6)	
	恨み	6 (10.3)	0 (0)	2 (7.4)	8 (7.2)	
	悔しさ	2 (3.3)	0 (0)	1 (3.7)	3 (2.7)	
恥	0 (0)	0 (0)	1 (3.7)	1 (0.9)		
	混合	3 (5.0)	0 (0)	1 (3.7)	4 (3.6)	4 (3.6)
	計	60 (100)	24 (100)	27 (100)	111 (100)	

日露戦争の時期は軍国主義精神の強い時期である。そのため、国の為に闘いに挑む感情である興奮(18.9%)が多く表われている。また、国の為に死んでいった仲間の兵士を弔う気持ちが悲しみ(30.6%)に表われている。その反面、戦闘や死に対する恐怖(9.9%)や不安(8.1%)は多くない。国の為に闘い死ぬことが誇りである兵士らの姿が描かれているためである。作品別では、最も多くの用例が得られたのは「肉弾」であり、正の感情がみられたのもこの作品だけである。「肉弾」は軍国主義の作品であるため、死への恐怖より戦いへ挑む興奮(21.6%)や勝利の喜びが他の作品より多く表れ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一兵卒」は反軍国主義の作品であり、戦争に対する美化などは一切見られない。病気により死に近づいていくある兵士の心の内を描いた作品であるため死への恐怖(16.6%)や不安(25.0%)が多く描かれている。「此一戦」は日露戦争の日本海海戦の記録であるため人物の感情があまり描かれておらず、長編であったが比喩表現は多く得られなかった。戦いへ挑む興奮(25.9%)が最も多くみられる。

## 1. 感情別比喩表現の分類と分析

収集した比喩は直喩と隠喩、そして換喩である。直喩とは比喩指標「ようだ」が文中に表れる比喩である。例えば「不安は鉛のように重い」という文が直喩に当たり「不安」が被喩辞<sup>35)</sup>となり、

35)被喩辞とは喩えらえる語であり、「主題、トピック、テナー、趣意」などと呼ばれる。本論では感情が被喩辞となる。

「鉛」が喩辞<sup>36)</sup>となる。隠喩とは「恐怖に襲われる」のように比喩指標がない文である。被喩辞は「恐怖」であるが、隠喩の場合、喩辞は文中に見られないため文脈と類似性から判断される。この場合、「襲われる」という語から発見できる類似性により喩辞を決定する。つまり、隠喩での喩辞は文脈や類似点から一般的に連想されるものになる。「襲われる」から一般的に導き出せるものは「命が奪われる危険なもの」であり、ここでの喩辞は「攻撃性のあるもの」と決定付けられる。そして、換喩とは感情を身体の状態を表わしたものである。悲しみは涙で表現され、恐怖は体温低下などの表現で描かれる。本節では、直喩・隠喩・換喩を感情別に分類し、そして、各感情がどのように表現され認識されているのか各感情の持つ概念を基に分類、分析した。以下、用例の作品表記は「肉弾」は「肉」、「一兵卒」は「一」、「此一戦」は「此」とする。

## 1.1 喜び

### 1) <喜びは方向性がある>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には大なり小なり程度がある。大きさだけでなく、重さや量により上に上がったり、下に沈んだりもする。一般的に喜びは上(up)、悲しみは下(down)に向かうという概念を持っていると認識されている。

(1) 我等の喜びや無限大であつた。 (肉 p.15)

(2) これぞ我本隊で、予等の喜びは極点に達した。 (肉 p.97)

(1)の「無限大」と(2)の「極点に達する」は喜びの大きさ、つまり程度を表わしている。これらは身体性を基礎にもつ認知構造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方向性のメタファー>や<上下のメタファー>と呼ばれる。<方向性のメタファー>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は<上下>の意味が含まれるものである。次のようなペアの語はこれに含むことができる。「多少：量が多くなる(up)・量が少なくなる(down)」「大小：サイズが上がる・サイズが下がる」「軽重：軽くて上がる・重くて下がる」「濃淡：濃度が上がる・濃度が下がる」「深淺：浅い位置(上)・深い位置(下)」「冷温：温度が下がる・温度が上がる」「強弱：強度が上がる・強度が下がる」などが挙げられる。

### 2) 喜びを「胸」の状態で見表する換喩

36) 喩辞とは喩える語、「対象」である。比喩表現には3つの要素が関係する。「喩えられるもの」「喩えるもの」そして類似性を示すもの「根拠、共通基盤」である。

(3) 予は思ひ掛(かけ)無くも二氏の声を聞いて、胸が迫つた。(肉 p.108)

(3)は2人が死んでいなかった事を知った喜びの場面である。「胸が迫る」は嬉しさと心臓の拍動が増えることによる息苦しさを表わしている。「迫る」は圧迫を意味する。

### 3) 喜びを「笑い」で表現する換喩

嬉しさを顔の表情の笑いで表現しているものである。

(4) 日に焦げ、雨に曝(さら)された其顔に浮ぶる嬉笑の陰には、あはれ(省略)。(肉 p.8)

(4)は内部にある喜びの感情が顔という表面に浮かび上がっている様子である。当然であるが、大抵喜びの表情は笑いが用いられる。

## 1.2 愛好

### 1) <愛好は固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5) 純露西亜種族たる「スラブ」人並に「コサック」人に至りては、皇帝を以て神と信じ、其の命ずる所、水火と雖も尚ほ辞せざるの忠臣である。我が国民に大和魂があれば、露西亜人には「スラブ」魂がある。而も此の魂たるや、不撓不屈、剛靱にして粘液質に富めること、恐らく世界に冠たりといふべきであらう。(此 p.200)

(5)は皇帝への忠誠心を述べた文章である。ここでの「大和魂」とは「国家への忠誠、自然や国への愛<sup>37)</sup>」を指す。そのためここでの「スラブ魂」とは皇帝への忠誠心である。この忠誠心は「剛靱・粘液質に富む」と、物体が持つ性質で表現されている。

## 1.3 楽しさ

### 1) <楽しさは固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の共有を物のやりとりに喩えている。

37)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小項目事典」 ブリタニカ・ジャパン株式会社

(6) 楽しさを分かť (肉 p.8)

(6)の「分かť」とは「分けて配る」という意味である。実体のない「楽しき」を誰かに＜分けることのできる物＞として捉えている。

#### 1.4 追憶

追憶は故郷を思う気持ちや昔のことをなつかしく思う気持ちである。5つの表現方法に分けられる。

##### 1) <追憶は容器の中の液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が存在する場所として「心」と「胸」が挙げられるが、その心と胸を＜感情の容器＞として表現している比喩表現である。Lakoff&Johnson(1980)を始め、楠見(2007)らによって、われわれは一般的に＜感情は容器の底から湧きあがる水である＞という共通のイメージ・スキーマで理解し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る。＜容器＞とは胸や心以外に身体を示す場合もある。38)

(7) 一時とだえた追懐の情が流るるように漲ってきた。(一 p.117)

(7)の「漲る」は液体が溢れるほど盛んな様子であり、追憶の感情の強さも表現されている。

##### 2) <追憶は生物>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追憶も抑制できない感情として移動する生物に喩えられる。移動する生物とは、意思を持った生物である。

(8) 戦場に恋々として妻子の写真を抱くなどとは、女々しい腐れた奴だと罵る者あらば夫れ迄だが、されど万里遠征の空、殺気満々たる戦場の裡、而かも孤軍途絶えて、故郷の雁の音信だに無き彼等の胸中には、果たして何等の情が往来しつゝありけん。(肉 p.68)

(8)の「往来する」は行ったり来たりと動きを表わしている。追憶が移動する＜生物＞として捉えられ、胸の中という＜容器＞または＜空間＞で動き回っている様子が描かれる。

---

38) 慣用句の「頭に入れる」など頭を＜容器＞と認識しているものもあるが、頭は主に思考で使われる。

3) <追憶は自然物(現象)>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sup>39)</sup>

(9) かれの胸にはこれまで幾度も祖国を思うの念が燃えた。 (一 p.117)

(9)は祖国を思う気持ちを<火>で表現したものである。火は触れない熱さや物を燃やし尽くす属性を持ち、人間にとって恐ろしいものである。ただの物体に喩えるよりも感情の強さを表わすことができる。

4) 追憶を身体「痛み」で表現する換喩

追憶の感情は、もう過去には戻れないという辛い気持ちが含まれる場合もある。そのつらさは身体の痛みによって表現される。

(10) 草叢には虫の音がする。故郷の野で聞く虫の声とは似もつかぬ。この似つかぬことと広い野原とがなんとなくその胸を痛めた。一時途絶えた追懐の情が流るゝやうに漲つて来た。 (一 p.116)

(10)は故郷ではない場所にいるという現実、故郷に戻れないというつらさを胸の痛みで表現している。

5) 追憶を「心」で表現する換喩

(11) 此土地も何と無く第二の故郷のやうに思はれて心が残らぬでも無く(肉 p.41)

(11)は長くその土地に留まっていたため、離れ難いという気持ちを表現したものである。「心が残る」とは、想いがある場所に自分の心を残してくるという意味で使われる。ここでは、「心」を身体から引き離し、ある場所に置いてこられる物として捉えている。

## 1.5 興奮

興奮には戦闘への闘志、そして、くやしきや怒りからくる闘志が含まれる。4つの表現方法に分けられる。日露戦争の時期は国の為に戦うという軍国主義思想が強い時期であるため、戦いへ挑む感情の興奮が多く描かれ、用例が多くなっている。

---

39) 火や炎は現象に属するが、自然物として記述する。水や木や土などと同類であるとの考えが一般的である。

1) <興奮は方向性がある>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12)死ぬのは悲しいという念よりもこの苦痛に打ち克とうという念の方が強烈であった。(一 p.121)

(12)では苦痛に勝とうとする気持ちを表わしたもので、方向性は強弱で表わされる。気分の上昇や負けたくない気持ちは興奮に含まれる。

2) <興奮は気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興奮は気で表現され身体という<容器>を満たし圧迫し、外部に放出される<気体>である。つまり、興奮は体内で起こり、体内に満ち、その後、体外に出ていくものという認識である。

(13)英氣益(ますま)す勃々 (肉 p.59)

(14)守備ほと厭なものは無い。気既に満ち、力既に足ると雖も、進軍の機に遭遇し無ければ是非が無い。(肉 p.49)

(15)志氣は愈々張り裂けむばかりになって (肉 p.42)

(16)衆は皆云ふに云はれぬ殺氣を帯び来つて、(肉 p.41)

(13)の「勃々」は勢いよくわき起こる様子を表わす言葉である。例えば「勃々たる勇氣」などが見られ、身体に英氣や勇氣が起こる場合に用いられる。(14)は「満ちる」は体内が感情でいっぱいになっている様子である。(15)は「張り裂ける」で体内に感情が満ち、それが大きくなりすぎて今にも裂けそうな様子で志氣の強さが描かれている。(16)の「帯びる」には「身につける」「含み持つ」という意味がある。殺氣が体内で生まれ、体外に漏れ身体が興奮に包まれている状態を表わす。

2) <興奮は攻撃性がある>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興奮は攻撃性があるものであり、それは「気」で表現されている。

(17)殺氣天に満ちて鬼氣人を衝く。(此 p.185)

(18)一人の勇氣は時に敵三軍の気を奪ふことがある。(此 p.242)

(17)の「殺氣天に満ちて」は天満ちるほど強い殺氣を放っている様子である。「鬼氣」は「恐ろしくて不気味な感じ」を意味し、それが敵を衝いている。(18)の「勇氣は気を奪い」は、興奮である「勇

気」が相手の闘争心を奪っている様子を描いている。

3) <興奮は固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興奮が持つイメージと類似した物に喩えている。

(19) 将士奮躍士気更に昇り (中略) 決死の一念は鋼鉄の装甲よりも尚ほ堅である。(此 p.183)

(19)も同様に戦いへの興奮を表わした表現である。戦いに勝ちたいという気持ちを「堅い」を用いて感情の強さを表わしている。

4) <興奮は自然物(現象)>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20) 両軍士気は熱して火の如く (此 p.185)

(20)は戦いへの興奮である「志気」を「火」に喩えた直喩である。火に喩えることで熱くて強い興奮を表わしている。

5) 興奮を身体の状態で表現する換喩

身体部位は「頭」「目」、そして、体内の体液の「血」である。血液は身体部位ではないが、身体の一部として本項目に含む。

(21) 一度戦闘になると、頭の尖から足の尖まで踊り立つ (肉 p.42)

(22) 又た一人の重傷兵の如きは、氣息奄々として、其顔を上げた時にも、決心の眼は血走つて こ  
(肉 p.47)

(23) 我等が渾身の血は湧いて、前進の命令を今や遅しと待つて (肉 p.43)

(21)では「全身が踊る」という意味で戦闘での興奮を身体の状態で表現している。(22)では、目の血管が見えるほどの興奮を表わしている。(23)では「血が湧く」という血が沸騰する喩えで興奮の強さを伝えている。

6) 興奮を「心」で表現する換喩



(24)いよ—此処戰場へと達すると、心は益す跳つた。(肉 p.44)

(25)遺恨重なる露スキーめ、今に目に物見せてやると、矢竹にはやる心にも、思へば果敢なき身の素性(肉 p.88)

(26)なほ生を保てるものは、肉落ち骨痩せて、心ばかりは鋭き餓鬼の一群ぞ。(肉 p.85)

(27)此の接戦を打守つた。心は狂へど、身は又起つこと能はざるものであつた。(肉 p.102)

(24)は待ち侘びた戰場に到着した時の興奮による心臓の拍動を「心が跳る」と表現している。(25)では興奮するの意味である「心は矢竹<sup>40)</sup>」という慣用句で、戦闘への心の高ぶりを表現している。(26)の「心は鋭い餓鬼の一群」は、兵士を喩えたものである。餓鬼のように痩せているが、戦いへの興奮だけで生きているという強い志気を表わしている。その気持ちを鋭いと形容することで感情の強さを表わしている。(27)はもう立つことも叶わない兵士が、目の前の戦いに参加したいという強い気持ちを述べてる文である。心が狂ってしまうほどの興奮の強さを表わしている。

## 1.6 緊張

緊張とは未来への不安による心や身体の張りを表わす。また、これから起こることを待ち構えている心の状態を表わす。

### 1) <緊張は容器の中の液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28)海上に浮べる敵兵の救助を求める声は、刻々に衰へ行き、絹を裂く如き悲哀の叫喚は、細く長く、波に響きて、暮れ行く空に一しほの哀を添へ、張り詰めたる鉄石の心にも、坐ろに無情を感ぜられ、熊谷ならぬも棄つべきものは弓矢なりとの思さへ起つた。(此 p.222)

(28)の「張り詰める」は氷などが「一面にすきまなく張る」という意味や、緊張を表わす際に使われる言葉である。「張り詰めたる心」は緊張の感情が心の中にすきまなく張っている様子を描いている。これは心という<容器>の中に感情がいっぱいになっているという比喩表現である。そして、その容器は緊張によって鉄石のような固さになっていると表現され、感情の強さが表われている。

40) 矢竹は当て字であり、本来の文字は「弥猛」。盛んに勇み立つさまという意。(松村明(2008)『スーパー大辞林3.0』三省堂)

## 1.7 悲しみ

悲しみには仲間の死を嘆く悲しみ、敵に負けて嘆く悲しみがある。7つの表現方法に分けられる。

### 1) <悲しみは方向性がある>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29) 高粱(こうりゃん)の絶えたところに来た。忽然(こつぜん)、かれはその前に驚くべき長大なる自己の影を見た。肩の銃の影は遠い野の草の上にあった。かれは急に深い悲哀に打たれた。(一 p.116)

(29)の「深い悲哀」という言葉から悲しみには深さがあることがわかる。悲しみは下に下がり、または沈んでいく感情と捉えられていることが示されている。

### 2) <悲しみは容器の中の液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悲しみは<容器に湧き上がり・容器を満たす液体>とされる。

(30) 逝ける勇士の面影や、当時の話振などが髣髴として、予は目のあたり彼等と接してゐるやうで、悲しくも亦た壮なる感覚に胸が一杯になるのである。(肉 p.97)

(31) 軍歌を歌った時には悲壯の念が全身に充ち渡った。(一 p.117)

(32) 其語や痛切また悲壯、吾人の心胆に沁み渡り (肉 p.14)

(30)では、胸の容器が悲しみの感情で一杯になっている。(31)の「充ち渡る」は「満ちわたる」であり、満ちていっぱいになる、一面に広がるという意味である。全身が<容器>であり、全身に悲しみが水のように広がっている。(32)は悲しみが水のように心に沁みている様子を表わしている。

### 3) <悲しみは攻撃性がある>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33) 消極的悲観が恐ろしい力でその胸を襲った。(一 p.117)

(34) 予等は一方ならず悲愁の感慨に打たれた。(肉 p.95)

(35) 悲報は屢屢吾人の耳朵を衝き(此 p.195)

(36) 彼等が臨終の言葉には痛恨他の腸を剝るものがあつた。(肉 p.57)

(37) 遂に病魔の敵に負けて、千秋の怨を呑むのであるかと、悲痛頻りに胸を悩ました。(肉 p.54)

悲しみは(33)「悲観が襲う」、(34)「悲愁に打たれる」、(35)「耳朶を衝く」、(36)「腸を刮る」と、身体を攻撃して苦痛を与えるものとして表現される。特に「襲う」と共に得られる恐怖心や「腸を刮る」という痛みから、とても強い感情であると受け取れる。(37)の「悩ます」は直接襲われたり、武器で傷つけ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胸に不快な影響を与えているため、「攻撃性のある」この項目に含めた。

#### 4) <悲しみは生物>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生物>とは、感情が主体の意思とは関係なく動き回るものをいう。

(38)無限の悲愁は予の胸裡に往来し、見るものとして傷心の種 (肉 p.34)

(39)「スウオーロフ」を眺むれば、唯是火と煙とに包まれたる一個の怪物にして、最早や沈没までに間もなき状態である。……荘嚴を極め、強堅を誇りし「スウオーロフ」の成れの果かと思へば、感慨胸に逼りて禁ずる能はず、(此p.206)

(38)「往来する」は行ったり来たりと動きを表現するものであり、悲しみが<移動するもの>として捉えられ、胸の中<容器・空間>で動き回っている。(39)「逼る」は勢いよく近づくと意味であり、これも同様に悲しみが<移動するもの>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

#### 5) 悲しみを「涙」で表現する換喩

悲しみを涙や泣く行為で表現しているものである。感情による体の変化で表現した換喩に分類される。「涙」で「泣く」を表わす換喩でもある。

(40)消極的の悲観が恐ろしい力でその胸を襲った。と、歩く勇氣も何も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めどなく涙が流れた。(一 p.117)

(41)あ忽(たちま)ち落つる一雫 (此 p.207)

(42)聯隊長の目は遺憾の涙が浮かんでゐた。(肉 p.58)

(43)艦内に残れる戦友の行末を想うては、「ブイヌイ」艦上將士の目には自ら露を宿した。(此 p.206)

(44)戎衣の袖も折々は暗涙に濡るゝのである。(肉 p.8)

(45)されど此喜びあるに伴つて、又た暗涙の窈(ひそか)に襟を濡すことが無くてみられたらうか?(肉 p.15)

(40)の「涙が流れる」のみならず、(41)「落つる一雫」、(42)「涙を浮かべる」、(43)「露を宿す」と非常に表現が多様である。また、間接的に(44)袖や(45)襟が濡れるという表現を用いて泣いたあとの結果によって悲しみを表わしている。

#### 6) 悲しみを「笑い」で表現する換喩

(46) 又た一人の重傷兵の如きは、氣息奄々として、其顔を上げた時にも、決心の眼は血走つて、淋しげな笑をさへ洩らしてゐた。 (肉p.47)

(46)の「洩らす」は隙間から外にこぼすの意味で使われる。「笑いを洩らす」とは悲しみの感情が<液体>として顔からこぼれる様子を表わしている。

#### 7) 悲しみを身体部位の状態で表現する換喩

悲しみを身体の状態や痛みで表現しているものである。身体部位は「顔」「胸」「腸」「血」「心」と多様である。

(47) 戦友を歎く思の色が潜みて (肉 p.7)

(48) 非常な数の負傷者かなと痛ましき心しつ (肉 p.95)

(49) 予は軍旗に別れ、聯隊長に別れ、又た従卒に別れて、孤り淋しく野原を過ぎりつゝ、今は親しかりし戦友の墳墓の地となれる山谷を望み、情無き空の雲を仰ぎて、断腸の思に堪へ兼ねてゐたが、 (肉p.86)

(50) 此男児、国難に臨んで私愁を断ちは断つたものゝ、嘸かし血を吐くの思ひであつたらう。 (肉 p.16)

(51) 予は嘗て奉じたりし軍旗が、将棋倒のように重なり重なつて集つてゐる予等の頭上に、黒く淡く翻へつてゐるのを見たので、予は過ぎし日を想い起して、一方ならぬ感慨に胸を躍らせた。 (肉 p.99)

(47)は嘆きの色とは嘆く様子のことをいう。「潜む」という言葉を用いて少し感情を抑えている様子を描いている。感情を絵画のように「色が潜む」とし、修辭的要素の濃い比喩表現である。(48)はそのままの「痛い」という直接的な表現を使用している。(49)は「断腸」と内臓が傷ついた描写から想像される激しい痛みで、(50)は「血を吐く思い」という激しい苦しさで悲しみを表現している。(51)の「胸が

躍る」は喜びや期待している様子を描写する場合によく使われるが、ここでは目の前で次々と死んでいく仲間達を見てその仲間達と過ごした日々を思い悲しんでいる状況で用いられている。心臓の拍動が激しいことによる胸の苦しさを表現しているのであろう。

## 1.8 怒り

### 1) <怒りは方向性がある>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52) 予等が憤激の念はいよ——高まつた。 (肉 p.44)

(52)の「高まる」は強さを表わし、方向は<上>である。怒りは<上>方向へ向かっていく。

### 2) <怒りは容器の中の液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怒りは<熱い液体>である。

(53) 漁船砲撃の報一たび英国に伝るや、国民の激昂は忽ち沸騰点に達し(此 p.131)

(53)の「激昂」は高ぶった怒りである。「沸騰点」から熱湯として捉え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怒りを熱湯に喩えることで怒りの強さを表わしている。

### 3) <怒りは自然物(現象)>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怒りは<火>で表わされる。

(54) 憤慨の火の手は益す熾なるを加へ (肉 p.63)

(54)は怒りを火に喩え、怒りの勢いや強さを表わしている。

## 1.9 恐怖

恐怖とは危険や死から逃れるために起こる感情である。他の感情より外部からの刺激が強く、また、死からの逃走に必要な動きが身体内部に起こるため身体に大きく影響が出る感情である。生きる望みを失い死を強く感じる場面も恐怖に含めた。絶望という言葉が含まれた比喩文は絶望の項目で述べる。3

つの表現方法に分けられる。

1) <恐怖は攻撃性がある>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恐怖は人間の身体に悪い影響を与える感情であるため、攻撃的な感情として捉えられる。

(55)もうだめだ、万事休す、遁れるに路(みち)がない。消極的の悲観が恐ろしい力でその胸を襲った。(一 p.117)

(56)生きて還ることはおぼつかないという気がはげしく胸を衝いた。(一 p.117)

(55)と(56)は死を意識した場面である。強い恐怖には(55)の「襲う」という攻撃性の高い言葉で表現される。(56)の「衝く」も身体に攻撃を加える言葉が用いられている。

2) <恐怖は固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57)故に乗客は長官に対し、単に畏怖恐懼の念を抱くのみにして(此 p.176)

(57)は実体のある<抱く物>である。感情を抱えられる所有物として喩えている。

3) <恐怖は自然物(現象)>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58)恐怖の念が盛んに燃えた。(一 p.117)

(58)は怒りが燃える炎に喩えられており、火の持つイメージから感情の強さが感じられる。

4) 恐怖を身体の状態で表現する換喩

恐怖は身体の様子や体温低下、精神異常で表現される。身体部位は「唇」「歯」「体」である。

(59)但砲声を聞いて、唇の色失ひ、歯の根浮いて胴震ひする者(此 p.217)

(60)最後一実にこれを最後と信じた礼拝を、先祖代々の仏前に捧げた時には、全身冷水を浴びた如く(中略)戒められるやうな感じを喚び起こされた。(肉 p.15)

(59)は発砲の音を聞いた恐怖による血管の収縮を唇の色と歯や体が震える様子で表わしている。  
(60)は国の為死に行く覚悟と恐怖と緊張などが混ざった感情であるといえるが、これも同様に血管収縮による体温低下である。冷水を浴びるという言葉で瞬間的に起きる恐怖や緊張を描いている。

### 1.10 不安

不安とは想像することにより起こる未来への恐れを示す感情である。4つの表現方法に分けられる。

#### 1) <不安は攻撃性がある>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不安は恐怖と同様、人間の身体に悪い影響を与える感情である。

(61) 不安の念が凄じい力で全身を襲った。 (一 p.115)

強い不安は(61)「襲う」という攻撃性のある言葉で表現される。

#### 2) <不安は生物>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不安は攻撃性はあまりない意思を持った移動する<生物>としても描かれる。

(62) 過去の面影と現在の苦痛不安とが、分明と区画を立てて居りながら、しかもそれがすれすれに摺寄った。 (一 p.114)

(63) 満足とともに新しい不安が頭を擡げてきた。 (一 p.120)

(62)「居る」や「擦り寄る」と共起し、そこに存在し動く生き物のように描いている。(63)は「頭を擡げる」と共起し、不安が頭を持った生物として描かれている。

#### 3) <不安は固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64) 此男児、国難に臨んで私愁を断ちは断つたものゝ、嘸かし血を吐くの思ひであつたらう。 (肉 p.16)

(64)の「愁」とは憂い、悪い状態になることを心配する不安に思う気持ちである。身体とつながっている不安な気持ちを「断つ」、つまり、切り離している。

#### 4) 不安を身体の状態で表現する換喩

不安を身体の状態で表現している。身体部位は「顔」「胸」「身体」「耳」である。

(65) 顔色は心配で蒼ざめ、眼には一杯の涙を浮かべつゝ (「肉弾」 p.57)

(66) 満足とともに新しい不安が頭を擡げてきた。倦怠、疲労、絶望に近い感情が鉛のごとく重苦しく全身を圧した。(中略) 間断なしに胸が騒ぐ。(一 p.120)

(67) 此前にもかうした不安はあつたが、これほどでは無かつた。天にも地にも身の置き処が無いやうな気がする。(一 p.115)

(68) 恐ろしい動揺がまた始まつて、耳からも頭からも、種々の声が囁いで来る。(一 p.115)

(65)は心配やストレスによる血管の収縮を顔色で表わしている。(66)は不安による心拍数の増加による苦しみである。(67)の「身の置き処がない」や(68)の聞こえるはずのない声が聞こえるという精神的な異常で不安を表現している。

#### 1.11 絶望

絶望とは希望を失うことである。3つの表現方法に分けられる。

##### 1) <絶望は容器の中の液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は<身体から湧き出る液体>に喩えられる。絶望も同様である。

(69) きわめて消極的な涙もろい意気地ない絶望が漲る (一p.121)

(69)の「漲る」は、液体が勢いよくいっぱいになる様子であり、その言葉には絶望の強さが表われている。

##### 2) <絶望は固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絶望も人体に強い影響を与える感情である。固体に喩えられる場合、性質が述べられる。



(70) 倦怠、疲労、絶望に近い感情が鉛のごとく重苦しく全身を压した。 (一p.120)

(70)は絶望の性質が表われている。絶望は重く、そして圧迫し身体を苦しめるものとして表現される。

### 3) 絶望を身体の状態で表現する換喩

身体部位は「目」と「心」である。

(71)数時間に亘る力戦苦闘に、服は裂け、帽は飛んで手足は血潮に塗れ、食ひしばれる口には憤恨の情を含み、血走れる眼には希望の光絶え、唯茫然として一語を発するものもなく、互に相顧みて長歎息するばかりである。(此 p.203)

(72)乗員の大多数は、孤影瑩々たる自国艦隊の惨状と、艤容堂々、一糸乱れざる我が艦隊の雄姿とを眺め、絶望の極、心喪ひ、気阻み、各艦、旗艦に盲従して降伏の信号を掲げ、独り「イズムロード」のみは、その快速力を待みて (此 p.237)

(71)では目の光がなくなった状態で絶望を表わし、(72)では「心を失う」という表現を用いて、心がなくなるほどの衝撃的な絶望を表わしている。

## 1.12 恨み

恨みとは、不快に思ったことを我慢し続けると生まれる感情である。3つの表現方法に分けられる。

### 1) <恨みは生物>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恨みは移動する生物である。他の感情と同様、主体が感情を抑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表現する場合、意思のある生物に喩えられる。

(73) 怨恨制し難き (肉 p.105)

(73)は「制し難き」と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感情の一面を述べている。

### 2) <恨みは固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恨みは「口から出ようとすもの」と「物体」に喩えられている。

(74)恨(うら)みを呑んで退却の際、彼の兄は腰部を打たれて (此 p.222)

(75) 偕之からが敵打ち、遺恨重なる露スキーム (肉 p.88)

(74)の恨みは「呑む」と共起している。呑むとは、嘸まずに丸のみするという意味である。体内で生まれた恨みの感情という<固体>が口から出ようとするが、それに堪えて呑みこんでいる。「恨み」とは身体の中に留まっている<固体>であり、喜びや悲しみや恐怖のようにそれは胸から溢れたり、体内から漏れ出すのではなく、物として<口から出る物>で表現されている。(75)の遺恨とは忘れがたい深い恨みであり、それが重なりと表現されている。恨みとは心の中にあり続け、それが徐々に積もり溜まっていく<物体>である。

### 3) 恨みを「口」で表現する換喩

(76) 怨を呑み歯を嚙んで、哀れなる戦友の死屍を眼前に叩へ (肉 p.93)

(77) 食ひしばれる口には憤恨の情を含み (「此 p.203)

恨みは(76)歯を嚙んだり、力んだ様子(77)「食ひしばる」という口を用いた行為で表現される。

## 1.13 恥

### 1) <恥は汚れ>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78) 吾人の鮮血を以て、祖国の被(かうむ)れる傷ましき恥辱を雪がせ給へ。(此 p.170)

(78)では恥は洗って取ることができる身体の表面についた<汚れ>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

## 1.14 混合

2つ以上の正の感情が同時に表現されているものが混合である。

### 1) <感情は容器の中の液体>と捉えている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は容器を満たし、溢れるものである。

(79) 彼等は単に嬉しい楽しいの念慮にのみ満たされてゐる (肉 p.8)

(80) 悲喜交々胸に溢るゝのである (肉 p.9)

(79)は嬉しさと楽しさで正の感情の混合、(80)は悲喜で負と正の感情が混ざり合っている。〈感情は液体〉であるという認識によって(79)は「満たされる」、(80)は「溢れる」と共起している。

## 2) 感情を身体の状態で表現する換喩

(81) 無残の最期を遂げた者の如きは、皆悲憤の涙を流しつつ瞑目したのである。 (肉 p.57)

(82) 食ひしばれる口には憤恨の情を含み (此 p.203)

(81)は「涙を流す」で悲しみと怒りを表わしている。(82)は口のなかにある怒りと恨みの感情を描いている。

## 2. 比喩理解の分析と考察

### 2.1 喩辞と被喩辞

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喩辞となる概念ごとに分類したのが次の[表2-2]である。直喩と隠喩は喩辞(概念)と被喩辞(感情)、そして、その喩辞が導きだせる根拠となる比喩を示した。〈上(up)〉の概念が表れたのは、喜びと怒りである。喜びと怒りは「高まる」や「極点に達する」など上昇する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次の〈容器の中の液体〉という概念は不安と恨み以外の感情でみられる。特に、怒りは液体の中でも〈熱い液体〉である。興奮の場合は、液体より〈気体〉をイメージさせる。多くの感情は〈自身の体内で起こり湧き出る液体〉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が、恨みは喜びや悲しみといった感情とは性質の違ったものであると認識される傾向がみられる。次の〈攻撃性のあるもの〉には、悲しみと恐怖、不安、興奮(気)の感情で用いられている。悲しみなどの負の感情が起こる時、身体に何らかの不調や痛みが伴うため感情から攻撃を受けるといったイメージを作り出す。しかし、興奮の場合は感情主体に向かってではなく、相手に攻撃をする感情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それは、戦いへの興奮が多く描かれている作品の特徴が表われているからである。相手を倒そうという気持ちが強いいため、その攻撃性が

感情表現に表わ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次に、自らの意思では制御できない感情は<移動する生物>に喩えられる。悲しみ、追憶、不安、恨み、興奮(心)がみられる。そして、生物とは反対に<固体>としても感情は認識される。感情が持っているそのイメージから作られる性質によって様々な物に喩えられ理解されている。例えば、恐怖は鉛という重さで、恨みは飲み込む物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その中で、追憶、恐怖、怒り、興奮(念)には共通して自然物の<火>の概念がある。

[表2-2] 喩辞別分類表

概念メタファー	喩辞 <概念>	被喩辞 <感情>	喩辞を導き出す根拠・類似性
方向性がある	上	喜び	極点に達する
		怒り	憤激の念は高まる
	下	悲しみ	深い悲哀
		興奮	強烈だ
容器の中の 液体である (気体)	液体	追憶	流るるように漲ってきた
		緊張	張り詰めた心
		悲しみ	胸が一杯になる・全身に充ち渡る・心胆に沁み渡り
		絶望	絶望が漲る
	混合	念慮に満たされている・胸に溢る	
	熱湯	怒り	激昂は沸騰点に達す
内部から外部に漏れる気体	興奮	勃々、満ちる、張り裂けむばかりになる、殺気を帯びる	
攻撃性がある	攻撃性のあるもの	興奮	衝く・気を奪う・敵勢を圧する・敵を寒からしめる
		悲しみ	打たれる・胸を打つ・胸を襲う・耳朶を衝く・悩ます
		恐怖	襲われる・胸を衝く
		不安	全身を襲う
生物である	移動する生物	追憶	往来しつつある
		悲しみ	胸裡に往来する・胸に逼る
		不安	居ながら、摺寄る・頭を擽げる
		恨み	制し難い
	鬼	興奮(気)	鋭き餓鬼
固体である	物体	楽しさ	楽しさを分かち
		不安	私愁を絶つ
		恨み	遺恨重なる
	楽器	興奮	勇を鼓す
	抱く物	恐怖	念を抱く
	麻		思いは乱れて麻の如く
	鉛	絶望	鉛のごとく重苦しく全身を圧する
	飲食物	恨み	呑む
		混合	憤恨の情を含む
	物の性質	愛好	剛韌・粘液質に富む
興奮(念)		堅だ	
汚れ	恥	恥辱を雪ぐ	
自然物・ 現象である	火	追憶	念が燃える
		興奮(気)	志気は熱して火の如く
		怒り	憤慨の火の手は益々さかんなる
		恐怖	念が燃え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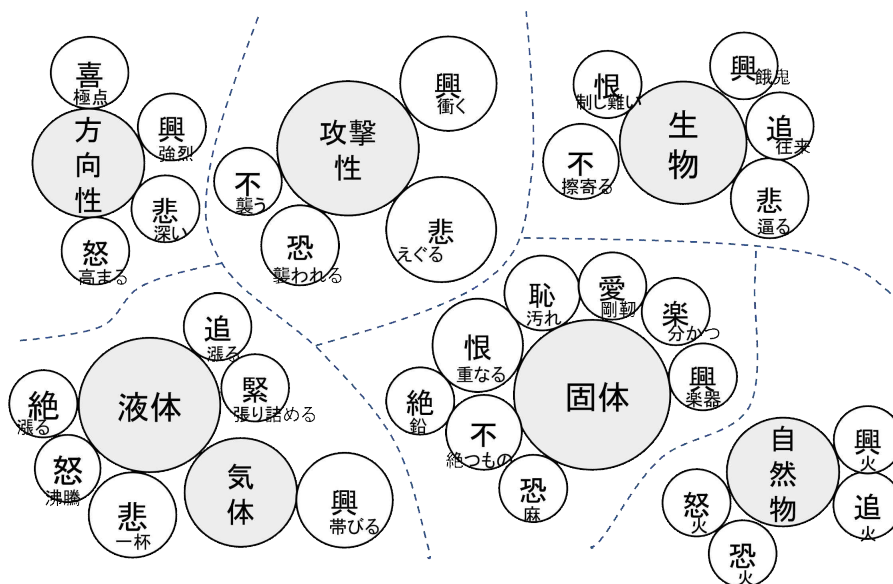
## 2.2 喩辞の使用回数

喩辞の使用回数をまとめたものが[表2-3]である。概念メタファーは大きく6つ、〈感情は方向性がある(方向性)〉、〈感情は容器の中の液・気体である(容器液体)〉、〈感情は攻撃性のあるものである(攻撃性)〉、〈感情は生物である(生物/移動生物)〉、〈感情は固体である(固体)〉、〈感情は自然物・現象である(自然物)〉である。最も多かったものは〈固体〉で、その中で物体が多くみられる。これは感情の持つイメージを物体化させたものであるため、どの感情でも用いることができ表現を豊富に作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例文の多かった悲しみの感情が〈固体〉に喩えられた用例はみられない。この時代では「悲しみは無機質な物」という認識が薄いと考えられる。次に多く使われたのが〈攻撃性〉である。特に悲しみの感情で多く用いられている。悲しみは身体内部に存在し、身体に痛みを与えるものという認識が強い。そして、〈液体〉を喩辞としたもの、つまり、感情の持つ〈液体〉の概念で表現された比喩表現である。この〈液体〉の概念は正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用いられ、様々な感情に共通する概念のため使用例が多くなるのは当然といえる。〈気体〉は興奮のみ用いられている。興奮とは精神の高揚を意味し、その精神とは思考や心を表わし物質や肉体の対の言葉である。肉体は物質的なものであり、それに対となった精神への我々のイメージは目に見えない自由に形を変える流動的なものである。また、心の動きは気力、興奮した雰囲気は熱気など「気」という言葉も多く用いられている。それ以外にも「志気」「意気」「殺気」「気を失う(気絶)」など精神の活動を意味する場合に使われている。この「気」とは「気体」を連想させる。そのため、精神の高揚を意味する興奮は気体のイメージを持って表現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表2-3] 喩辞使用回数

感情	方向性	容器液体		攻撃性	移動生物	固体				自然物 火	計
		液	気			物	食物	性質	汚れ		
喜び	2										2
愛好								2			2
楽しさ						1					1
追憶		1			1					1	3
興奮	1		5	4	1	1		1		1	16
緊張		1									3
悲しみ	1	3		8	2						14
怒り	1	1								1	3
恐怖				2		2				1	5
不安				1	2	1					4
絶望		1				1					2
恨み					1	1	4				6
悔しさ											0
恥									1		1
混合		2					1				3
計	5	9	5	15	7	7	5	3	1	4	62
		14				20					

次の [図2-1] は、前述した6つの喩辞とそれによって表現された感情（被喩辞）を星図<sup>41)</sup>に散りばめたものである<sup>42)</sup>。〈容器液体〉の項目からは〈気体〉は分離させた。



[図2-1] 喩辞と被喩辞星図

〈固体〉で表現したものが最も使用数が多く、用いられた感情も多い。一方、〈攻撃性〉の使用数は多いが、用いられた感情が少ないのが特徴である。攻撃はやはり悲しみの感情が多い。悲しみは体に痛みを伴う感情であるためである。しかし、最も用例の多かった悲しみが〈固体〉にはなく、悲しみは無機質なものには喩えられていない。全体的に見ると、感情の〈液体〉としての認識と感情と「もの」との類似性に当てた比喩が多く用いられ、〈攻撃性のあるもの〉や〈生物〉に喩えられる感情の抑制できない部分や感情が外部のものであるという認識は薄い傾向にある。

### 2.3 身体部位別表現

本対象で得られた身体部位は「顔・目・口・耳・胸・腸・血・身体・心」と9つに分類でき、それらの表現をまとめたものが[表2-4]である。「顔」は主に顔色が用いられ、特に恐怖の表現では血管の収縮による血色が失われた状態で描かれている。「目」は涙と光、状態に分類できる。特に涙の表現が豊富で、涙を雫や露と喩えたり、涙を流すを袖や襟が濡れる、潤すなどの様々な表現を用いて表わされているのが特徴的である。「口」の項目は唇と歯を用いたものがあり、恐怖は唇の色を失う

41) 林大「星図になぞられた語彙表」を参考に作成。[秋元(2002)『語彙』p.23]

42) 星の大きさは用例数を示し、大きいものは用例数が多いものである。感情の星の中には根拠となる言葉を入れた。「程度」は〈感情は程度がある〉、「液体」は〈感情は容器の中の液体〉、「攻撃性」は〈感情は攻撃性があるもの〉、「生物」は〈感情は生物である〉、「固体」は〈感情は固体である〉、「自然物」は〈感情は自然物である(現象も含む)〉である。

という体温低下の状態であるのに対し、恨みや悔しきは食いしばる行為で描かれている。「耳」は聴覚による表現で聞こえない声が聞こえるという異常で不安を表わしている。「胸」は負の感情による圧迫や痛み、拍動の表現がみられる。「腸」は慣用句であり、腸を切るほどの痛みを伴う強い感情を表わすときに用いられるものである。「血」は体の血が湧く場合は興奮、血を吐くほどの苦しみは悲しみというように感情のイメージに合った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体」では、恐怖は「冷水をあびた如く」などの体温低下に関係した表現であり、不安は「身の置き処がないよう」と身体の異常な状態、興奮は踊り立つという体の活動状態で表わされている。「心」は、心の状態と心を<物>とした表現がみられる。心の状態とは主体の状態のことである。心が擬人化され、「心が踊る」「心が狂う」などと用いられる。心を<物>としたものは、心は主体の持つ所有物という扱いである。絶望の場合はその所有物が失われると用いられている。

[表2-4] 身体部位別表現

表現方法	身体部位		感情	状態
身体部位 の状態	顔	笑い	喜び	其顔に浮ぶる嬉笑(きせう)
			悲しみ	淋しげな笑を洩らす
		色	悲しみ	嘆く思の色が潜む
			恐怖	顔色は蒼ざめる・色を失う・色を示す
			不安	動揺の色を示して・心配で蒼ざめ
	目	涙	悲しみ	涙に濡れる・涙が流れる・涙にむせぶ・落す一雫 涙をそそぐ・涙を浮かべる・露を宿す・袖が涙に濡れる・襟を潤す
			悔しさ	無念の涙・拳に血涙一滴
			混合	悲憤の涙を流し
		光	恐怖	光絶え
		状態	興奮	決心の眼は血走る
	口(唇・歯)	恐怖	唇の色失う、歯の根浮く	
		恨み	歯を噛む、食いしばる	
		悔しさ	無念の切歯をなす	
	耳—異常	不安	耳からも頭からも種々の声が囁いで来る	
	胸	喜び	胸が迫る	
		追憶	胸を痛める	
		悲しみ	胸を躍らせる・胸が込み上げてくる	
		不安	胸が騒ぐ	
	腸	悲しみ	断腸の思	
	血	興奮	渾身の血は湧く	
		悲しみ	血を吐く思ひ	
	体	体温低下	恐怖	寒むからしめる・全身冷水を浴びた如く・胴震ひする
		異常	不安	天にも地にも身の置き処が無いよう
状態		興奮	頭の尖から足の尖まで踊り立つ	
心	状態	興奮	心が踊る・心は益す跳つた・矢竹にはやる心・心は狂う	
		悲しみ	心を苦しめる・痛ましき心	
	物	追憶	心が残らぬ	
		絶望	心喪ひ	

## 2.4 身体部位別表現の使用回数

次の〔表2-5〕は身体部位の使用回数である。用例がない感情は収集用例数が少なかったことが理由であり、身体部位によって表現されない感情はないといえる。感情とは心が動くことであり心が動くときは必ず身体にも動きが起こるため、それを言語化する方法が必ずあるからである。本対象では得られなかったが、使われていないわけではない。例えば、「赤面する」<sup>43)</sup>は恥ずかしさを表わす際、しばしば使われる。

身体部位を用いた表現で最も多かったものは、目であり、涙で表現したものである。悲しみは涙を用いた表現に偏っており、特に涙を雫や露などに喩えるなど多様な表現が目立った項目である。次に多かったものは顔の表情で、口を含めると顔の部位で感情を表現しているものが半数を占める。顔には感情が表われやすく、また、外部からでも分かりやすいため多用される。また、口や歯は恨みや悔しさを表わす際にしばしば用いられる部位である。胸は感情と心拍数との関係上、よく用いられる部位であるが、用例はあまり多くない。

感情と身体の関係の特徴としてあげられるのは恐怖の感情である。6つの用例が得られ、恐怖を感じた身体の変化は主に血管の収縮から起こるものである。血管の収縮により起こる症状として、青白い肌、震え、体温の低下を感じるというものがある。

〔表2-5〕 身体部位別使用回数

部位	顔		目		口		耳	胸	腸	血	体			心	計
	色	笑	態	涙	唇	歯					態	震	温		
喜		1						1							2
楽															0
追								1						1	2
興			1							1	1			4	7
緊															0
悲	1	1		12				2	1	1				2	20
怒															0
恐	1				1	1						2	1		6
不	2						1	1			1				5
絶			1											1	2
恨						2									2
悔				2		1									3
恥															0
混				1											1
計	4	2	2	15	1	4	1	5	1	2	2	2	1	8	50
	6		17		5										

43) 夏目漱石(1906)『それから』[中村明(1980)『感情表現辞典』 p259.]



### 3. まとめ

本章では、感情が比喩表現を通してどのように表現されど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るのか日露戦争の作品を対象に考察した。対象作品から得られた比喩表現は111例で、混合を除く13種類の感情がみられた。悲しみを表わす比喩表現が最も多く、恐怖、興奮、恨みと続いた。作品の特徴として軍国主義の作品は「肉弾」と「此一戦」で、「肉弾」では喜びの表現が見られ、2作品共通して戦いへ挑む興奮の用例が多か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勝利の喜びと国のために戦える喜びが描かれていたためである。そして、反軍国主義作品の「一平卒」では恐怖の用例が最も多かったのが特徴である。

感情の認識に関しては、「喜び」「悲しみ」「恐怖」「怒り」「興奮」は<容器の中の液体>と認識されており、特に、「怒り」は<熱湯>として認識される傾向がみられた。そして、「興奮」は<液体>よりも<気体>との認識が強く、また、体内から外部に攻撃を与える攻撃性のある感情として描かれていた。これは戦いへ向かう興奮が多く描かれている作品であるため、攻撃性のある表現が好んで使われたと考えられる。負の感情である「恐怖」や「悲しみ」は<攻撃性があるもの>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この2つの感情は他の感情よりも身体に痛みや苦しみを伴うという強い影響力を持っている感情であるため、攻撃性のあるものに喩えられやすい。また、「恨み」は<口から出る物>、「恥」は<汚れ>、「怒り」は<上昇する火>という認識がみられ、我々が感情に対して持つイメージ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た。

身体部位を用いた表現では、「涙(目)」で悲しみを表わしたものが特に多く、その種類も多様であった。また、「涙(目)」を含め、「表情(顔)」や「口」など顔面部位の状態によるものが多くみられた。顔は内部の感情が表れる場所としての機能を持っているためである。恨みや悔しきは「歯」が用いられ、これらの感情と「口」との関係性を特徴として示すことができた。また、身体との関係を挙げられる感情は、恐怖の感情である。顔色が青白くなったり、体や唇が震えるという変化は、体温低下の表現であり、これは恐怖による血管の収縮によって起こる身体の変化を表わしており、恐怖とのつながりが深い表現であった。

最後に、本章での考察の特徴をまとめると次のことが挙げられる。軍国主義の作品では戦争への興奮が描かれ、反軍国主義の作品では悲しみが多く描かれていた。表現では、戦いへの興奮は攻撃性があるものに喩えられ、悲しきは涙を用いたものが特に多用されていた。そして、感情では恨みの感情は主に口から呑み込むものであったり、歯で表現されたりと、口との関係が深い感情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

### Ⅲ. 日中戦争を背景とした作品の比喩表現

日中戦争を舞台とした作品は、石川達三「生きてゐる兵隊」(1938)<sup>44)</sup>、火野葦平「麦と兵隊」(1938)<sup>45)</sup>、尾崎士郎「ある従軍部隊」(1939)<sup>46)</sup>、日比野士郎「呉淞クリーク」(1939)<sup>47)</sup>の4作品であり、これらは作者が従軍して記した記録や記憶を基に描いた作品<sup>48)</sup>である。収集できた比喩表現は全146例である。

[表3-1]は収集した比喩用例数を作品別に示したものである。収集した比喩表現の正の感情は「喜び・愛好・安堵・楽しさ」の4種類、正負の感情は「追憶・興奮・緊張・驚き」の4種類、負の感情は「悲しみ・怒り・恐れ・不安・絶望・嫌悪・後悔」の7種類、全15種類の感情である。

[表3-1] 作品別用例数 [個数(%)]

	感情	生きてゐる兵隊	麦と兵隊	ある従軍部隊	呉淞クリーク	計	
正	喜び	2 (3.9)	4 (14.2)	4 (12.5)	2 (5.7)	12 (8.2)	28 (19.1)
	愛好	0	2 (7.1)	4 (12.5)	0	6 (4.1)	
	安堵	6 (11.7)	3 (10.7)	0	0	9 (6.1)	
	楽しさ	0	0	0	1 (2.8)	1 (0.6)	
正負	追憶	1 (1.9)	3 (10.7)	0	1 (2.8)	5 (3.4)	36 (24.6)
	興奮	12 (23.5)	3 (10.7)	2 (6.2)	6 (17.1)	23 (15.7)	
	緊張	1 (1.9)	0	1 (3.1)	1 (2.8)	3 (2.0)	
	驚き	1 (1.9)	0	0	3 (8.5)	4 (2.7)	
負	悲しみ	8 (15.6)	2 (7.1)	7 (21.8)	8 (22.8)	25 (17.1)	83 (56.8)
	怒り	1 (1.9)	4 (14.2)	2 (6.2)	1 (2.8)	8 (5.4)	
	恐怖	5 (9.8)	0	1 (3.1)	2 (5.7)	8 (5.4)	
	不安	9 (17.6)	3 (10.7)	7 (21.8)	5 (14.2)	24 (16.4)	
	絶望	1 (1.9)	1 (3.5)	0	0	2 (1.3)	
	嫌悪	3 (5.8)	3 (10.7)	4 (12.5)	4 (11.4)	14 (9.5)	
	後悔	1 (1.9)	0	0	1 (2.8)	2 (1.3)	
計		51 (100)	28 (100)	32 (100)	35 (100)	146 (100)	

「生きてゐる兵隊」は12種類の感情がみられ、興奮(23.5%)が最も多く、そして、不安(17.6%)と続いた。「麦と兵隊」では10種類の感情がみられ、目立って多用されている感情はないが、その中で多いものは怒り(14.2%)である。「ある従軍部隊」では9種類の感情がみられ、不

44)戦地での様々な兵士の生活や様子、戦闘を描く。作者が1938年に南京攻略戦へ中央公論社特派員として従軍し、執筆。長編小説。戦争での罪悪行為を書いたため、当時発売禁止となった作品。  
 45)戦地で書かれた従軍記録。作者が1938年に徐州作戦に従軍し、執筆。長編小説。  
 46)政府が文学者を従軍させるために作ったペン部隊に作者が参加して書いた従軍記。7名の作家が陸軍の従軍部隊として中国に送られ、そこでの出来事や兵士について記す。  
 47)ある兵士の10日間の敵前渡河の部隊における出来事と心理を描く。作者が上海戦線で呉淞の渡河戦に参戦した時の体験が基。中編小説。  
 48) これらの作品は自由に書くことができない政府の制約の範囲内で書かれたもの。(『戦争文学全集 2』 p.423)

安(21.8%)と悲しみ(21.8%)が多い。「呉淞クリーク」では12種類の感情がみられ、悲しみ(22.8%)が最も多く、次に興奮(17.1%)、不安(14.2%)と続く。全体では、悲しみ(17.8%)、興奮(15.7%)・不安(16.4%)と多い。仲間が死ぬ悲しみや戦争に向かうという興奮、死ぬ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などである。

## 1. 感情別比喩表現の分類と分析

本節では、第2章で行った日露戦争の比喩表現の分類と分析に従い、収集した比喩の考察を行う。まず、15の感情別に分類し、その中で特徴的な比喩を中心に議論を展開する。以下、用例の作品表記は「生きてゐる兵隊」は「生」、「麦と兵隊」は「麦」、「ある従軍部隊」は「あ」、「呉淞クリーク」は「呉」とする。

### 1.1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の概念である喩辞の使用回数を [表3-2] に示す。用例数は全80例である。感情が何に喩えられているか喩辞を特定し、大きく5つの概念〈方向性〉、〈容器液体〉、〈攻撃性〉、〈生物〉、〈固体〉に分類する。〈容器液体〉は〈液体〉と〈容器に入っているもの(容器入)〉と〈気体〉と3つに分かれ、〈生物〉は〈動生物〉と〈植物〉と2つに分かれる。〈固体〉はどのようなものか特定できない物は〈物体〉、物の特徴が書かれどのようなものを特定できる場合は特定した物を記す。大きな項目では感情を容器の中の液体に喩えた〈容器液体〉が最も多く、次に〈攻撃性〉、そして〈生物〉と続いた。

[表3-2] 喩辞使用回数

感情	方向性	容器液体			攻撃性	生物		固体				計	
		液体	容器入	気体		動生物	植物	物	糸	ランプ	剃刀		飲食物
喜		4										4	
愛		1			2							3	
安	1					1			1	1		4	
楽												0	
追		2			1							3	
興		2	1	1	4	5						13	
緊										1		1	
驚					1							1	
悲		4	2		8	1		1				16	
怒		3				3		1				7	
恐	1							1			1	3	
不絶	1	2	1		6	7						17	
嫌	1	1	1		1	2	1				1	8	
後		1										1	
計	4	20	5	1	23	18	1	3	1	1	1	2	80
		26				19		8					

以下、用例を提示しながら細かな項目をみていく。細かな項目では＜攻撃性＞が最も多く正の感情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用例がみられる。喩えられた感情は悲しみが最も多い。負の感情は身体に悪影響を与えるため攻撃性のあるものに喩えられやすいが、特に悲しみの感情は用例がみられなかった怒りや恐怖などの感情よりも攻撃的側面が強く認識されている。

- (1) 部隊長の姿が消えてしまうと、私の胸には急にたまらない淋しみがひしひとおそってきた。(呉 p.255)
- (2) 聞いてゐる兵は誰も何とも言はなかつたが、しんと胸にしみ透る哀感にうたれ更に胸苦しい気さへもなつてゐた。(生 p.37)
- (3) かすかに浅賀上等兵の呻き声がつたわってくる。歯をくいしばり、肉体の苦痛と格闘しながら、こらえこらえているのであろう。その呻吟は私の良心をちくちく刺す。(呉 p.227)

(1)は「おそう」、(2)は「うたれる」、(3)は「刺す」と悲しみの感情を攻撃的な言葉と共に用いて感情主体に攻撃を与えるものとして表現している。(1)の「おそってきた」は攻められた、危害を加えられた、襲撃されたなど強い意味を持つため、悲しみも非常に強い比喩文である。(2)の「うたれる」はたたかれる、なぐられるなどの意味であり、感情によって痛みを与えられている描写である。(3)の「ちくちく刺す」は細い針のようなもので刺す様子を表わし、小さな痛みが伴う。このように言葉の選択によって強弱が表わされる。

次に、＜攻撃性があるもの＞の認識を持つ不安である。不安とはある状況や可能性によって作られる未来への恐怖であるため、主体によってそれぞれ大きさが異なる。恐怖の一種であるため、やはり攻撃性を持っている。

(4) 自分が危なくてたまらない気がするのである。(中略)彼は必死になつてこの錯乱と戦はねばならなかつた。何とも言へない苦しい不安な戦ひであつた。(生 p.21)

(5) またやるなという予感がもう私たちの胸をつらぬいていたのである。(呉 p.242)

(4)は仲間が多く死に次は自分も危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な気持ちの描写である。不安と戦う様子で描いている。(5)は「つらぬく」と尖った武器で攻撃を受けている様子である。不安と闘ったり襲われたりする場合、不安は強く長期に渡って体内に存在しているように表わされている。一方、「突かれる」などの武器による攻撃の場合は瞬間的な痛みを意味し、文脈からも何かを目撃したり知ったときに突発的に起こる不安であることがわかる。

また、本対象では正の感情も攻撃性のある感情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

(6) 一生懸命の表情に心衝たれるものがあつた。(麦 p.132)

(6)は愛好の感情である。一生懸命に何かに打ち込む人を見て好意を持つ様子である。「衝たれる」を使用し攻撃を受けている様子で表現している。正の感情を攻撃性のあるものに置き換えることで強調している場合もあるが、愛好などの愛の感情は痛みを伴う感情であることを我々は経験しているためこのような比喩が作られる。

続いて＜感情は液体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液体＞の概念は正の感情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多くの感情に共通するものである。感情は身体という容器から湧き、容器を満たし、容器から溢れ出る液体だと認識されている。これは身体の胸や体や心が＜感情の容器＞というイメージ・スキーマで捉えられていることから作られる表現である。

(7) 万歳、凱旋だぞ！それほど彼等は帰りがつたのだ。故里の山々や肉親たちにまた会へるとは思つてゐなかつただけに喜びはこみ上げて止めようもなかつた。(生 p.13)

(8) おお君か、今度こそは華々しい一戦になるかも知れんぞ、ひとつしっかり記録にとめておいてくれたまえ。これが部隊長のあたたかみの溢れた言葉であつた。私はふと胸が一杯になり、そのまま次の交通壕におどりこんだが、目前に迫りつつあること決戦を、まじろがず、この目で見、脳髓に焼き

つけてやろうと決心したのである。(呉 p.244)

(7)の「込みあげる」は感情が急に沸き上がっていっぱいになる様子を意味する。これは喜びが<液体>と捉えられているため使われる表現である。喜びの感情が湧いてくるのを止められない非常に喜ばしい様子を表わしている。(8)では、暖かい言葉をかけてもらった主人公のうれしい気持ちである。「胸が一杯になる」とは、嬉しさによる心臓の拍動の増加を隠喩で表わしたものである。身体部位の「胸」は感情が入った<容器>と我々は認識しているため、拍動による胸の苦しさを「容器がいっぱい」になった様子で喩えている。感情を<容器に入っているもの>として認識している用例は多い。次もその1つである。

(9) 西沢大佐は部下を愛する親のやうな感情をもつと同時に、敵を愛することを知らない軍人ではなかつた。彼は幾千の捕虜をみなごろしにするだけの決断をもつてゐたが、それと共にある一点のかなしい心の空虚をも感じてゐた。(生 p.29)

(9)は悲しみの感情を表わしている。「心の空虚」とは、心が感情の<容器>で、それが空の状態を指す。心の<容器>は悲しみの感情で一杯になることで悲しみを表わす用例もあるが、空になった状態も悲しみを意味する。「心に穴があく」なども類似表現であり、元々あったものがなくなったときに感じる寂しさや、むなしさを表わす場合に用いられる。

次に、用例は1つだけであるが、<気体>と喩えられている興奮の感情に言及する。興奮は気体としても認識されている<sup>49)</sup>。<液体>は湧いたり、溜ったりするが、<気体>は体にまとったり、外部に放出されるイメージを持つ。

(10) 塹壕(ざんごう：攻撃をさけるための堀)のなかはざわめき立った。わっしょいわっしょいという声  
が次第にはっきりと聞き分けられる。舟が来たんだ、手を貸してやれ——叩きつけるような声が壕  
に満ちる。みんな殺気立った。(呉 246)

(10)の「殺気立つ」は殺気が顔や態度に表われることである。「殺気」とは人を殺そうとする気配であり、文字通り「気」が使われているため<液体>より<気体>が体内から放出されている様子に近い。

次は<感情は動生物である>の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感情が意思を持った生き物に喩えられ

49)伊藤(2019)の日露戦争の作品でも興奮は<液体>より<気体>をイメージさせる結果が得られている。

たもので、自分で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いう感情の一側面から作られる比喻である。不安の用例が多い。

- (11) 五台の戦車は麦畑の中を抜けもと来た森の方へ見えなくなつてしまつた。たちまち皆の上に名状し難い心細さが蘇つた。(麦 p.132)
- (12) 老婦は彼に向つて、何か取引をはじめようとしているらしく、むつつりと怒つたような顔をして何かしゃべっている。冷たく陰惨なものの影が作兵衛の心に這いよってくるやうなうす気味わるい不安がどつとこみあげてきた。(あ p.193)
- (13) だが連日の行軍と、過労と、不眠と、不安とは、悪魔のように私たちの神経を蝕みはじめた。(呉 p.237)

(11)の「心細さが蘇る」の「心細い」とは「頼る物がなく不安だ」という意味である。その不安を死んだものが生き返るといふ気味の悪い意味の「蘇る」と共起させることによって不快な不安の気持ちを表現している。(12)では直喩を用いて不安を表わしている。「冷たく陰惨なものの影」は「冷たく痛ましいもの」という意味から連想できる死を意味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それを「這いよってくるやう」と共起させ生物のように描写している。そして「うす気味わるい」と不安を形容し「死が近づいてきていることに対する嫌な不安」を表わしている。(13)は不安による身体の不調を、人格のある「悪魔」から神経を蝕まれる様子で表わしている。(12)(13)から、不安とは我々にとって不気味なもの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次に不安以外の感情である。

- (14) とりも直さずそれは無反省な惨虐性の眼覚めであつた。彼はもはやどのやうなさんたんたる殺戮にも参加し得る性格を育てはじめたのである。(生 p.34)
- (15) 貴重な生命がこんなにも無造作に傷つけられるといふことに対して劇しい憤怒の感情に捕はれた。(麦 p.133)

(14)は興奮に分類される相手を殺したい感情である。興奮が起こる様子を「残虐性の目覚め」と喩え、攻撃性のある生物を連想させる表現を用いている。(15)は怒りの感情である。怒りは激しく抑え難い感情であるため、意思のある<生物>としても描かれやすい。「捕らわれる」を用いて怒りにつかまっている様子で抑えられない怒りの感情を表わしている。

最後に、<生物>の項目の<植物>と<個体>の項目の<飲食物>に関して述べる。

(16) 支那人を軽蔑する気持が消し去り難く頑強な深い根を彼等の心の底にのこしてゐた。(生 p.44)

(16)では軽蔑の感情(嫌悪)が植物である木に喩えられている。害のない木を根をはった木と喩えることで、取り除き難い不快さが表現されている。

(17) 私もまた最も抽象的な純粹な形で恐怖というものを全身で味わいながら、それでも強情に煙草をふかしていた。(呉 p.241)

(18) 眼前に仇敵として殺戮し合つて居る敵の兵隊が、どうも我々とよく似て居て、隣人のやうな感がある、といふことは、一寸厭な気持である。それは勿論充分憎むべき理由があると思ひながら、この困つたやうな厭な気持を私は常に味わつて来たのである。(麦 p.119)

(17)は「味わう」と共起し、恐怖は口の中に入れるものとされている。これは恐怖を受け入れようとする心を表わしている。(18)では厭な気持ち(嫌悪)を味わうことのできる食べ物で表わしている。「味わって来た」はずっとその感情を感じて来たという意味である。どのような感情が植物や食べ物に喩えられる傾向があるのか、それを明らかにするには例文収集がさらに必要である。

## 1.2 喩辞別分類

上記で述べた用例を含めた全ての用例を表現別にまとめたものが次の[表3-2]である。左から概念メタファー、喩辞(概念)と被喩辞(感情)、喩辞を導き出すための根拠を示す。

<方向性>の項目は、方向性のメタファーという<上(up)下(down)>の関係がある喩をいう。「軽さ」は「軽いと上に上がる(up)」、「暗さ」は「気分が下がる(down)」、「大きさ」は「数字が上がる(up)」、「濃さ」は「濃度が上がる(up)」と言い換えができるため、方向性のメタファーとする。ここでは実体の無い感情の姿や性質が表現されている。<容器の中の液体>の項目では、多くの感情が液体と共起する言葉「湧く・溢れる・混ぜる・しみる」などと結び付いている。また、液体とは断定できないが、「鬱積」など容器の中を連想するもの、「空虚」など容器の空を連想するものも容器を満たすものとして同項目に含める。大部分の感情は液体の概念を有するが、<容器の中に積まれる>、<容器が詰まる>、<容器を空にする>を用いる感情は限られたものである可能性がある。「喜びが積まれる」や「喜びが容器を空にする」など、連想し難い感情もあるからである。これ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さらに多くの例文を収集する必要がある。<攻撃性がある>の項目では、「衝つ・突く・つらぬく」など、先のと



がったもので攻撃するものが多い。用例の多い悲しみでは「衝つ」を始めとして、「しめつける・刺す・搔きむしる」などが用いられており、用例数と比例して使用語も増えている。「襲われる」と共起している感情は本稿では不安のみであったが、日露では恐怖の感情にも使われていたため、負の感情、特に身体に影響が大きく出る感情には使われる表現であるといえる。〈攻撃性〉とは、身体になんらかの痛みや苦しみを伴う感情で使われるものだが、正の感情である愛好でもみられた。愛とはしばしば痛みや苦しさを伴う感情でもある。〈生物〉の項目は、正の感情では見られず、負の感情で主に使用されていた。「往来」のみならず、「目覚める、捕らわれる、這いよる、ささやく」など多様な語とともに感情が擬人化、または動生物に喩えられていた。これは自分で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いう感情の一側面が表現された結果である。〈固体〉の項目では、安堵と緊張の場合、安堵はくゆるんだ糸〉、緊張は剃刀のように〈鋭い〉など、感情のイメージから導きだされた表現に喩えられているのが特徴的である。恐怖や嫌悪は味のある食べ物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のは興味深いのが、用例が少ないためさらに例文の収集が必要である。

感情別で特徴が挙げられるものは、〈攻撃性があるもの〉に喩えられた悲しみと、〈移動生物〉に喩えられた不安である。負の感情は身体に悪影響を与えるため、〈攻撃性のあるもの〉に喩えられやすいと考えられるが、怒りや恐怖などの感情より、悲しみの感情が特に攻撃性の側面が強く認識されている。また、不安は「蘇る・蝕む・這いよってくる」などと共起しており、自分の中にある不気味なく移動生物〉と認識さ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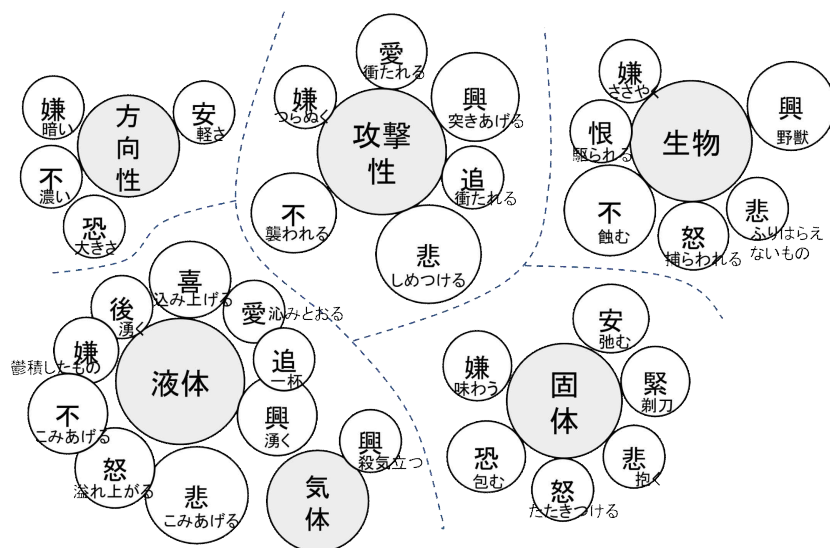
[表3-3] 喩辞別分類表 (その1)

概念メタファー	喩辞	被喩辞	喩辞を導き出す根拠
方向性がある	軽さ	安堵	心の軽さを感じ
	暗さ	嫌悪	暗い失望を感じ
	大きさ	恐怖	桁のはづれたもの
	濃さ	不安	濃くなって来た
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	湧きあがる液体	喜び	込みあげて来る、こみ上げて止めようもなかった
		興奮	湧き上つて来た、胸に涙を湧かせ
		悲しみ	こみあげてくる気持ち
		怒り	こみ上げて来た、湧き上がつて来る、溢れ上がつて来る
		不安	こみあげてきた
		後悔	胸のなかに湧いてくる
	満たす液体	喜び	胸が一杯になり
		追憶	胸いっぱい、胸がいっぱい
		悲しみ	感情がいっぱい、感情で一杯
	溢れる液体	怒り	溢れ上つて来る
	抑えられない液体	嫌悪	おさえかねる気持ち

[表3-3] 喩辞別分類表 (その2)

	混ぜられる液体	不安	掻き乱される
	しみる液体	喜び	心にしみて
		愛好	沁みとおる
		悲しみ	胸にしみ透る
容器にあるものである	たまるもの	興奮	鬱積した欲情
		嫌悪	心の底には鬱結したものがある
	つまるもの 容器が空	不安	胸につかえていた
気体である	外部にもれる気体	悲しみ	心の空虚、空虚な感じ
攻撃性がある	攻撃性のあるもの	興奮	殺気立った
		愛好	衝たれる
		追憶	衝たれ
		興奮	狂暴な欲情、狂暴な感情、凶暴な胸、突き上げてくる
		驚き	突かれた
		悲しみ	うたれ、衝たれる、おそってきた、しめつける、しめつけられる、刺す、衝撃を与えた掻きむしる
		不安	つかれる、襲われる、襲われて、襲ってくる、つらぬいて、戦う
嫌悪	つらぬいた		
生物である	移動生物	興奮	野獣の衝動、残虐性の眼覚め、蘇つて来る、はめを外した、追い立てられる
		悲しみ	ふりはらうことができない
		怒り	捕はれた、去らなかった、来た
		不安	落ちつかない、焦立たしい、静まる、蘇る這いよつてくる、蝕む、追い立てられる、かすめる
		恨み	駈られる
		嫌悪	ささやく
	木	嫌悪	深い根を残す
固体である	物	悲しみ	抱く
		怒り	敲きつける
		恐怖	包む
	糸	安堵	弛む
	ランプ	安堵	明るさを感じはじめた
	剃刀	緊張	剃刀のように鋭く研ぎ澄まされる
	食べ物	恐怖	味わう
嫌悪		味わつて来た	

次の [図3-1] は、前述した5つの喩辞とそれによって表現された感情（被喩辞）を星図に散りばめたものである。＜液体＞の概念をもつものが最も使用数が多く、用いられた感情の種類も多い。感情は悲しみが大きい。少ない概念は＜固体＞であり、＜自然物（現象）＞はみられない。感情を物や自然物に喩えた表現があまり用いられていないことが1つの特徴である。感情と物とが持つ類似性に目を向けた表現があまり使わ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全体で見ると、＜感情は液体である＞という概念が多いのは、感情は体内で生じる流動的なものであるという認識が強い傾向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感情では＜悲しみは攻撃性がある＞、＜不安は生物である＞という認識が強い傾向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図3-1] 喩辞と被喩辞星図

### 1.3 身体部位と感情

次は身体部位を用いた換喩表現である。部位別の使用回数を示したものが [表3-4] である。用例数は66例、身体部位は12部位に分類する。まず顔面部位は、顔、目、鼻、口であり、首下は胸、腹、背、体（全体）である。それに身体内部の神経と血、実際に存在はしないが体の一部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心と気を追加する。気は心と同義語で使われる。

[表3-4] 身体部位別使用回数

感情	身体部位												計
	顔	目	鼻	口	胸	腹	背	神経	血	体	心	気	
喜	3	1	1		2						1		7
愛		2									1		3
安		1			2						2		5
楽	1												1
追		1			1								2
興	1	1			4	1			1	1	1		10
緊	1									1			2
驚				1							2		3
悲	4	3			1						1		10
怒										1	2		3
恐		1					1			1			3
不								1		4		2	7
絶	2												2
恨													0
嫌	3			1				1			2		7
後		1											1
計	15	11	1	2	10	1	1	2	1	8	12	2	66

身体部位では、顔での表現が15例と最も多い。感情は体内で生じ、外部から見える「顔」に浮かび上がるものとして描写される。用例が3つ得られた喜びは笑いで表現されている。正の感情の喜びと楽しさは顔を自然と笑顔にし、相手に笑顔で自身の感情を伝える。しかし一方で、不快な感情も笑いで表現される。

(19) 「お前から手紙を出してやれよ、今までひとりで暮しているところをみるとどうもおれの子供らしいな」「そんな気がする？」組子の顔にさえ不思議なほど屈託のない微笑がうかんでいる。(あ p.168)

(20) 突然一発、かんと私の鉄兜を撃った。焦げ臭い匂いがつうんと鼻を抜ける。かすり弾丸だったのだろう。苦い笑いが私の唇にのぼってくる。(呉 p.251)

(19)は体内で生じた快い感情を笑顔を用いて表現している。「微笑がうかぶ」とは笑った表情を指す比喩である。顔という表面に良い気分が浮かび上がった様子で表わしている。(20)は弾丸が兜をかすったことに対する感情であり、不快な感情として嫌悪に分類する。この嫌悪の感情はしばしば笑いで表現される。笑顔以外では、顔の表情を意味する「色」によっても表わされる。

(21) 杉山中尉はまだ紅顔の美青年である。言葉が言葉を追いかけるように、彼の顔は見る見るうちに新しい興奮に彩られてきた。(あ p.179)

(22) 背の低い中尉は軍刀を大地の上にぐざりと突き立てたまま、ひと言しゃべっては感慨ぶかそうに表情をくもらせている。(あ p.178)

(21)は興奮による体温上昇を顔色で表わしている。「彩る」という言葉から赤く染まった顔がイメージできる。負の感情の絶望では青くなった顔で表わされる。(22)は空模様を表わす「くもる」を用いて表情または顔色の悪さで表わしている。

顔に続いて使用が多い部位は「心」である。心も内臓の一部のように熱を持ったり冷えたり、痛みを感じたりする。また、心を物体として捉える表現、自分の気持ちの置き換えで使われる表現もある。

(23) 敵を前にして瞳若しない面魂よりも、むしろ不精無精に次から次へと変ってゆく環境に妥協しないではいられない卑屈な根性の方へ心を引かれてゆくことに腹が立ってきたのである。(あ p.198)

(24) のん気どころか、私の心は重く沈んでいた。そしてその沈んだ心の隅で、俺はもう一日生きのびるころになったんだという、安堵に似た、やるせないささやきがあった。(呉 p.239)

(23)は相手に惹かれる様子を心を用いて表わしている。好むという感情を外部からの<引力>で表わしたもので、心を引力によって引っ張られていく<物>として捉えている。(24)は敵前渡河するために待機しているが毎回直前で中止になり、次の日の渡河を待つ主人公の気持ちである。嫌な気持ち(嫌悪)を「心が沈む」と表現している<方向性のメタファー>である。心は気持ちであり、嫌な気持ちが下に向かっている。また、「心」は「気持ち」と同義語で「心もち」とも使われる。

(25) 突然、体をゆすぶられた。引き揚げるんだぜ、と怒ったような声で言うのは飯田第一隊長である。昨夜と言い、また今夜と言い、私はまるで狐につままれたような心もちで、いそいで彼のあとについて行くと、彼は笑いながら、あぶなくおいてけぼりのところだった、ひよいとのぞいたら誰かが寝てるんだものね、のん気だな、と言うのである。(呉 p.239)

(26) 私は全くおもいがけない本当の渦巻きにでもつきあたった心もちになり、しばらくは茫然と息をのんでいた。(呉 p.243)

(25)は「狐につままれる」という慣用句が用いられている。「意外ななりゆきに訳が分からなくなり、茫然とする」<sup>50)</sup>という意味であり、突然のことで理解が追い付かない様子を描いている。(26)も同様に、予想もしていなかったことに突き当たり混乱している様子である。

次に使用が多い部位は「目」である。「目」は目の様子「色」や「光」を描いたもの以外に泣く行為(涙)も含まれている。また、目を<容器>や<レンズ>と捉えた構造上の類似性から得られる比喻も作られる。

(27) 作兵衛は曇りのない感謝をこめた眼で自分の方を見ている顔の列(病院の負傷兵)にふれると、急に胸が締めつけられるようになって、口の中でぼそぼそとしゃべったまま黙って頭を下げた。(あ p.182)

(28) 突然日本のことが、日本のあらゆることがこの上もなく懐かしくなり、矢も盾もたまらないほど帰りがたくなってきた。彼は毛布に顔を隠したまゝ、咽びあげて泣いた。(生 p.82)

(29) 「おい、クーニャ」と一人の兵が呼びかけてにこにこ笑った。顔色は真剣に緊張して恐怖を

50) 松村明(2008)「スーパー大辞林 3.0」三省堂

表はした眼が黒く冴えてゐた。(生 p.22)

(27)は愛好の感情である。「感謝をこめる」で目を物を入れる<容器>として捉え、「曇りのない」では目を<レンズ>として捉えている。(28)は故郷を想う追憶の感情の描写で故郷に帰りたい気持ちを泣く行為で表わしている。(29)を恐怖の感情を黒い色で表わしたものである。

次に使用が多い部位は「胸」である。感情主体が心に動きを感じる時、心拍数に影響が表われるためであり、胸はあらゆる感情を表わすときに使われることは明らかになっている<sup>51)</sup>。

(30) 初めて大陸の土を踏んだとき、ふだん内地では見すごしていた名も知らぬ雑草が、足許一面にみずみずしく生い茂っているのを見て、何とはなしにぐっと胸に迫るものがあった。あるときは敵の目をしのいで、真夜中の軍工路を、背囊の重みに歯をくいしばりながら行軍して行ったとき、ふいに黒々とした楊柳の梢から、りいりいりい——と震いつくような声で鳴きだした青松虫の声を聞いた。それらはみな、単になつかしみという感情を超えて、東洋という一つの血縁に触れた感じである。  
(呉 p.224)

(30)は祖国で生えていた雑草が戦場でも生えていることを発見した時の追憶の気持ちである。「胸に迫る」は心臓の拍動による圧迫感を表現したもので、追憶の感情による拍動の変化が描かれている。

#### 1.4 身体の一部別・状態別分類

身体の状態を用いた全表現を身体部位別、状態別に示したものが次の[表3-5]である。身体の状態は感情の持つイメージを表現しているものも多い。「体温低下」は震えも含むと恐怖でのみ使用され、恐怖によって身体が動かなくなることを体が凍るイメージと重ねている。「痛み」は負の感情で使用され、体温上昇は主に体が温まる感情に使用されている。感情の特徴としては、興奮は体温上昇、緊張は固まり体が動かなくなる様子で表現される。悲しみは「笑い・泣く・表情」と顔で多く表現されている。不安は身体異常の表現が多い。ここでの異常とは、不安に陥っている様子を想像により作り出したもの、例えば「迷路に落ちる」「置き去りにされる」などと描写されたものが含まれている。このように、不安は抑制のきかない何か別の生物であり、言い知れない不気味なものであると認識されている。

51) 楠見孝・米田英嗣(2007)「感情と言語」京都大学学術出版会 p.64

[表3-5] 身体部位別表現

表現 (用例数)	身体部位	感情	例文		
身体 の 状態	顔	笑	喜び	どっと笑いだした、微笑がうかんでいる、微笑をうかべた	
			楽しみ	子供のように笑いだした	
			悲しみ	淋しく笑つて、眼に寂しそうな微笑をうかべ	
		色	嫌悪	苦しそうな微笑をうかべた、苦笑いをうかべ、苦笑いが私の唇にのぼってくる	
			興奮	興奮に彩られる	
			緊張	顔色は緊張して	
			悲しみ	表情をくもらせている	
			恐怖	蒼ざめた顔	
			表情	悲しみ	表情の上に痛々しくうかんでいる
	目	泣く/涙	絶望	身も世もあらぬやうな表情	
			喜び	涙でぶっさけそうな気もち	
			安堵	涙が流れた	
			追憶	咽びあげて泣いた	
		色・輝く	悲しみ	泣いていた、眼頭が熱くなつた、熱い涙がとめどなく流れて来た	
			後悔	涙が湧いて来る	
			愛好	曇りのない感謝をこめた眼で、眼は親しさと感謝の思いをこめて輝きはじめる	
			興奮	目は乾いてぎらぎら光った	
			恐怖	眼が黒く冴えていた	
	鼻	泣く	喜び	鼻がつうんとして来た	
	胸	口	嫌悪	口の粘くなるやうな不快さ	
			驚き	茫然と息をのんでいた	
			熱	安堵	胸が熱くなつて来て
		圧迫	興奮	胸を熱くして、熱いものが胸に、胸が熱くなってくる	
			喜び	胸が迫る、胸がこみあげる	
			安堵	胸が迫つて来て	
	痛み	追憶	ぐっと胸に迫るものがあった		
	腹	熱	悲しみ	胸が痛かつた	
	背	熱	興奮	腹の底が熱くなつて来るやうな衝動	
		震え	恐怖	戦慄が背筋を走る	
	神経	異常	不安	神経が統制を失つてばらばらに崩れて行く	
		痛み	嫌悪	神経は八つ裂きの苦しみに喘いでいた	
	血	熱	興奮	熱い血が湧く	
	身体	熱	興奮	身体中が熱くなるやうな	
		固まる	緊張	身内のひきしまるのを覚えた	
		痛み	怒り	癩にさわる	
		震え	恐怖	戦慄を与える	
		異常	不安	陶酔にひたる、力が抜け去ってゆくよう、迷路に落ち、置きざりにされるよう	
	心	体温上昇	喜び	心暖まる	
		体温低下	恐怖	心胆を寒からしめる、冷たく心を打つ	
		移動	痛み	悲しみ	痛々しい
			愛好	心を引きかたてゆく	
			興奮	はめを外す	
拡張		嫌悪	心は重く沈む、沈んだ心		
		安堵	心のひろがりを感じ		
異常	驚き	狐につままれたやうな心もち、渦巻きにでもつきあたたった心もち			
気	異常	不安	気を揉む、気が狂う		

## 2. まとめ

本章では日中戦争作品の比喩表現の考察を行った。対象作品はすべて戦争の記録をするために派遣された作家によって書かれたものであり、自由に書くことのできない制約の範囲内で書かれた内容になっている。対象作品から得られた比喩表現は146例で、16種類の感情がみられた。最も多かった感情は悲しみで、次に不安、興奮と続いた。悲しみは寂しさや哀れさが主なものであった。不安は戦うことに対する不安であるが、日露の作品と比べると不安の感情が多く描かれていた。興奮は作戦前の気持ちや誰かを殺したいという気持ちの高ぶりが主であった。

感情がど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るのかを考察した結果、最も多かったものは「感情は液体である」という認識であった。そして、その感情という「液体」の容器となるものは、胸や身体全体であり、感情が表出する場所である顔はその「液体」が現われる水面であった。次に多くみられたものは「感情は攻撃性のあるもの」という認識であった。特に悲しみや不安を表わす場合に多く使用されており、感情が身体に与える影響が大きいほど攻撃的なものに喩えられる傾向がみられた。次は「感情は生物である」という認識であった。抑制できない感情の特徴を捉えた表現方法であり、不安や興奮の感情に多く使用されていた。

身体部位を用いた表現からは、どの部位を用いて、また、どのような状態を用いて感情を表現しているのかを考察した。身体部位は心や気を含め12箇所が使用されており、部位別では、顔が最も多く、次に心、目、胸と続いた。顔には笑う行為、目には泣く行為が含まれているため、使用数は多くなっている。胸は心臓の拍動に影響がある場合に用いられる。感情の多くは胸の拍動に影響を与えるため使用数は多い。状態別では11種類の状態に分類でき、その中で「笑い・温度上昇・身体異常」で表現されたものが最も多かった。次に多かったものは、「泣く・(顔と目の)色」で表現されたものであった。特徴的なものとして、体温上昇は興奮、体温低下は恐怖、身体異常は不安を表わす場合に多く使用される傾向がみられた。

最後に、特徴をまとめると次のことが挙げられる。本対象の作品は政府の派遣したペン部隊によって書かれた作品であるため、制約の範囲内で書かれている。その影響のためか、悲しみの感情では、仲間の死への嘆きではなく、寂しさや哀れに思う気持ちなどの感情が多く見られた。正の感情が18%と多く描かれているのも特徴といえよう。主に兵士同士の思いやる気持ちに喜びを覚える場面が多く、戦争を美化した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しかし、「生きてゐる兵隊」は、相手を殺したいという残虐性のある興奮が多く描かれており、そのような内容が当時発売禁止となった理由であると考えられる。表現の特徴としては、不安の感情が気味の悪い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たことである。特に生物で表現したものが目



立ち、得たいの知れない感情として描かれている。また、不安は身体の異常で表現されたもの多かったことも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

#### IV. 太平洋戦争を背景とした作品の比喩表現

本章では太平洋戦争の作品で用いられた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対象に考察する。対象作品は、井伏鱒二「花の町」(1943)<sup>52)</sup>、丹羽文雄「海戦」(1942)<sup>53)</sup>、高見順「ノーカナのこと」(1943)<sup>54)</sup>、吉田満「戦艦大和の最期」(1952)<sup>55)</sup>の4作品である<sup>56)</sup>。これら4作品は作者が戦地で報道班員<sup>57)</sup>として記した記録や記憶を基に国民の気持ちの昂揚を目的に書かれたものである。収集できた比喩表現は全125例である。

[表4-1]は収集した比喩用例数を作品別に示したものである。感情は全16種類である。

[表4-1]作品別用例数 [個数(%)]

	感情	花の町	海戦	ノーカナのこと	戦艦大和の最期	計	
正	喜び	2 (50.0)	7 (10.9)	0	6 (13.3)	15 (12.0)	22 (17.6)
	愛好	0	3 (4.6)	0	0	3 (2.4)	
	安堵	0	1 (1.5)	0	0	1 (0.8)	
	楽しさ	0	1 (1.5)	0	0	1 (0.8)	
	平静	0	2 (3.1)	0	0	2 (1.6)	
正負	追憶	0	2 (3.1)	0	1 (2.2)	3 (2.4)	20 (16.0)
	興奮	0	9 (14.0)	0	4 (8.8)	13 (10.4)	
	驚き	1 (25.0)	3 (4.6)	0	0	4 (3.2)	
負	悲しみ	0	18 (28.1)	1 (8.3)	8 (17.7)	28 (22.4)	83 (66.4)
	怒り	0	0	2 (16.6)	8 (17.7)	10 (8.0)	
	恐怖	0	6 (9.3)	0	5 (11.1)	11 (8.8)	
	不安	0	7 (10.9)	0	4 (8.8)	11 (8.8)	
	絶望	0	0	0	1 (2.2)	1 (0.8)	
	嫌悪	1 (25.0)	4 (6.2)	8 (66.6)	4 (8.8)	17 (13.6)	
	悔しさ	0	1 (1.5)	0	4 (8.8)	5 (4.0)	
	後悔	0	0	1 (8.3)	0	1 (0.8)	
計	4 (100)	64 (100)	12 (100)	45 (100)	125 (100)		

52) 「花の町」は戦時下、日本の占領地であるシンガポールの人々の様子を宣伝班員の視点から描いた中編作品。主人公の思考や感情の描写は多いが、比喩表現は少ない。

53) 「海戦」は兵士たちの戦艦での生活や戦闘の様子を主人公報道班員の視点で描いた長編作品。海軍報道班員として戦艦に乗り込んだ際の実戦を基に書かれたもの。

54) 「ノーカナのこと」はビルマにある徴用員用宿舎で働く使用人ノーカナの裏切りによる主人公の失望を描いた短編。戦時下での日本人と占領地での人々の関係が描かれる。

55) 「戦艦大和」は1945年4月からの戦艦大和上での出来事を記録した戦記。戦後、占領軍の検問にかかり、1952年に出版されたため、戦後作品を収録した3巻に掲載されている。

56) これらの作品は自由に書くことができない制約の範囲内で書かれたもの。(『戦争文学全集2』p.423)

57) 政府が国民に戦争を伝えようと徴用し編成したペン記者やカメラ記者。

収集した比喩表現の正の感情は「喜び・愛好・安堵・楽しさ・平静」の5種類、正負の感情は「追憶・興奮・驚き」の3種類、負の感情は「悲しみ・怒り・恐怖・不安・絶望・嫌悪・悔しさ・後悔」の8種類である。作品別では「花の町」は3種類の感情と例文が4例のみであった。「海戦」は14種類の感情が見られ、悲しみ(28.1%)が最も多かった。「ノーカナのこと」は4種類の負の感情のみで、嫌悪(66.6%)が最も多かった。「戦艦大和の最期」は、9種類の感情が見られ、悲しみと怒り(17.7%)が最も多く、次に喜び(13.3%)と続く。全体では、悲しみ(22.4%)の使用が抜き出ており、次に、嫌悪(13.6%)、そして喜び(12.0%)と続く。

## 1. 感情別比喩表現の分析と考察

本節では、得られた比喩表現を16の感情別に分類し、用例を提示し考察を行う。以下、用例の作品表記は「花の町」は「花」、「海戦」は「海」、「ノーカナのこと」は「ノ」、「戦艦大和の最期」は「戦」とする。

### 1.1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の概念である喩辞の使用回数をまとめたものが[表4-2]である。用例数は全70例である。大きな項目では、感情を容器の中の液体に喩えた<容器液体>と意思のある生物に喩えた<生物>の二つの概念メタファーが最も多い。

[表4-2] 喩辞使用回数

感情	方向性	容器液体		攻撃性	生物	固体						自然物・現象					計
		液体	容器入			物	飲食物	鋭利な	荷物	爆弾	澱	火	水	土	音	色	
喜		3			1	2	1								1	2	10
愛					1									1			2
安					1												1
楽																	0
静			1										1				2
追		1															1
興		2		1	1	2	2					1					9
驚			1														1
悲		4	2	6											3		15
怒		1					1					1					3
恐				3	4			1									8
不					6												6
絶					1												1
嫌	1	1		2	1	1			1	1	1						9
悔												1					1
後				1													1
計	1	12	4	13	16	5	4	1	1	1	1	3	1	1	4	2	70
		16				13						11					

以下、用例を提示しながら細かな項目をみていく。細かな項目では感情を生物に喩えた＜感情は生物である（生物）＞が最も多い。コントロール不可能という感情の特徴を捉えた表現である。この概念は正の感情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みられる。多く用いられている感情は不安と恐怖である。不安と恐怖は似た感情であるが、不安は未知なるものへの想像によって起こる恐怖を表わし、恐怖は死を目前にしたときに生じる死への恐怖を主にいう。

- (1) 昼間の落ち着きも現在の恐怖も、私の心のなかで別々に存在した。覚悟が不安をもみ潰しはしないのだ。不安が覚悟を追いおとししないのである。覚悟と不安が互に一種の協調を保っているように存在した。（海 p.342）
- (2) 魚雷がとびこんでくるという偶然は、十分にある。私の魂はいいようのない不安に憑かれた。（海 p.341）

(1)の「覚悟が不安をもみ潰す」、「不安が覚悟を追い落とす」は、心の中で感情が争っている様子を描いている。また、不安を「存在する」と共起させ、体内に居るものとして表現している。感情はもともと体内から生まれ、体内に存在するものだと我々は認識している。しかし、(2)のように「不安に憑かれる」と外部にある不安が自分に取り憑くという、体外のものとして捉えた表現

もある。

(3) 恐怖はとおくに見えていて、私のそばへは寄つて来なかつた。(海 p.380)

(4) すぐ次の弾がとんできた。死をもたらず唸り声も聞こえるようであつた。恐怖の心理はあらゆる感情や思考をおしのけて、全身をつつんでしまうものであるが、包まれるに足る生き生きとしたものがすでに私にはなくなつていた。(海 p.384)

(3)では「恐怖はとおくに見えている」「そばへは寄って来ない」など、外部にいる生物のように表わされている。(4)は主体が非常に強い恐怖によって思考も感情も停止した状態を表わしたものである。恐怖が「あらゆる感情をおしのけて、全身をつつむ」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る。

次に多くみられたのが「感情は攻撃性があるもの(攻撃性)」である。これは負の感情が多いことに比例している。

(5) 少年ヲシテ、カクモ相貌ヲ変エシムルモノ何ゾ コノ怨嗟、コノ憎悪、シカモワレラハ  
戦友ナリ(中略)少年ノ純情ニシテナオシカリカ 何モノカ胸ヲ衝キ上ゲ(省略)(戦  
p.346)

(6) 胸をしめつけられる偶然の恐怖、必然の不安については、一応片をつけた筈であり、そう自分自身に認知した。(海 p.342)

(7) 胸ヲ衝クナ 抉ルナ 死ニユクワガ惨メサハ、ミズカラモットモヨク知ル……」何タル、力弱キ咬キ (戦 p.335)

(5)は戦争が少年の風貌を変えてしまったことへの悲しみを表わした文である。「衝き上げる」を用いて攻撃するものとして強い悲しみを表わしている。(6)と(7)は恐怖の感情であり、(6)は攻撃的な行動で表現されている。(7)は死を覚悟した時の感情である。死への恐怖によって起こる胸の痛みを「胸を衝く・抉る」と攻撃的な言葉で表わしている。これらの言葉は苦しみや痛みを伴うもので、<攻撃性のあるもの>の項目は、感情の強さを表わす場合に用いられる。

続いて多かつたものは「感情は液体である(液体)」である。感情が液体であるという我々の認識は様々な感情に共通している

(8) その姿は、私のうちになんとも言いようのない悲哀をあふれさせたのであった。(ノ p.420)

(9) カノ苦業ヨリ免レタルヲ、溶ケル如ク身ニ沁ミテ覚エシノミ(戦 p.350)

(10) 死というものに対して書齋で考えていたような深刻な感じの湧きあがらないのが、不思議です。  
(海 p.338)

(8)は悲しみが「あふれさせる」と表現され、悲しみの感情が液体のようにいっぱいになっている様子を表わしている。(9)は喜びの感情を表わし「沁みる」と表現され、布などに液体が浸透していく様子で表わされている。静かに湧きあがり、沁み渡る穏やかな感情である。(10)では、深刻な感情(嫌悪)を「湧きあがる」と共起させている。不快な感情を身体内で湧きあがる液体として表わしているものである。また、感情は液体だけでなく<容器の中のもの>という表現もある。

(11) 「こんなのをしていると、涙がでてくる」水雷長の率直さに私はうたれた。水雷長は私の名を呼んだ。「書いて下さいよ。この気持を是非書いて下さい」私ものぞきながら、「ええ、書きますよ、書きます」と胸をつませた。(海 p.347)

(12) 戦死者の遺品を整理していた。(中略)引き出したあとが空になると、つきとばされたように自分も空虚な気持ちになるのであろう。(海 p.406)

(11)の「つまる」と(12)の「空虚」は、胸や身体を<感情の容器>として捉え、感情がその中にあるものとして表現されたものである。容器の中のものは液体とは限らないが、容器の中にあるものであるため、本項目に分類する。(11)は特攻隊の飛行機を見たときの悲しみの感情である。心臓の拍動の増加による苦しさを「容器のつまり」で表わした表現である。(12)は死んだ兵士の遺品を引き出しから出した後の空の引き出しを見たときの悲しみや寂しさを描いた場面である。感情の<容器>が空になった様子で表わしている。

続いては<固体>である。固体は感情ごとに喩えられたものは異なる。その中で<物体>とは特定できる物の表記がないものである。<飲食物>とは食べれる物以外に、口から入れる物、出す物、そして、味覚で表現したものを含む。

(13) 薄レ行ク船影ヲ見送ル、艦隊各艦ノ眼、眼 忘我ニ誘ウマデニ生々シキ絶望感  
(戦 p.315)

(14) 柔ラカキ小説体ノ行文、蜜ノゴトク心ヲ包ム(戦 p.300)

(15) 艦隊はやつとその頃になつて正体をあらわしたようにいかにも浮城らしく頑丈で、びりりと辛い感じを感じさせた。(海 p.357)

(13)は絶望を「生々しい」と形容している。ここでの生々しいとは「目の前にあるもの」という意味で使われている。「絶望が目の前にある」との描写であり、絶望という感情が自分の目の前に存在しているかのように描いている。(14)は文章に対する良い気持ちを描いたものである。直喩で「蜜のごとく」と表現し、甘さを味わったときの心地良さで表している。(15)は頑丈な艦隊を見た気持ちを表わしたものである。感動に近い心の動きとして「興奮」に分類する。艦隊を見て「びりりと辛い感じ」と気持ちを喩えている。辛いものを食べたときの体の反応、例えば、意識がはつきりする、体が緊張するなどの反応に重ねて表現したと予想できる。

続いて〈感情は自然物である〉の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これは感情が持つイメージを自然物に当てはめたものである。例えば、「火」に喩えられたものには興奮、怒り、悔しさがある。

(16) 揺レ動ク僚艦ヲ、痛キマデニマナコニ焼キ付ケ、熱キ渴望ニ灼カレツツ遂ニ舷側ニ巡リ着ク (戦 p.348)

(17) この思いが私の怒りをいっそう煽った。(ノ p.412)

(18) 舌端無念ノ火ヲ吐キ、舌打チヲツツケ (戦 p.345)

(16)の渴望とは欲求の一つである。何かを欲し望む気持ちは感情の高ぶりを表わしているため興奮として分類する。ここでは「熱い」や「渴望に灼かれる(焼かれる)」と描写され、欲望という興奮が火に喩えられている。(17)は怒りの感情である。「煽る」とは「風が火の勢いを強める」という意味である。気持ちに対しても用いられ、その気持ちを強めるという意味で使われる。ここでは怒りの強さを強めるという意味で用いられ、これは怒りとは火のように煽ることで大きくなるものと捉えているため作られる比喩である。(18)は悔しさの描写である。前者の「舌端無念の火を吐き」は隠喩、後者の「舌打ち」は換喩であり、指し示す感情は同じ悔しさである。「無念の火」とは「悔しさ」を意味している。次に、「水」に喩えられたものでは、感情が何も起こっていない様子を表わす場合に使われている。〈色〉も同様に喜びを表わす場合は無色より、色付いた様子がイメージできる。

(19) 戦いにのぞむ昂奮もなければ、空襲を待ちうける熱狂さもなく、水のような落ち着きぶりだ。(海 p.354)

(20) 彼らの喜びははるか遠方のひびきとけ合っていた。おびただしい色彩と音を含んでいるようであつた。(海 p.404)

水は様々な形があるが、(19)の用例では静かな水面からの連想であろう。心という〈容器〉の

中の水が乱れていない様子で平静を表現している。(20)では喜びが「おびただしい色彩と音を含んでいるよう」と描写している。これは喜びを「カラフルな音色」とイメージしていることから作られる比喩である。視覚に用いる「カラフル」が聴覚に関する「音色」を形容している。このような比喩は共感覚表現<sup>58)</sup>、または共感覚的比喩と呼ばれている。

## 1.2 喩辞と被喩辞

上記で述べた用例を含めた全用例を喩辞別に分類したものが [表4-2] である。左から概念メタファー、喩辞 (概念) と被喩辞 (感情)、喩辞を導き出す根拠を示す。

<方向性がある>の項目は、方向性のメタファーという<上(up)下(down)>の関係がある比喩である。ここでは「暗い」と表現されているが「気分が下がる(down)」の意味で使われているため、方向性のメタファーとする。<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の項目では、感情は正から負にかけて見られ、液体は「わきあがる」と「しみる」、「ゆるる」と分けられる。<容器の中のものである>の項目は、液体とは断定できないが容器の中に存在するものを分類した。容器に何も入っていない空の状態を、平静は軽さで、悲しみは空っぽの寂しさで表現している。<攻撃性がある>の項目は、大部分が負の感情であり、「噛む・突く・刺す・抉る」などは痛み、「締めつける」は苦しみを表現したものである。<生物である>の項目は、正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みられる。感情が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いうイメージから感情主体ではないその他の生き物として喩えられる。<固体である>と<自然物である>の項目では、感情の持つイメージが様々なものに喩えられている。例えば、恐怖は鋭いもの、嫌悪は重荷、怒りは火などである。

58) 1つの感覚を表す語を他種の感覚を表すのに比喩的に転用したものを共感覚表現という。(『認知言語学キーワード事典』 p.69、から引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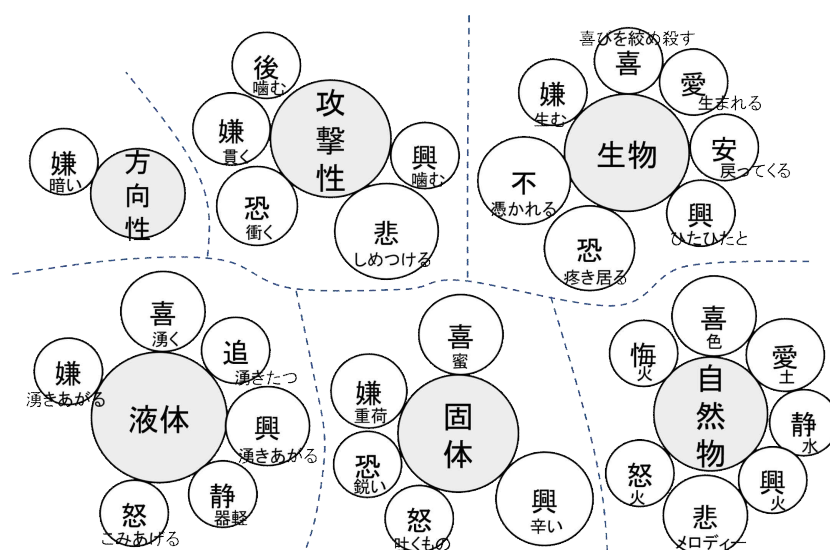


[表4-3] 喩辞別表現

概念メタファー	喩辞	被喩辞	喩辞を導き出す根拠
方向性がある	暗い	嫌悪	心を暗くした
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	わきあがる液体	喜び	胸裡ひそかに歓心湧く
		追憶	わき立つような
		興奮	あらあらしく湧きあがった, 殺気みなぎる
		悲しみ	せつなさが喉にこみあげた, 湧き上がった, あふれさせた
		怒り	憤怒こみあげ
		嫌悪	湧きあがらない
	しみる液体	喜び	溶ける如く身に沁みて
容器の中のものである	入っているもの	悲しみ	胸は波立つ
		驚き	こころの底からゆすぶられその底から次第に高まってくるもの
	容器が空	悲しみ	胸をつまらせた
		平静	心の軽さ
攻撃性がある	攻撃性があるもの	悲しみ	しめつける, 締めつけられた, 衝き上げ, 刺す
		恐れ	しめつけられる, 針を突き立てる, 衝く, 扶る
		嫌悪	貫く, 痛くたたく
		後悔	心をかんだ
		興奮	噛む
		喜び	(喜びを)絞めころす
生物である	動生物	愛好	生まれる
		安堵	戻ってくる
		興奮	ひたひたと私の胸にひびく
		恐怖	存在した, おしのける, 疼き居る, そばへは寄って来ない
		不安	憑かれた, 追いおとす, 存在した, 呼びおこす, かき立てられる, 不安をもみ潰す
		嫌悪	生み押しつぶす
固体である	物体	喜び	喜びにのる, 喜びのもち方
		興奮	血の中に不純な息苦しいものがまじって, すかれる(もの)
		絶望	生々しき絶望感
		嫌悪	恥辱でもあたえられたような不快
	鋭利なもの	恐怖	鋭い
	荷物		重荷を背負う
	爆弾	嫌悪	爆発
	澱		澱が残る
	飲食物	喜び	蜜のごとく心を包む
		興奮	びりりと辛い感じ, 爽快味に酔う
怒り		怒りを吐く	
自然物である(現象)	火	興奮	熱き渴望に灼かれつつ
		怒り	煽る
		悔しさ	無念の火を吐き
	水	平静	水のような落ち着き
	土	愛好	打耕されてきた感情
	音	喜び	喜びははるか遠方のひびきとけ合っていた
		悲しみ	胸の底からかすかなメロディーがなりひびいてくるよう, わき立つようなメロディーが強くなつた, 胸のなかには苦しいほどにメロディーがひびいた, 胸にはすみ切つた音色があふれてきた
	色	喜び	おびただしい色彩と音を含んで, 月の夜のまわりが透きとおつていくような喜び

次の [図4-1] は、前述した6つの概念メタファーとそれによって表現された感情（被喩辞）を星図に散りばめたものである。

＜液体＞と＜生物＞の概念の星が最も大きく、使われた感情の種類は＜生物＞が多い。また、＜自然物＞の星も大きく、散りばめられた感情も多い。＜固体＞と＜自然物＞が多いのは感情とある物との類似性から導き出した比喩表現が多いということである。感情の持つイメージを物に置き換えて表現する傾向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攻撃性＞と＜固体＞の星は少し小さく、感情の種類も少ないことが本対象の特徴といえる。また＜液体＞に関しても日露も日中で＜液体＞の概念が多いことと比較すると非常に使用が減っている。それは＜感情は液体である＞という感情が体内で生じ身体に広がっていくというイメージを抱く傾向が薄くなってきたといえる。また、日露と日中、そして太平洋と＜生物である＞という認識が徐々に増えてきている。感情が体内の中で抑制できないという側面だけでなく、感情が体内のものではなく、外部からやってくるものという認識が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変化がここでみられる。



[図4-1] 喩辞と被喩辞星図

### 1.3 身体部位と感情

部位別使用回数を示したのが[表4-4]である。用例数は全55例、身体部位は13部位である。まず、部位は頭、髪、顔、目、口、胸、背中、身体全体と分け、それ以外は、内臓である心臓、皮膚の感覚、そして、心、気、魂<sup>59)</sup>と分類する。使用回数は、顔が最も多く、胸、目・口と続く。顔と目は正の感情から負の感情まで幅広く用いられている。顔や目は感情

59) 心と気と魂は同義語である。身体部位として実体はないが、我々は身体の一部として捉えているため、身体部位として項目を立てる。

が表われる場所として描きやすいため多用されやすい部位である。

[表4-4] 身体部位別使用回数

感情	身体部位													計
	頭	髪	顔	目	口	胸	背中	体	心臓	皮膚	心	気	魂	
喜			3								1	1		5
愛				1										1
安														0
楽								1						1
静														0
追				1		1								2
興			1			2				1				4
驚					1	1	1							3
悲			1	4		3		1			3			12
怒	1	1	2		3									7
恐			1				1	1						3
不			2	1		1					1			5
絶														0
嫌			4						1	1	1		1	8
悔			1		3									4
後														0
計	1	1	15	7	7	8	2	3	1	2	6	1	1	55

最も多く使われている「顔」は正の感情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使用される。特に色で表わされたものが多い。色とは表情を意味する言葉として使われているが、感情の起りは血流に影響を与え、実際に顔色は変化する。本対象では赤い色は喜びと怒り、青い色は悲しみ、恐怖、不安がみられる。

(21) 乗組ノ光榮ノ故カ、紅顔、夜目ニモ鮮カナリ (戦 p.297)

(22) 「イイ加減ニ止メロ、江口少尉」叫ブハ加藤 (予備) 中尉 江口少尉、満面ニ朱ヲ注ギ、棒ヲヒッサゲテソノ前ニ立チフサガル (戦 p.302)

(23) あ「不正ヲ見テモナグレンヨウナ、ソナ士官ガアルカ」 ムシロ蒼ザメテ間近ニ立ツ (戦 p.303)

(24) 首途ノ盃ヲコボツハモットモ不吉ナリトイウ 彼、色ヲ失イ、悄然トシテ為ストコロナシ (戦 p.301)

(21)は喜びの感情である。嬉しそうな表情が赤い色によって描写されている。(22)は怒り感情を表し、血管が広がり血液の流れが早くなる闘争反応である。色の変化が見えやすい顔で表現される。(23)は血管収縮で起こる顔の青白さである。怒られることで恐ろしさを感じている描写であ

る。死を意識した恐怖ではないが、怒っている人に対しても我々はしばしば恐怖を感じる。(24)は盃をこぼしてしまった、不吉なことをしてしまった時の彼の様子を描いている。失敗したことによる未来への恐怖を描いているため、不安の感情に含む。「色を失う」は恐怖と同様、毛細血管の収縮で顔から血色がなくなった様子である。

続いて用例が多いのは「胸」である。感情による心拍数の増加による表現であるため、様々な感情で使われる。負の感情では心拍数の増加による苦しさや痛みなどで表現され、また、興奮では熱さでも表現される。

(25) 痛み私が海中にうかんでいる時間は、子供たちは昼間のあそびにつかれて、乱暴な姿で眠っていることであろう。刺されるように胸が痛い。(海 p.367)

(26) 日本機が堂々とゆつくりととんでいく。(中略)見ていると胸が熱くなつた。(海 p.347)

(25)は追憶の感情であり、子供のことを思い出し、会いたいという追憶の気持ちを胸の痛みで表している。(26)は飛行機を見て感動をしている主人公の気持ちである。感動という心を動かされた様子は興奮に含まれる。興奮による体温上昇を胸の熱さで表している。さらに、驚きを表わす次のような比喩表現もみられる。

(27) 兵はさつとまん中を開けた。私は頭を下げ、びつくりしている胸を持って急ぎ通りぬけた。(海 p.399)

(27)は胸を意思のある生物のように描き、それを所有物のように持ち運ぶ様子で描いている。身体と感情主体を分離させた表現である。

次に使用が多い「口」は主に負の感情で用いられており、特に怒りやそれに似た後悔という感情で使われる傾向にある。

(28) 見上グレバ、怒レルゴトキ朱面ニ、固ク結ベル唇、タダ炯々ノ眼光、一瞬悲愁ヲ湛エタルヲ直視ス (戦 p.318)

(29) ステニ被爆ノ衝撃アリ(中略)高田少尉ノ配置片影ナシ 煮エ湯呑ム思イニ首ヲ曲ゲ、マナコクリアケ凝視スルモ(戦 p.323)

(28)では唇を固く結ぶという行為で怒りを表している。(29)の「煮え湯を飲まされる」は慣用句で

あり「信用していた者に裏切られてひどい目にあう」<sup>60)</sup>という意味である。裏切られた時の気持ちであるため、悔しさに分類する。

最後に「心」である。心は身体の一部として認識しているが、そうではない表現もみられる。

(30) ふりかえるとおりすぎた軍艦がしょんぼりとして見えた。今までどんなに淋しかったことであろう、しかしもう大丈夫だ、先の方には自分らの艦隊が進んでいくのだと私は胸の中で言つた。淋しが  
つていたのは私のところであり、勝手に胸の中に一隻の軍艦をおき、己を淋しさの中に追い落  
していたのだ。 (海 p.357)

(30)は文全体が比喩である。胸の中の水面に軍艦を浮かべる様子は、胸を<液体の入った容器>として捉え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淋しがつていたのは私の心」とし、感情主体の私が淋しいということ、自分の心を体の一部としてではなく、第2の自身のように表現している。

#### 1.4 身体の部位別・状態別表現

次に、身体・身体部位の状態表現された用例全てをまとめたものが[表4-5]である。部位別に分類し、下位分類として状態別の分類になっている。

身体部位を用いた表現は、感情による血管の収縮と血の流れによる身体の状態を述べたものが大部分である。毛細血管の収縮による色の変化や体温低下、血の流れの停滞による酸素不足からおこる胸の痛みや苦しみなどである。これら以外では、笑いや涙、唇をかむなどの行為で表現されている。部位別では、「頭」と「髪」は怒りのみでみられる。「顔」は顔色が多く見られ、赤は喜びや怒り、青は恐怖や不安などである。「目」は涙を流すだけでなく様々な心の様子を映し出す部位であり、それらは色や光などで表現される。「口」は、悔しきや怒りなどを主に表現する際に用いられている。「胸」は感情によって変化する心拍数が関係しているため、様々な感情を表現する際に用いられる。拍動や圧迫、痛み、熱が主に用いられている。「背中」と「心臓」、「皮膚」、「体」はさらなる用例の収集が必要であるが、一般的に背中では慣用的に「悪寒が走る」など体温低下で用いられ、心臓は「心臓が高鳴る」など胸と同様に用いられている。「心・気・魂」の場合、他の身体部位とは異なり、そのものが感情主体かのように捉えた表現がみられる。例えば、「寂しがっている心」や「心が子供のようになる」など、心が体の一部ではなくもう一人の自分であるかのように表現している。

60) 松村明 (2008) 「スーパー大辞林 3.0」三省堂

感情別では、用例の多く得られた「悲しみ」は目の色が最も多く、次に胸の拍動や圧迫による苦しさで表現されたものが多い。次に多い「嫌悪」は、不快な感情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ため用いられる部位も全5部位、そして内臓までと広い範囲に渡っている。用例が多い顔の項目でも、笑いや色、表情と各々でみられる。次に用例が多い「怒り」は口の項目の唇の状態や歯、舌によって表現されている。また、頭や髪を用いたものは怒りのみである。

[表4-5] 身体部位別表現

表現	部位	感情	用例	
身体 の 状態	頭	怒り	頭に血を上らせる	
	髪	怒り	怒髪天を突き	
	顔	笑い	喜び	顔をほころばせ
			嫌悪	嘲笑せん, 笑いをこらう
			悔しさ	笑いこみあげ
			喜び	紅顔, 喜色を見せて
		色	興奮	昂奮の色がなかつた
			悲しみ	蒼ざめる
			怒り	朱面, 満面に朱を注ぎ
			恐怖	蒼ざめる
			不安	色失い, 蒼ざめ
			嫌悪	苦渋の色
	表情	嫌悪	ゆがんだ顔	
	目	涙	追憶	涙滲む
			悲しみ	涙を拭え
		熱	愛好	臉は熱くなった
		色・光	悲しみ	翳る, 濁り沈む, 炯々の眼光
	口	様子	不安	魚の如き小心臆病の眸なり
			驚き	生唾を飲む
		行為	悔しさ	煮え湯を呑む思い, 血涙を呑む
怒り			固く結べる唇	
唇		悔しさ	唇をかむ	
		怒り	歯を噛みくだく思い	
舌	怒り	舌打つ		
胸	拍動	興奮	胸をはずませた	
		驚き	びっくりしている胸を持って通りぬける	
		悲しみ	胸騒ぐ, 私の胸はきゅっと鳴つた	
	圧迫	悲しみ	胸の中にせりあがってくる感情	
		追憶	胸が痛い	
	痛み	不安	胸のうち疼きて止まず	
		興奮	胸が熱くなる	
	背中	様子	驚き	背筋に一本棒をとおされた思い
		震え	恐怖	悪寒背筋を走って止まず
	心臓	痛み	嫌悪	心臓の一部に針をたてられるような痛み
	皮膚	感覚	興奮	皮膚まで鮮明になっていく思い
			嫌悪	敵の触手になでられた気味のわるさ
体	様子	楽しさ	遠足を待ちかねるようにうきうきとしていた	
	痛み	悲しみ	沈痛なる別離	
	震え	恐怖	からだに戦慄が走つた	
心	心	喜び	心踊る瞬時	
		悲しみ	淋しがっている心, 心の痛みを覚えていた, 心が子供のようになり	
		不安	心のざわめき	
	嫌悪	心進まず		
気	喜び	気が浮き立っていた		
魂	嫌悪	魂を震撼させる		

## 2. まとめ

本章では、太平洋戦争の4作品を対象に感情が比喩表現を通してどのように表現されど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るのかを考察した。対象作品から得られた比喩表現は125例、16種類の感情が得られた。悲しみを表わすものが最も多く、嫌悪、喜びと続いた。悲しみは兵士が死にいく場面の多さのためであり、嫌悪は戦場で感じる不快感すべてを含むため用例が多くなっている。喜びが多い理由は政府による国民の気持ちの昂揚を狙った作品という時代背景が影響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比喩表現は、直喩・隠喩表現と身体部位を用いた換喩表現に分け、考察した。

感情がどのように認識されているかを考察した結果、抜き出して使用が多いものはない。ほぼ同じ使用回数であった。その中で多かったものは<感情は生物である>という認識であった。感情は制御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いう認識からの表現であり、正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みられた。そして次は<感情固体である>という認識であった。ただの<物体>として以外では<嫌悪は重荷である>など、感情が持つイメージを物に当てはめているものがみられた。次に多かったものは<感情は液体である>という認識であった。そして、その感情の<容器>となるものは胸や身体であり、その<容器>が空になった状態は悲しみを表わすのに用いられていた。

身体部位を用いた表現は、どの部位を用いて、またはどのような状態を用いて感情を表わしているのかを考察した。身体部位は全13個所に分類でき、部位別で最も多かったものは顔、次に胸、そして、目・口と続いた。顔は笑いや色で、胸は拍動や痛みが多く使用されていた。用例が多かった悲しみは目の色で表現されたものが最も多く、次に胸の拍動や圧迫による苦しさで表現されたものが多かった。怒りは頭や髪が使用され、また、口の項目に含まれる唇・歯・舌が使用されたものが多いのが特徴的であった。

最後に、本章の特徴をまとめると次のことが挙げられる。太平洋戦争の作品は政府によるプロパガンダの一種であり、徴用した記者たちによって書かれた日本国民の気持ちの昂揚を狙った内容になっている。太平洋作品は戦いへの興奮より兵士を見て心が動かされる報道員の感動の気持ち、そして、死へ向かっていく兵士に対する悲しみの感情が主に描かれていた。表現の特徴としては、恐怖と不安の感情が<動生物>に喩えられているのが目立ち、これらの感情は身体に生物のように絡まってくる不快な様子で表わされていた。これは、感情が体内で生じるという認識以外に、外部からやってくるもので、制御できないものという認識が強くなってき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感情を<もの>に喩えている表現が多いがその<もの>も様々で各感情とももの類似性から導き出した比喩が豊富に作られ表現の幅が広がっていることが明らかであった。身体部位からは、「口」を用いた表現は怒りや悔しさを表わすと



きに主に用いられる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最後に、自分の身体一部を外部のものとして扱う西洋的表現がみられたのも特徴のひとつである。

## V. 戦後作品の比喩表現 1 (1946~1949)

本章での考察の対象は、第3巻に収録されている戦後に発表<sup>61)</sup>された3作品から収集した比喩表現である。3作品は、大岡昇平「俘虜記」(1946)<sup>62)</sup>、梅崎春生「桜島」(1946)<sup>63)</sup>、島尾敏雄「出孤島記」(1949)<sup>64)</sup>であり、これらの作品は作者の戦争体験を基に書かれているが、作者たちの年齢や戦争の体験は多様である。用例は全107例である。

次の〔表5-1〕は作品別に収集した比喩表現を感情別にまとめたものである。収集した用例の正の感情は「喜び・愛好・安堵」、正負の感情は「興奮・緊張・驚き」、負の感情は「悲しみ・怒り・恐怖・不安・絶望・恨み・嫌悪・後悔」と全14種類である。これらに2つ以上の感情が混じり合った「混合」を加える。

〔表5-1〕 作品別感情の比喩用例数 [個数(%)]

	感情	俘虜記	桜島	出孤島記	合計	
正	喜び	1 (5.8)	1 (1.3)	2 (11.7)	4 (3.7)	13 (12.1)
	愛好	0	2 (2.7)	0	2 (1.8)	
	安堵	0	3 (4.1)	4 (23.5)	7 (6.5)	
正負	興奮	1 (5.8)	4 (5.4)	0	5 (4.6)	14 (13.0)
	緊張	2 (11.7)	1 (1.3)	1 (5.8)	4 (3.7)	
	驚き	1 (5.8)	3 (4.1)	1 (5.8)	5 (4.6)	
負	悲しみ	4 (23.5)	14 (19.1)	1 (5.8)	19 (17.7)	70 (65.4)
	怒り	0	6 (8.2)	0	6 (5.6)	
	恐怖	5 (29.4)	8 (10.9)	0	13 (12.1)	
	不安	0	6 (8.2)	3 (17.6)	9 (8.4)	
	絶望	0	1 (1.3)	0	1 (0.9)	
	恨み	0	0	1 (5.8)	1 (0.9)	
	嫌悪	2 (11.7)	15 (20.5)	3 (17.6)	20 (18.6)	
	後悔	0	0	1 (5.8)	1 (0.9)	
混	混合	1 (5.8)	9 (12.3)	0	10 (9.3)	10 (9.3)
	計	17 (100)	73 (100)	17 (100)	107 (100)	

作品別で最も多くの用例が得られたのは「桜島」である。嫌悪 (20.5%) の感情が最も多く、次に

- 61)終戦直後の1945年9月10日から占領軍GHQによる検閲が始まったため、全ての作品は検閲を受けたものである。戦争への罪悪感を与えることが目的であったため、それに反した内容はない。
- 62)1945年のミンドロ島における戦場生活及び、米軍の俘虜になるまでの過程が描かれている。体験を基にした作品。終戦時36歳。敗戦の翌年に書かれたが、検閲の関係から1948年に発表された。
- 63)桜島での兵士たちの不安な日常や出来事を暗号員の視点で描かれている。体験を基にした作品。終戦時30歳。戦争文学の代表作の一つとされている。
- 64)出撃の命令を待っている自殺挺の乗組員の視点で物語が描かれている。特攻戦待機命令とその中止、そして、島での恋愛の体験を基に書いた作品。終戦時28歳。

悲しみ (19.1%) と続く。「俘虜記」は恐怖 (29.4%) が多く、「出孤島記」では安堵 (23.5%) が最も多い。「俘虜記」と「出孤島記」では「桜島」ほど多くの比喻表現がみられない。

## 1. 感情別比喻表現の分析と考察

本節では、得られた比喻表現を14種類の感情別に分類し、用例と共に考察を行う。以下、用例の作品表記は「俘虜記」は「俘」、「桜島」は「桜」、「出孤島記」は「出」とする。

### 1.1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の概念である喩辞の使用頻度をまとめたものが[表5-2]である。用例数は全56例である。大きな項目で最も多くみられたものは、＜容器液体＞と＜生物＞である。＜液体＞と動きのある＜動生物＞に用例が集まり、感情は正から負にかけてみられる。

[表5-2] 喩辞使用回数

感情	方向性	容器液体		攻撃性	生物		固体					自然物現象		計	
		液体	気体		動生物	かび	物体	弾薬	包む	膨れる	飲食物	牙	風		音
喜	1				1										2
愛		1													1
安	1	3			1										5
興			1		1										2
緊															0
驚					1								1		2
悲	1	4		3	2		1								11
怒					2							1			3
恐		1		1	2		2								6
不絶				3	2			1	1				1		8
恨		1													0
嫌				3	1	1	1								6
後混					1										1
混		4								1	2	1			8
計	3	14	1	10	14	1	4	1	1	1	2	1	2	1	56
		15			15		10					3			

細かな項目ではまずは用例の多い＜液体＞の項目である。感情が液体に喩えられるとき、

「湧き上がる」や「溢れる」などよく共起されるが、次の用例は違った視点で描かれた比喻表現である。

- (1) 私は明け方の爽やかさの中で、身体のすみずみが解けて伸びやかになり、充実した肉体が、今日もまだ自分のものであつたことに、しびれるほどの安堵の中に浸っているを感じていた。(出 p.276)
- (2) 先刻の気持の反動と判つてみながらも、私は此の感傷に甘く身をひたしてゐた。ひそやかな孤独の感じが、快よく身体を領してゐた。夜風が、顔の皮にあたつて吹いた。(桜 p.103)

(1)の「安堵の中に浸る」は感情というの水の中に身体を浸している様子で描かれている。安心した気持ちを「安心できる液体の中に身を横たえる」という心地良さで表現している。これは容器の中に湧き出るといふ感情ではなく、液体（感情）が入ったバスタブのようなものの中に感情主体が入る状況を連想させるものである。＜感情は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という認識は同じであるが、今まではその＜容器＞を感情主体が所有物として持っているという表現が主であった。しかし、その中に入り込むという表現が使われ、＜感情の容器＞は身体の外部にバスタブのようにあるものとしての認識がここではみられる。(2)も(1)と同様に「感傷に身をひたす」と孤独という液体の中に身をひたしている。これは感情が体内ではなく外部の容器にあり、その中に主体が入る様子を連想させる表現である。

次に＜液体＞と同数の＜感情は動生物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自身ではコントロールができない感情の一面を捉えた表現が正から負の感情に渡って多く用いられており、喩えられた生物も様々である。

- (3) 入江うちが淀んで風いでいても、此処に来て、足を一步入江そとの方にふみ出すと、風が耳のうらを鳴つて通り、身体の中に飼つている鳩が自由なばたきをあげて飛立つ思いをした。(出 p.253)
- (4) 生涯再びは見る事もない此の坊津の風景は、おそろしいほど新鮮であつた。(中略)何故此のやうに風景が生き活きしてゐるのであらう。胸を嘔むにがいものを感じながら、私は思つた。(もう二度とここには戻ってこれないという気持ちから) (桜 p.87)
- (5) 自分たちが兵隊であつた折にやられたから、今兵隊に同じことをやる、と言つたやうな単純なものではないであらう。痼疾(こしつ)のやうに、吉良兵曹長の心に巣くふ何物かが、彼をかり立ててゐるやうであつた。私の理解を絶した、おそらくは彼自身にも理解出来ない鬼のやうなものが、彼の胸を荒れ狂つてゐるやうであつた。(桜 p.100)
- (6) 出征する日まで私は「祖国と運命を共にするまで」といふ観念に安住し、時局便乗の虚言者もむなしく

談ずる敗戦主義者も一からげにわらつていたが、いざ輸送船に乗ってしまふと、たんなる「死」かどつかりと私の前に腰をおろして動かないのに閉口した。(俘 p.58)

(3)では喜びが「身体の中に飼っている鳩」に喩えられている。その鳩が自由に飛び立つ様子で気分の良いさを表現している。(4)は、もう二度とここには戻って来られない悲しい気持ちを描いた場面である。その悲しさから生じる胸の小さな痛みを「胸を噛む」生き物で表現している。「にがい」という言葉から虫が連想でき、また、「にがい味」という連想から不快な感情であることがわかる。(5)では怒りを「鬼」に喩えている。「胸を荒れ狂う」とは「胸の中で荒れ狂っている」と解釈できる。恐ろしい「鬼」に喩えることで怒りは強いものであることを表わしている。(6)は死に対する恐怖である。自分の前に座って動かない生物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どっかりと座る」という言葉で避けては通れない様子を描いている。

続いては＜感情は攻撃性がある＞が多くみられ、これは負の感情の用例が多かったことに比例している。また、正と正負の感情では用例はみられず、苦しみや痛みの伴う感情<sup>65)</sup>に用いられている。

(7) 未来には死があるばかりであるが、われわれがそれについて表象し得るものは完全な虚無であり、そこに移るのも、今私がいやおうなく輸送船に乗せられたと同じ推移をもつてすることができるならば、私に何の思ひわづらふことがあらう。私はくりかへしかう自分に言いきかせた。しかし死の観念はたえず戻つて、生活のあらゆる瞬間に私をおそつた。私はつひにいかにも死とは何者でもない、ただ確実な死をひかへて今私が生きてゐる、それが問題なのだといふことを了解した。(俘 p.58)

(7)では、恐怖は「戻ってくる」意思のあるものであり「私をおそう」と攻撃的なもの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攻撃的なものに喩えられるものは強い感情が多い。それだけ体に衝撃があるためである。

次に、＜感情は固体である＞も同数である。感情によって様々なものに喩えられているが、正の感情では物に喩えたものはみられない。これは用例数が8例のみであるためであり、考察の対象にするにはさらに多くの用例収集が必要である。

(8) 私だけが日毎の爆音に神経を亢ぶらせて、山川をしつかり見ることが出来なかつた。私のとがつた心の中では、その辺のどこを掘り起しても、危険な信管のついた物体が掘り起されて出て来た。(出 p.250)

65) 正の感情に分類される愛好は痛みを伴う感情である。日中と戦後2で愛好の攻撃性はみられる。

(8)は常に不安であり、山や川を楽しむ余裕がなかったという心の描写である。下線の部分は「心の中を掘り起こすと危険な物体が出てくる」という意味であり、文全体が比喩になっている文脈の比喩といわれるものである。この掘り起こされて出てくるものとは、敵の空爆が来ることへの不安を意味している。また、〈飲食物〉に喩えた表現もある。

(9) (特攻隊員を見て) 私の胸に湧き上がつて来たのは、悲しみとも憤りともつかぬ感情であつた。此の感じだけは、今は、いやな後味を引いて私の胸に残つてゐる。(桜 p.98)

(9)は悲しみと怒りの感情で、前文では感情は湧き上がる液体という認識で描いているが、後文では「いやな後味を引いて胸に残る」と「味」のある飲食物として描いている。1文の中に感情の液体の概念と飲食物の概念が混ざっている表現である。

次は〈感情は自然物である〉と〈感情は現象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用例は1つずつである。

(10) 私の兄は、陸軍で、比島にゐる。おそらくは、生きて居まい。弟はすでに、蒙古で戦死した。俄かに荒々しいものが、疾風のやうに私の心を満した。此のやうな犠牲をはらつて、日本と言ふ国が一体何をなしとげたのだらう。(桜 p.109)

(11) 特攻戦発動の命令を受け取つた後の総員集合や、そして第四艇隊の爆発事故などのことが、あざやかな絵画的な印象を私に残さず、暗い、眼で確かめることの出来ない音楽的なショックで、私の経験の中になまなましい印象を残していた。それは如何にも不細工な出来栄として私の経験の中に刻み込まれていた。(出 p.273)

(10)では兄が国の犠牲になったという怒りの感情を「荒々しいもの」や「疾風のように」と描写している。怒りの強さを疾風の強さや荒々しさに見立てた表現である。(11)は、驚いた不快な記憶が頭の中に残っておらず、聴覚の音として残っていると読める。これは不快な記憶を思い出したくないが、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音で覚えてしま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あろう。心に衝撃を与えた驚きの強さを「音楽的ショック」という音の衝撃で表わしている。

## 1.2 喩辞と被喩辞

次に、直喩と隠喩をに分類したものが次の [表5-3] である。表には左から概念メタファー、喩辞(概念)、被喩辞(感情)、喩辞を導き出す根拠となる表現を示す。

<方向性がある>の項目では、感情は増大したり、深さが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増大は多くなる(上がる)という<上>の概念であり、「深い」は深くなる(下がる)という<下>の概念である。次の<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では、感情は湧きあがり容器を満たすだけでなく、しみるなどの液体の持つ性質もみられる。多くの感情は<自身の体内から湧き出る液体>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が、興奮の場合は<液体>だけでなく<身体から出る気体>もイメージさせる。次の<攻撃性があるもの>では、悲しみと恐怖、不安、嫌悪と負の感情のみである。悲しみなどの負の感情による痛みや苦しみの経験を言語化する際、実際に身体が痛みや苦しみを感ずるため、感情から攻撃を受けるという表現が用いられやすい。感情による痛みは特に「つく・突き刺す」が多く用いられている。次の<生物である>の項目はコントロール出来ない感情の一面を表現したものである。自らの意思で行動をするものは<動物>、その中で文脈に喩辞が表われていたものには「鳩・虫(のようなもの)・鬼」がみられる。鳩は自由のイメージを我々は持っており、感情は喜びで用いられている。しかし、虫は正と負の感情で用いられ、虫の持つ一つの側面がそれぞれに表れている。安堵の感情では安心感が身体中に行き渡る虫の素早い行動、負の感情では虫の苦さや不快さの部分が用いられている。鬼は怒りの感情で用いられ、怒りは恐ろしいもの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植物の項目の「かび」も嫌な気持ちのイメージから作られたものである。かびは大部分の人にとって嫌悪の対象であり身体にとっても悪いものという認識がある。最後の<固体である>と<自然物である>の項目は感情を意思の持たないものに喩えたものである。これらの表現も各感情が持つイメージから作られ、喩えられたものも様々である。特徴的なものとして、不安は「信管のある爆弾のようなもの」であり、怒りは「疾風」、不安は「風」などが挙げられる。不安が爆発物に喩えられているが、その信管が取り除かれ爆発すれば死ぬというイメージで不安を喩えている。怒りは荒れ狂うともたびたび共起し、激しい風の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不安を喩えた吹き抜ける風は少々の体温低下をもたらし、ひやっとする、一瞬の冷たさを表わ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表5-3] 喩辞別分類表 (その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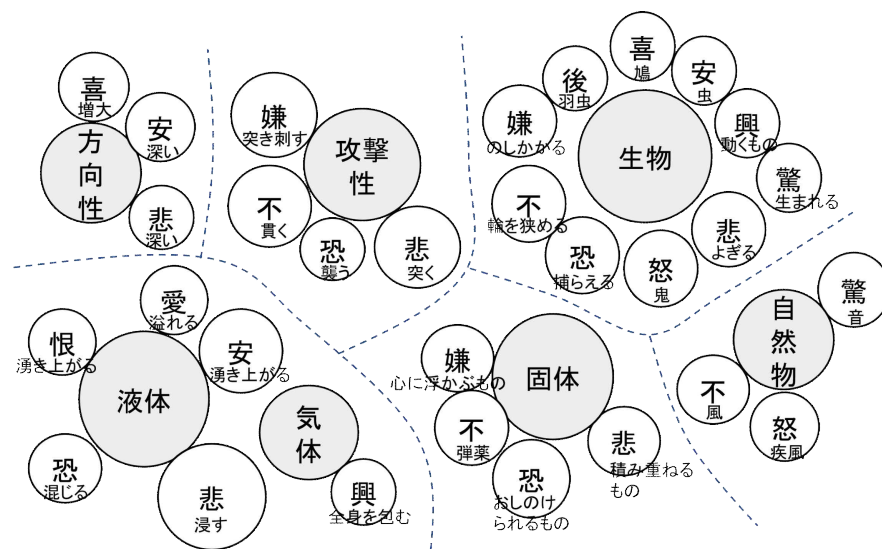
概念メタファー	喩辞 <概念>	被喩辞 <感情>	喩辞を導き出す根拠・類似性
方向性がある	上(増大)	喜び	増大してゆく快感
	下(深い)	安堵	深い安堵
悲しみ		深い悲しみ	

[表5-3] 喩辞別分類表 (その2)

概念メタファー	喩辞<概念>	被喩辞<感情>	喩辞を導き出す根拠・類似性
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	わきあがる液体	愛好	愛情が胸にあふれた
		安堵	安堵の中に浸る・安らぎが心に湧き上つて来た
		悲しみ	悲しみのようなものが潮のふくれ上りと共に私を圧迫した・哀感が胸に湧き上つた・感傷に甘く身をひたしてゐた・孤独の感じが快く身体を領してゐた
		恐怖	恐怖とは嫌悪と危惧のまじつた不快
		恨み	うらみがましい気分が湧き上つて来る
		混合	胸に湧き上がつて来た・胸一ぱいに拡がつて
	しみる液体	安堵	心の奥底まで沁みわたつた
気体である	気体	興奮	殺気が全身を包んでゐた
攻撃性がある	攻撃性があるもの	悲しみ	胸をつかれた・悲哀感が私を襲つた・悲しみが私を襲つた
		恐怖	死の観念はたえず戻つて私をおそつた
		不安	私の心をしめつけに来る・不吉なものが背骨を貫く・背後で脅かされる
		嫌悪	剣のやうにはねかえつて私の胸に突き刺さつて来る・私の心を烈しい苦痛を伴つて突き刺した・鋭く私を打つた
生物である	動物	興奮	私の中で動いたものがあつた
		驚き	新しく生まれた驚愕
		悲しみ	感傷が鋭く私の胸をよぎつた
		恐怖	死がどつかり私の前に腰をおろして動かない・私をとらへたあの不思議な恐怖
		不安	何物かが次第に輪を狭めて身体を締めつけて来る・漠然とした不安が私をとらへた
		嫌悪	沈黙が痛いほど私の背にのしかかつて来た
	鳩	喜び	身体の中に飼っている鳩が自由なはばたきをあげて飛び立つ思い
	虫のようなもの	安堵	安堵が身体中を這いまわる
		悲しみ	胸を嘔むにがいものを感じ
		後悔	羽虫のように翼をつけて私の頭の中にいやがらせをしに飛んで来る
未知・鬼	怒り	心に巣くう何物か・鬼のようなものが彼の胸を荒れ狂つてゐる	
かび	嫌悪	かびのように生えはびこつて来た	
固体である	物体	悲しみ	虚しい感情を私は何度も積み重ねてはこはして来た
		恐怖	確実な死がおしのけられ・死についての心の低迷がびびのやうに私の心に傷をつけた
		嫌悪	苦々しく心に浮かんで来た
	弾薬	不安	危険な信管のついた物体
	包むもの	不安	不吉の予感が私の胸をつつんだ
	ふくれるもの	混合	こじれたままふくれあがる
	食べ物	混合	陶酔にはいがい味がなかつたわけではない・いやな後味を引いて私の胸に残つてゐる
牙	混合	育てて行き、磨いて行き、広げて行つた	
自然物である(及現象)	疾風・風	怒り	俄かに荒々しいものが疾風のやうに私の心を満たした
		不安	胸の中をふきぬけるやうな風の音
	音	驚き	眼で確かめることのできな音楽的なショック



次の [図5-1] は、前述した喩辞メタファーとそれによって表現された感情（被喩辞）を星図に散りばめたものである。〈生物〉が最も使用数が多く、使われた感情の種類も多い。他の概念はどれも少なく、〈生物〉の表現に集まっているのが特徴といえよう。また、〈液体〉の概念の使用が少ない。そしてその代りに〈感情は生物である〉という概念が増えてきている。これは〈感情は液体である〉という感情が体内で生じ身体に広がっていくというイメージを抱く傾向が薄くなってき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感情では悲しみなどの項目でも表われているが、液体で表わされた悲しみが最も多い。これは悲しみは体内で生じ体を満たすという認識が強いことをしめしている。



[図 5-1] 喩辞と被喩辞星図

### 1.3 身体部位と感情

身体部位ごとに使用回数をまとめたものが[表5-4]である。用例数は全51例で、身体部位は全12部位である。部位は「頭・顔・目・口・歯・背・足・体」と身体内部である「肝・腸・血・心」そして、これらに呼吸を加えた。呼吸は口と喉と鼻に関係し、部位を特定できないため別項目になっている。部位別使用回数は、顔が最も多く、次に目、体と続く。

[表5-4] 身体部位別使用回数

感情	身体部位												計
	頭	顔	目	歯	背	足	体	肝	腸	血	心	呼吸	
喜							1				1		2
愛				1									1
安		1									1		2
興			1				2						3
緊		1							1			2	4
驚		1					2						3
悲		2	3				1	1			1		8
怒			2				1						3
恐		1		1	1	1	2			1			7
不				1									1
絶	1												1
恨													0
嫌		8	1	1			1				1	2	14
後													0
混			2										2
計	1	14	9	4	1	1	10	1	1	1	4	4	51

「顔」と「目」は、感情主体自身の表現のみならず主体から見た第三者の感情を表わす場合にも用いられることに加え、顔には笑う行為、目には泣く行為が含まれるため使用数が多くなっている。

- (12) 彼は幹部候補生あがりの若い中尉で、二十七歳であつたが、無口で陰気で、三十歳より下には見えなかつた。彼がノモンハンで何をし何を見たか、彼は一度も語らなかつたが、その目その顔には現れてゐた。私は彼のからだにその僚友の死臭をかぐやうにさへ思つた。（俘 p.57）
- (13) 不思議な殺気が彼の全身を包んでゐた。彼の、少し曲げた背に、餓えた野獣のやうな眼に、此の世のものでない凶暴な意志を私は見た。（桜 p.119）

(12)では、目と顔に友の死による悲しみが現れており、体からもそれが感じ取れる様子を匂いで描いている。(13)では殺気を「餓えた野獣の目」に喩えており、強い興奮の感情が表れている。続いて、顔や目よりは使用回数は少ないが、「体」も様々な感情で用いられるため使用回数が増える。

- (14) 土埃にまみれた半顔が、変に蒼白かつた。私はぎよつとして、立ち止つた。草の葉に染められた毒々しい血の色を見たのだ。総身に冷水を浴びせかけられたやうな気がして、私は凝然と立ちすくんだ。（桜 p.114）

(15) ただ、曇天の日の底光りのように、背後で脅かされているつかのまの自由のはばたきに誘われている私に、千鳥の囀りは、まだ生きていることを喜んで呉れるように聞こえた。(出 p.258)

(16) 私の深夜の夢中遊行に似た愚かな散歩は、いつも今度こそは今宵限りであろうというしつとりと重い鎖でつながれていた。(出 p.260)

(14)は血を見た時の驚きによる血管の収縮を冷水を浴びるという冷たさで表している。驚きは血管が収縮するほどの強い感情である。(15)は出撃の指示を出す立場を離れてつかの間の休息をしている場面である。喜びに含まれる。全文が比喩文になっていて、自由である喜びを鳥の羽ばたきに喩えている。そして、その中に誘われているという状況を描いている。これはその状況にいるということで全身を用いた喜びを表わす比喩として分類する。(17)も「しつとりと重い鎖でつながれていた」と文章全体が比喩になったもので、体の重さで気分の重さ、嫌悪の感情を表現している。湿ったという意味の「しつとり」と「重い鎖でつながれる」という言葉が不快さを表わしている。

次は、内臓を用いた表現である。(17)は腸、(18)は心を用いている。

(17) 数個の爆弾を投下しさえすれば、入江中誘爆を生じて、一瞬の内に壊滅し去ることを知っていたのか。(中略)私は何をしなければならぬか。私は験されている。甘いヒロイックな調子を含んでいた私の腸に木の杭をぐいと突込まれた。(出 p.270)

(17)は次に何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いう緊張感を持った時の体の様子を描いている。「腸に木の杭を入れられるような」と喩え、苦しく痛みを伴う強い緊張感を表している。

(18) 大船団に見まがふ夜光虫の大群の光景を想像してゐた。暗い海の、果てから果てまでキラキラと光ながら、帯のやうにくねり、そしてゆるやかに移動して行く紫色の微光を思ひ浮べたとき、私は心がすがすがしく洗はれるのを感じた。(桜 p.103)

(18)の「心が洗われる」は喜びを表わし、慣用的に穢れが取れて心が綺麗になる、良いものを見て心が爽やかになるなどの意味で使用されている。心は汚れたり綺麗になったりする<物>として捉えられ、それを洗ってきれいにするという比喩を用いて気分の良さを表わしている。

最後に感情別では、最も用例の多いものは「嫌悪」である。嫌悪は不快な感情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ため、用いられる部位も広い範囲に渡る。その中で顔が多く用いられ、主に笑いで表現されている。

- (19) 私は思はず、吉良兵曹長に話しかけてゐた。「吉良兵曹長。私も死ぬなら、死ぬ時だけでも美しく死なうと思ひます」残忍な微笑が、吉良兵曹長の唇にのぼつた。(桜 p.110)
- (20) 手榴弾ははたして発火しなかつた。私は苦笑した。私にらくな一瞬の死すら与へない運命の皮肉が何となくおかしかつた。(俘 p.77)

(19)は美しく死ぬという言葉に対する否定的な態度を「残忍な微笑」で表現している。(20)は自殺が失敗し楽に死ぬこともできない自分の運命に対する気持ちを「苦笑い」で表現している。次に用例の多く得られた悲しみは、涙を用いたものが最も多く、それ以外では顔の表情であったり内臓の痛みの表現がある。

- (21) 死体をもたせかけた栗の木の、幹の中程に、今年初めてのつくつく法師が、地獄の死者のやうな不吉な韻律を響かせながら、静かに、執拗に鳴いてゐたのだ。突然焼けるやうな熱い涙が、私の臉のうちにあふれて来た。(桜 p.114)
- (22) 私はすでに日本の勝利を信じてゐなかつた。(中略)奴隷のやうに死に向かつて積みだされてゆく自分のみじめさが肚にこたえた。(俘 p.58)

(21)は兵士の死に対する悲しみである。「焼けるやうな熱い涙」や「あふれてきた」という言葉で大きい悲しみを表現している。(22)の「肝にこたえる」という慣用句の「肝」は「心」のことであり、「心に強い衝撃を受ける」という意味で使われる。痛みで悲しみの大きさを表現している。次に用例の多い恐怖は6か所の部位を用いて表現されている。部位が異なっても身体の状態はどれも体温低下であるのが特徴的である。我々の体は恐怖を感じる時早く動こうとするために血管が収縮するためである。血管の収縮は体温を低下させる。

- (23) 「村上兵曹。死ぬのはこはいか」「どうでもいいです」「死ぬことが、こはいだらう」瞳の中の赤い血管まではつきり見えるほど、私は彼の顔に近づいた。酔ひが私を大胆にした。私は、顔の皮が冷たくなるやうな気持ちで、一語一語はつきり答へた。「私が、こはがれば、兵曹長は満足するでせう」(桜 p.109)
- (24) 吉良兵曹長は、刀身に見入つてゐた。不思議な殺気が彼の全身を包んでゐた。彼の、少し曲げた背に餓えた野獣のやうな眼に、此の世のものでない兇暴な意志を私は見た。(中略)眼を大きく見開いたまま、血も凍るやうな不気味な時間が過ぎた。(桜 p.120)

(23)では身体部位の顔を用いて顔の皮が冷たくなるという皮膚感覚で表している。(24)では血管の収縮によって感じる体温低下を「血が凍る」で表している。

#### 1.4 身体の部位別・状態別表現

身体・身体部位の状態で表現された用例全てをまとめたものが[表5-5]である。部位別に分類し、下位分類は状態別の分類である

身体部位を用いた表現は、血管の収縮と膨張による体温低下や上昇、血の流れの滞りによる酸素不足と筋肉や内臓の収縮からおこる痛みや苦しみなどから作られたものである。これら以外では、笑いや涙、歯ざしりなどの行為で表現されている。

まず、部位別にみていく。「頭」は「かきむしる」という行為で絶望を表わしている。顔は内部の感情が表われる表面であり、表情で表わしたものが多。表情の笑う行為は嫌悪の感情のみでみられる。「目」も顔と同様、感情の表われる部位であるが、顔と異なる点は目は感情の表出する表面ではなく感情の入っている容器として描かれていることである。また、泣く行為や涙も用いられ、それは主に悲しみを含む感情で使われている。「歯」は「歯をくいしばる」と「歯ざしり」という慣用表現が得られ、負の感情で主に用いられている。しかし、正の感情である愛好でもみられ、愛情という感情は感情主体に苦しさを与える感情であることが表現にも表われている。

「背」と「足」は恐怖で用いられ、背は慣用的に「戦慄が走る」という体温低下の表現、足も「足がすくむ」という恐怖を表わす慣用句が用いられている。「体」では、感情による身体の反応である体温上昇(興奮)や低下(驚き・恐怖)の表現がみられる。「内臓」は肝と腸であるが、これらは臓器としてではなく「心」と同様の意味で用いられる<sup>66)</sup>。しかし、我々は心と肝や腸は異なって認識していることが使用例からみてとれる。肝と腸は我々の体内にあるもの、つまり臓器である。心は臓器のように現には存在しない。そのため、内臓の一部と捉えるのではなく、<容器>または<物体>として捉えている。例えば、「心の中」「心にひび」「心が洗われる」などは、心は容器、または物体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表現である。存在しないものを理解するために比喩で心を形作っているのである。

66) 『大辞林』では「肝」は「[古く、魂のあるところと考えられたことから] ころ。」とあり、『大辞泉』では「腸」は「心。精神。」とある。

【表5-5】 身体部位別表現

表現方法	身体部位	感情	状態		
身体 の 状態	頭	絶望	頭をかきむしるやうな絶望		
	顔	笑い	嫌悪	苦い笑い・苦笑した・笑い声が上がった・声は笑つてゐたが顔は笑つてゐなかつた・残忍な微笑が唇にのぼつた	
		色	緊張	緊張の色が走つた	
		表情	安堵	妙な表情が顔に現はれて消えた	
			驚き	表情を失つた	
			悲しみ	憐憫にあふれた顔・表情が硬はつて来る	
	状態	嫌悪	私の顔はゆがんだ		
	目	泣く	恐怖	顔の皮が冷たくなるやうな気持	
		涙	悲しみ	虫のようにしくしく長いこと泣いてゐる 熱い涙が私の顔のうちにあふれて来た・涙の玉が流れ落ちる	
			混合	熱い涙が私の眼から流れ出た・涙だけが次から次へ顔にあふれた	
	色	嫌悪	憎悪の色が眼にみなぎつた		
	歯	愛好	愛好	歯を食ひしるやうな気持	
		恐怖	恐怖	歯の根も合わぬやうな畏れ	
		不安	不安	歯ぎりりするやうな気持	
		嫌悪	嫌悪	歯ぎりししたくなるやうな不快な思ひ出	
	背	恐怖	恐怖	背筋を走りぬけた戦慄	
	足	恐怖	恐怖	足もすくむやうな激烈な音	
	体	身体反応	興奮	興奮	全身が熱くなるやうな気・全身をふるわせてゐた
			驚き	驚き	総身に冷水を浴びせかけられたやうな気持・異常な戦慄が、頭の上から手足の先まで奔つた
			恐怖	恐怖	ぞっと身をすくませるやうな笑い・戦慄した
		隠喩表現	喜び	喜び	自由のはばたきに誘われている私
			悲しみ	悲しみ	彼のからだにその僚友の死臭をかくやうにさへ思つた
			怒り	怒り	何物に対してつかみかかりたいやうな気持
	嫌悪	嫌悪	しつとりと重い鎖でつながれていた		
	血	恐怖	恐怖	血も凍るやうな不気味な時間	
	肝	悲しみ	悲しみ	みじめさが肝にこたえた	
	腸	緊張	緊張	腸に木の杭を突込まれた	
	心	喜び	喜び	心がすすがしく洗はれるのを感じた	
		安堵	安堵	心の傷を妙な具合に治癒して呉れた	
		悲しみ	悲しみ	心の中に何かがつれ落ちて行くのを感じながら	
		嫌悪	嫌悪	私の心に罅がはいつて来る	
	息・呼吸	緊張	緊張	息づまるやうな混乱した緊張感・息苦しさをおぼえた	
嫌悪		嫌悪	息が苦しくなつた・呼吸がつまるやうな気がした		

2. まとめ

本章では、戦後すぐの作品を対象に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考察した。対象作品から得られた用例は107例で、混合を除く14の感情「喜び・愛好・安堵・興奮・緊張・驚き・悲しみ・怒り・恐

怖・不安・絶望・恨み・嫌悪・後悔」が見られた。嫌悪を表わす比喩表現が最も多く、次は悲しみ、そして恐怖と続いた。表現方法は、感情を類似点から作り出す直喩や隠喩が56例、身体の状態を表わした換喩表現が51例見られた。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に関しては、使用が多かった〈感情は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では、興奮は〈液体〉より〈気体〉と認識され身体外部に出ていくもの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次に〈感情は生物である〉も使用が多く、感情は体の中で生まれ、動き回るものという認識である。次に多くみられたものは〈感情は固体である〉である。〈固体〉とはただの物体として捉えた用例も多いが、感情のイメージと類似したものに置き換えたものもある。例えば不安は「信管のついた弾薬」などがある。同数の〈感情は攻撃性のあるもの〉という認識は負の感情のみでみられ、攻撃による痛みは突かれる痛みで表現されているものが多かった。

感情を身体の状態で表現した換喩では「顔」が最も多く、特に、笑いで嫌悪を表わしたものが多かった。感情で特徴的であったものは、恐怖の感情である。6個所の身体部位を用いた用例がみられたが、すべて体温低下で表現されたものであった。身体部位で特徴的であったものは「心」である。心は身体の一部と捉えているより、容器や物体として捉え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最後に本章の考察対象である戦後作品の特徴をまとめると次のことが挙げられる。戦後の作品は敗戦直前の戦場での体験を基に戦後すぐに書かれた作品である。これらは発表前には占領軍の検閲があり、戦中とは違った制約があった時期である。占領軍の目的は戦争への罪悪感を国民に持たせることであったといい、それが影響しているのか、戦場でのつかの間の楽しさや祖国を思う追憶の気持ちの用例が得られなかった。追憶の気持ちは読者が兵士に同情をしてしまうこともあるため、削除され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また、戦いへ挑む興奮が少ないこともその影響のひとつ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表現の特徴としては、多くの感情が〈生物〉に喩えられているのが目立ち、感情と生物の類似性から導き出した様々な種類の生物に喩えられていた。「感情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もの」という認識よりは、感情を擬人化したり、「主体とは違う未知であり外部のもの」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のが特徴だといえる。また、感情を〈固体〉に喩えている表現が多かった。これらも生物と同様に各感情と〈固体〉の類似性から導き出した表現が豊富になり、表現の幅が広がってい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身体部位は、「背」と「足」はあまり使用されず感情との関係が薄い部位であるが、用いられる場合は主に恐怖を表わすときである。また、「体」は状態のみならず、置かれている状況を文全体の比喩で表わしたものが数例みられた。用例全体をみてもこの文脈の比喩といわれる文章全体が比喩になっているものがかつかみられ、単に感情単体を類似しているものに置き換えて表現するのではなく、文章全体を用いた比喩表現が多いというのが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

## VI. 戦後作品の比喩表現 2 (1958~69)

本章での考察の対象は、第6巻に収録されている戦後に発表された4作品から収集した比喩表現である。4作品は、大江健三郎の「人間の羊」(1958)<sup>67)</sup>、城山三郎の「大義の末」(1959)<sup>68)</sup>、開高健「輝ける闇」(1968)<sup>69)</sup>、石原慎太郎「待伏せ」(1969)<sup>70)</sup>である。これらの作品の作者は終戦時に10代であり、第二次世界大戦の戦場体験はないが連合軍に占領されていた日本での生活を経験している。「人間の羊」と「大義の末」は敗戦後の日本の様子を描き、「輝ける闇」と「待伏せ」はベトナム戦争が題材となっている。その中で、開高健の「輝ける闇」のみ作者がベトナム戦争の取材のためベトナムに赴き、そこでの体験が基に描かれたものである。

次の[表6-1]は作品別に収集した用例数を感情別にまとめたものである。

[表6-1] 作品別感情の比喩用例数 [個数(%)]

	感情	人間の羊	大義の末	輝ける闇	待伏せ	合計	
正	喜び	0	4 (4.6)	2 (1.9)	0	6 (2.4)	29 (12.0)
	愛好	0	8 (9.3)	1 (0.9)	0	9 (3.7)	
	安堵	3 (7.6)	3 (3.4)	1 (0.9)	0	7 (2.9)	
	楽し	2 (5.1)	2 (2.3)	3 (2.9)	0	7 (2.9)	
正負	追憶	0	2 (2.3)	5 (4.9)	0	7 (2.9)	36 (14.9)
	興奮	3 (7.6)	5 (5.8)	14 (13.8)	0	22 (9.1)	
	緊張	0	2 (2.3)	0	1 (6.6)	3 (1.2)	
	驚き	1 (2.5)	3 (3.4)	0	0	4 (1.6)	
負	悲し	2 (5.1)	7 (8.1)	20 (19.8)	0	29 (12.0)	173 (71.7)
	怒り	11 (28.2)	27 (31.3)	11 (10.8)	1 (6.6)	50 (20.7)	
	恐怖	5 (12.8)	1 (1.1)	19 (18.8)	12 (80.0)	37 (15.3)	
	不安	0	3 (3.4)	3 (2.9)	1 (6.6)	7 (2.9)	
	絶望	0	0	1 (0.9)	0	1 (0.4)	
	恨み	0	1 (1.1)	3 (2.9)	0	4 (1.6)	
	嫌悪	2 (5.1)	13 (15.1)	16 (15.8)	0	31 (12.8)	
	悔し	0	1 (1.1)	0	0	1 (0.4)	
	後悔	0	1 (1.1)	0	0	1 (0.4)	
	恥	8 (20.5)	2 (2.3)	2 (1.9)	0	12 (4.9)	
混	混合	2 (5.1)	1 (1.1)	0	0	3 (1.2)	
	計	39 (100)	86 (100)	101 (100)	15 (100)	241(100)	

67)主人公はバスの中で酔っぱらった外国兵に下半身を裸にされ、ナイフで尻を叩かれる屈辱を受けるが抵抗できない。その屈辱を訴えようという教員の申し出を断ると、次はその教員に恨まれる。短編小説。

68)「大義」に書かれていることを守り、天皇に身を捧げることを誇りに思って死んでいった若者たち。それを身近に見ていた主人公が戦後の天皇制の変革について悩み苦しむ。長編小説。

69)ベトナム戦争を取材する主人公の視点で書かれた長編小説。ベトナム人やベトナムに滞在している人々との会話や生活が中心に描かれている。最後はアメリカ兵たちと一緒に行動し、攻撃を受け逃げきる様子が描かれる。

70)暗闇の中で敵を待ち伏せする様子のみが描かれている。戦争における暗闇への恐怖が描かれた短編小説である。



用例の正の感情は「喜び・愛好・安堵・楽しさ」の4種類、正負の感情は「追憶・興奮・緊張・驚き」の4種類、負の感情は「悲しみ・怒り・恐怖・不安・絶望・恨み・嫌悪・悔しさ・後悔・恥」10種類の全18種類である。そして、これらの感情に2つ以上の感情が混じり合った「混合」を加える。

4作品全体の比喩表現は全241例で、最も多い感情は怒り(20.7%)である。次は恐怖(15.3%)、嫌悪(12.8%)、悲しみ(12%)と続く。作品別で最も多くの用例が得られたのは長編の「輝ける闇」で、悲しみ(19.8%)が最も多く、次に恐怖(18.8%)と続く。次に多く得られた「大義の末」では怒り(31.3%)が最も多い。この作品は長編であり、感情も幅広く得られたが用例数は怒りに偏っている。次は短編である「人間の羊」であり、最も多い感情は怒り(28.2%)で、次に恥(20.5%)である。比喩表現が少なかった短編の「待伏せ」では、恐怖(80%)が多くを占める。

## 1. 感情別比喩表現の分類と分析

本節では、得られた比喩表現を18種類の感情別に分類し、用例と共に考察を行う。以下、例文の作品表記は「人間の羊」は「人」、「大義の末」は「大」、「輝ける闇」は「輝」、「待伏せ」は「待」とする。

### 1.1 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

感情の概念である喩辞の使用回数をまとめたものが[表6-2]であり、用例数は全126例である。大きな項目では<容器液体>が最も多く、次に<生物>、そして<固体>と続く。<方向性>の項目が他の戦争文学作品と比較すると多くなっている。

[表6-2] 喩辞使用回数

感情	方向性	容器液体		攻撃性	生物		固体		自然物・現象			空間	計
		液体	気体		動生物	植物	物	飲食	火	病・菌	他		
喜	1						1	1					3
愛		3			2		4						9
安		1			2								3
楽		1											1
追		2			1		1						4
興	1	2	5		4	1	2			1			16
緊													0
驚		1											1
悲	1	2		2	4	1	3						14
怒		4		2	6		2		2		1		17
恐	6	3		3	5		8	1				1	27
不		2					1				1		4
絶													0
恨					1			1					2
嫌		6	1		1		4	2					14
悔		1											1
後					1								1
恥		3				1	3		1	1			9
混	1	1											2
計	10	32	6	7	27	3	29	5	3	2	2	1	126
		38			30		34		7				

小さな項目では、感情が＜液体＞が最も多く、負の感情から正の感情にかけてみられる。＜感情は液体＞という認識に変化はないが、＜感情は身体や心、胸に湧く液体＞という単純なものではなく、様々な表現が用いられる。

- (1) ふいに激しい寂寥を私はおぼえる。心臓のまわりにとつぜん暗い海がわきあがってのしかかってくる。(輝 p.272)
- (2) 僕は恐怖がさめて行くのをあつけにとられて感じていたが、外国兵の思いつきは僕に伝わってこないのだ。 (人 p.47)
- (3) にぶく、かつ強力な恐怖がそこによどみ、冷嘲するようにうずくまっていた。(輝 p.276)
- (4) 狼狽のあとから、焼けつく羞恥が僕をひたしていった。(人 p.48)

(1)は悲しみの表現である。「心臓のまわりにとつぜん暗い海がわきあがってのしかかってくる」と、悲しみの感情を「海」に喩えている。「暗い」や「のしかかってくる」によって不快な感情を表わしている。「心臓のまわり」とは心臓に苦しみを伴う様子の描写であると考えられる。(2)の「恐怖がさめる」は「覚める」ではなく「冷める」の意味である。冷めるは料理などに使われるが「熱い物、特に液体の温度が自然に下がる（『日本国語大事典』）」という意味であるため、この喩は液体に分類でき

る。恐怖の感情が落ち着いてくるという意味で使われている。(3)の「よどむ」は空気や液体が動かない様子である。恐怖が固体として「にふい」や「強力」と形容されているのに加え「冷嘲するようにうずくまる」と生物にも喩えられており、ひとつの文章の中に<固体>と<生物>と<液体>の概念が含まれている複雑な表現であり、分かりやすさより修辞性を感じさせる。(4)は「僕を浸す」と恥ずかしさを<液体>の概念を用いて表現している。この感情の液体の中に自分を浸すという表現は戦後(一)でもみられた表現である。しかし、ここでは液体に喩えられた感情がさらに「僕をひたしていく」と意思をもった生物かのように表わされている。また、羞恥による体温上昇を「焼けつく羞恥」と熱い物に喩え、それが意思を持った液体のように感情主体に影響を与えている。これも恥ずかしさを<固体>と<液体>と<生物>の概念で表現している比喩である。次に、液体ではなく気体に喩えられたものである。本対象では興奮以外に嫌悪の感情でも<気体>の概念がみられる。

(5) 戦争が始まった。(中略) これまでになく彼は自身を抑制していたが、激しく冷たい力はこぼれて強大な肩からたちのぼった。(輝 p.290)

(6) 憎悪は彼らの薄い肩から発散して原野を蔽う。(輝 p.286)

(5)は<液体>と<気体>の概念がみられる。「こぼれる」ものは液体、「たちのぼる」ものは気体である。(6)の「発散」とは「内部のものが外部に散らばり出る」という意味である。よく使われるものには匂いやストレスがあり、実体のないものに用いられるため、嫌悪も体から出る実体のない気体であると捉えることができる。次に、本対象でのみみられた空間として用いられた感情である。恐怖の感情を空間として捉えたものである。

(7) 俺一人でなくもう一人の人間と一緒にこの恐怖の中にいることを確かめ直し、それを分ち合えた。(待 p.314)

(7)の場面は暗闇の中にある恐怖を描いているものであるが、今までの用例では身体を空間とし、そこにあるものが感情であった。しかし、本対象では恐怖を空間としてその中に人間がいるという描写である。戦後(一)でみられた「容器の中にある液体に身を浸す」と類似した表現である。

続いて多かったものは<動生物>の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動生物では自身ではコントロールができない感情の一面を用いた表現が正から負の感情に渡って多く用いられている。特に恐怖や怒りで多く用いられている。

- (8) せまい血管を破らんばかりに、怒りが体中を駆けている。(大 p.66)
- (9) あらためて本文を読みかえてみると僧は《戦争》という単語をたった二回しかだしていないことに私は気がつく。遺棄された人のあてどない憤怒と諦観が忍耐のなかで争いあっている。(輝 p.239)
- (10) 怨恨が静止を憎む彼を解放したかのようであった。(輝 p.292)
- (11) ふいに激しい寂寥を私はおぼえる。(中略)手と足を寝床のなかに縫いつけられ、ぴくりともうごくことができず、そのまま膚の内部を落ちていく。とどめるすきもない。(輝 p.272)

(8)は身体内の怒りの感情が生物のように体の中を駆けていると描写されている。「血管を破らんばかりに」という表現で怒りの強さを表わしている。(9)は「争いあっている」と身体内で意思のある怒りの感情の行動を描いている。(10)は恨みの感情が「彼を解放したかのよう」と意思のあるもののように感情主体である彼の行動を抑制し解放している様子を描いている。(11)は寂しさが意思のある生き物のように自分の体を動けなくし、体内に入ってくる様子を描いている。感情は内部ではなく外部にいる生き物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次に、動生物以外では植物に喩えられた比喩もみられる。植物は大抵身体内で育ち大きくなって外に出ていくという認識を持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

- (12) 書棚を蔽いつくさんばかりに、まるで原生林のように老人の体軀は店内いっぱいに充滿していた。激情と暗愁が本や天井に触れて音をたてそうになっていた。(輝 p.267)
- (13) 眼をつむって肥田に従っておかなかったと、新しい悔いが萌してくる。(大 p.149)

(12)は全文が比喩表現になったもので、自分の話をする老人の様子、興奮を描いたものである。老人の体軀とは老人の気迫や気持ちのことであり、それを原生林のようだと喩えている。店内にたくさん生い茂り、天井まで伸びている様子で老人の気持ちの強さと大きさを表現している。(13)の「萌す」とは草木が芽を出すという意味で、現在は「兆す」と表記される。悔しさが芽を出すという意味になり、感情が植物に喩えられた比喩である。

続いて多いものは<感情は個体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正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多く見られ、それらは感情の持つイメージによって様々な物に喩えられる。物としての重さの側面であったり、持つ物や包むという用途であったり、崩れるや研ぐなどと共起させた物体であったり、感情と物の類似点から様々なものに置き換えられる。

- (14) 柿見の抱いていたかちんとした親愛感は、幾倍、幾十倍にうすめられ拡散されて、とりとめもなくふやけ

てしまった感じである。(大 p.146)

- (15) いくつものエンジンの唸りが聞え、鋼鉄の重量物がうごきまわったり足踏みしたりしている気配があり、不安はヒリヒリする量となって蛍光灯のまばたきにも、オレンジ・ジュースの苦い後味にもあった。(輝 p.291)
- (16) あてどない嫌悪が酔のように咽喉までつまり、誰かが寄ってきて息を吸っただけで私は崩れてしまいそうだった。(輝 p.230)

(14)親愛感は「ふやけてしまった」と表現され、感情が液体の中でやわらかくなる物に喩えられている。同文内で「うすめられる」とも表現され、＜液体＞の概念と＜固体＞の概念が1文の中に含まれている。(15)で「不安はひりひりする量」とあり、それは蛍光灯のまばたきの中にあるものと描かれている。「ひりひりする」は大抵皮膚の痛みを述べる際に用いられ、「量」は目で見える光の輪のことを指す。この表現は視覚でとらえるものを触覚に使われる言葉で形容している共感覚表現である。実際には害のない「量」に痛みを追加することで不快な感情に変化させている。また、不安はオレンジジュースの中にもあるものと書かれており、ここでは味覚が用いられている。3種類の感覚を用いた比喩表現である。(16)では嫌悪が「酔のように咽喉までつまり」と酔に喩えられている。これは刺激のあるものが喉の辺りにあるという不快な身体の状態から作られた比喩表現であろう。

最後に、＜感情は攻撃性のあるもの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用例は少なく感情も少ない。孤独(悲しみ)の用例を1つ提示する。

- (17) 孤独が靴のなかからふくらはぎをつたって這いのぼり、腹をおそい、胸をおそい、運河へ沈みつつあるような感触が全身にひろがった。(輝 p.216)

(17)は文全体が比喩になっている文脈の比喩である。孤独という寂しさが意思のある生物のように体をつたって登ってきて攻撃をしている。攻撃的な言葉の「襲う」を用いて強い悲しみを表わしている。孤独による不安なども含まれている比喩である。

## 1.2 喩辞と被喩辞

次に、直喩と隠喩を分類したものが次の[表6-3]である。表には左から概念メタファー、喩辞(概念)、被喩辞(感情)、喩辞を導き出す根拠となる表現を示す。

＜方向性がある＞の項目は、感情の程度を表わしている。感情は様々な形容詞を用いて表現されており、感情は物質のように大きさや重さ、濃さなどがある。＜容器の中の液体＞では、感情は体内

で液体のように湧き出て、容器を満たし、溢れ出るものである。〈液体〉という認識によって、沁みたり、にじんんだり、うすまったりし、また、海などにも喩えられている。興奮と嫌悪には〈気体〉が連想できる用例があり、特に興奮は〈液体〉より〈気体〉としての認識が強い。また、我々は感情は身体の中にあるものという認識を持つ。本対象では「恐怖の中にいる」と感情のなかに身をおいているものがみられた。これは感情を空間として捉えたものである。これと類似したもので、「水（感情）の中に身体を浸す」という比喩もある。これも〈液体〉である感情の中に主体が横たわっている様子である。今まで感情が身体内部にあるという認識であったが、今回のような感情の中に感情の持ち主である主体が入り込んでいる表現がみられたのは戦後(一)からである。本対象でみられた感情を空間として捉えてその空間に居るという表現は初めてであり、感情の概念に追加がみられたと考えてよいだろう。次に、〈感情は攻撃性があるもの〉には、負の感情である悲しみ、怒り、恐怖がみられる。負の感情は身体でも苦しみや痛みが出やすいため感情を攻撃的なものに喩えた比喩表現が用いられる。「感情に襲われる」が多く用いられていたが、それ以外には「つきあげる」や「しめつける」などと共起させ、感情による主体への攻撃が描かれている。また、本対象では攻撃性のある個々の生物やヒトではなく「恐怖に処刑される」という組織的なものの行動を用いた表現もある。個々のものに喩えるよりもさらに自分とは遠く離れた存在、第3者的存在に喩えた表現であるといえる。時代の流れとともに感情を身体外部のものとして捉える感情と身体が分離した表現が好ま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次の〈生物〉の項目はコントロール出来ない感情の一面を表現したものである。自らの意思で行動をするものは〈動物〉とし、体の中で動き回るものであったり、外部から侵入するもの、体に何らかの影響を与えるもの、外部にいるものであったりと様々である。また、生物の項目では〈植物〉の認識もみられた。「毒の芽」や「原生林」に喩えられている。植物は意思のあるものではないが、コントロールできるものでもないという側面が感情の抑制できない部分に合致している。続いて〈固体である〉の項目は、感情を意思の持たないものに喩えたものである。感情は抱える物であったり、崩れる物体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また、負の感情は重荷など重いものとして認識もされている。そして、感情はしばしば飲食物にも喩えられるが、特に恨みは呑み込むもの、恐怖や嫌悪は喉につまるもの、喜びは味わうものなどと感情ごとに表現が分かれている。

最後に、感情別に特徴的なものを述べると、怒りや恥は「火」の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ことである。さらに、本対象の特徴としていえることは、抽象的な感情を抽象的なものに置き換えていることである。感情を光りの量やウイルス、形のないもの、音に込めるものなどに喩えている。「感情はウイルスである」は、感情は相手に伝染することから感情のある一面を捉えたものであるが、「感情は量である」というイメージは想像し難い。また、「感情に形をあたえてくれていた」などは「感じた」という言葉を飾った表

現で、分かりやすい表現をあえて避けた修辭的表現だといえる。

[表6-3] 喩辭別分類表 (その1)

表現方法	喩辭 <概念>	被喩辭 <感情>	喩辭を導き出す根拠・類似性
方向性がある	軽い	喜び	軽快な感じ
	淡い	混合愛憎	愛憎が淡い
	深い	悲しみ	深い哀惜
	小さい	恐怖	小さなおびえ
	冷たい		冷たい恐怖、恐怖はいつも冷たい、恐怖もいつも冷たかった
	強い	憎悪	冷めるような憎悪
	濃い	恐怖	強力な恐怖 濃く確かな恐怖
容器の中の 液体である	湧く	楽しさ	おかしさがこみ上げてきた
		愛好	親愛感が湧いてくる
		追憶	湯のようにわきあがってきた
		不安	不安と悔いとは交互に湧いてきた・こみあげてくる不安
		嫌悪	不満が湧いた
	噴く	恥	羞恥がむらむらこみあげ
		怒り	怒りは噴き上げてくる
	満ちる	嫌悪	憎悪に噴き上げられるように
		興奮	威圧感を身にみなぎらせて
		驚き	驚きにみちた表情
		嫌悪	憎しみにみちて・憎悪にみちて・侮辱をみなぎらせ
	溢れる	恥	汚辱をみなぎらせて
		追憶	懐かしさが溢れる
		興奮	激しく冷たい力はこぼれて
	広がる・しみる ・にじむ	怒り	腹だちがもりあがってきた
		悲しみ	骨への酸のようにしみてくる
		怒り	苦りがじみだした
	よどむ	悔しさ	心情がにじみ出していた
		混合怒悲	苛だたいしい哀しみがひろがってきた
	冷める	恐怖	強力な恐怖がそこへよどみ
		興奮	昂揚がたちまち冷却していき
	混ざる	恐怖	恐怖がさめていく
	うすめる	安堵	安堵がまじりあつた
		愛好	親愛感はうすめられ
		怒り	怒りに怠慢が射している
	水	恐怖	恐怖に私を浸した
		恥	羞恥が僕をひたしていった
		悲しみ	暗い海がわきあがって
	海 波	愛好	顔に輝かしい淡い波がただよい
		気体	興奮
嫌悪	憎悪は彼らの薄い肩から発散して原野を蔽う		
空間である	空間	恐怖	もう一人の人間と一緒にこの恐怖の中にいる
攻撃性がある	攻撃性の あるもの	悲しみ	這いのぼり、腹をおそい、胸をおそい・凶暴なまでの孤独が 胸へつきあげてきた
		怒り	苛だちにおそわれた・苛だちと怒りにおそわれた
		恐怖	暗闇からのしかり、しめつけてくるもの・恐怖が咽喉をしめ つける・同じ恐怖に処刑される

[表6-3] 喩辞別分類表 (その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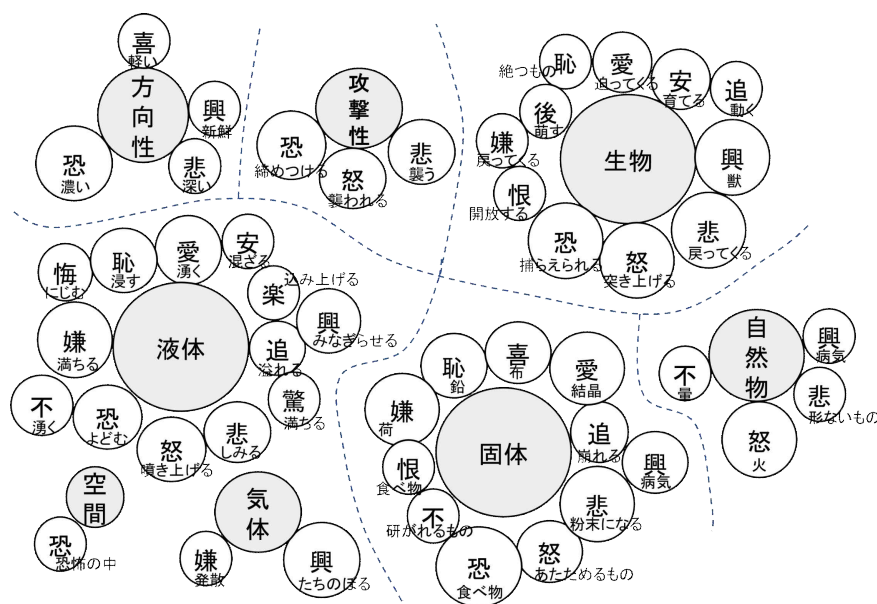
表現方法	喩辞 〈概念〉	被喩辞 〈感情〉	喩辞を導き出す根拠・類似性
生物である	動生物	愛好	強く胸に衝き迫ってくる、信愛感・烈しく迫ってくる親しみ
		安堵	弱々しい安堵・みじめな安堵の感情を育てる
		追憶	懐かしさもうごかなかった
		興奮	衝動に駆られる・渴望がびくびくうごいた・欲情は汗の群れに蔽われて倦怠へしりぞいていった・無数の小さな獣が群れて嘯みついたり、叫んだりするようであった
		悲しみ	悲しみと憤りが胸にもどってくるようであった・深い哀惜が眼にゆっくりと起きあがってきて・手と足を寝床のなかに縫いつけられ・毛孔から侵攻し
		怒り	腹立ちがまた戻ってきた・怒りが体中を駆けている・怒りがこめかみに突き上げてくる・憤りが胸に戻ってくる・叫び出した衝動が突き上げてくる・憤怒と諦観が忍耐のなかで争いあっている
		恐怖	小さなおびえにとらえられた・恐怖が後頭部のあたりへしりぞぎ・強力な恐怖が冷嘲するようにうずくまっていた・さからいようのないおびただしいものはそこまで迫りながら壁にさえぎられて足踏みし・死は靴からも去り、寝床からも去った
		嫌悪	にくしみがすばやく戻ってきた
	恨み	怨恨が彼を解放したようであった	
	植物	興奮	屈辱が毒の芽をあたりかまわずふきだし始めて
		悲しみ	まるで原生林のように激情と暗愁が本や天井に触れて音をたてそうになっていた
		恥	
		後悔	新しい悔いが萌してくる
	個体である	物体	愛好
追憶			甘く崩れようとする気分
悲しみ			感情は崩れ・おびただしいものが私の内部で粉末になった
怒り			怒りのやり場にとまどっている・怒りにあたためられ
恐怖			おびえを抱き・不安が恐怖に研がれていく・恐怖をかわす・一人で抱えているかもしれないものを彼に向かって放り出す・恐怖だけが背中の上に残っている・にぶい恐怖
不安			不安が恐怖に研がれていく
嫌悪			胸にうっくつしているものを吐き出さねば、その荷の重さで倒れそう・みじめな気持ちを扱いかねている・新鮮な欲情・あざやかな憎悪
恥			屈辱を胸に抱えこむように
石・鉛		恥	屈辱が石のようにかたまり・屈辱が鉛のように重くかたまって
布		喜び	解放感に包まれた
		興奮	居たたまれぬような焦燥につつまれた
敷物		嫌悪	憎悪を敷きつめる
		喜び	苛烈な爽快はふたたび味わえない
食べ物		恐怖	胃を重くし硬くした・恐怖が胸につかえ、吐きそうになった
	恨み	恨みをのんで死んでいる	
	嫌悪	嫌悪が酔のように咽喉でつまり・幻滅を味わう	



[表6-3] 喩辞別分類表 (その3)

表現方法	喩辞 〈概念〉	被喩辞 〈感情〉	喩辞を導き出す根拠・類似性
自然物・ 現象である	火	怒り	花火のようなきらめき・憤怒が彼の瞳をキラキラ輝かせていた
		恥	焼けつく羞恥
	形ないもの	悲しみ	恐怖やさびしさに形をあたえてくれていたもの
		恐怖	
	暈(かさ)	不安	不安はヒリヒリする暈となって
	病気	興奮	危険な伝染を避けるため
恥		羞恥が熱病の発作のように	
音に込めるもの	怒り	音には憤怒がこめられているようでもあった	

次の [図6-1] は、前述した概念メタファーとそれによって表現された感情（被喩辞）を星図に散りばめたものである。本対象は用例も多いため、星図も大きく散りばめられた感情も多い。



[図6-1] 喩辞と被喩辞星図

〈液体〉の概念をもつものが最も使用数が多く、使われた感情の種類も多い。しかし、〈生物〉も〈固体〉も使用数も多く、感情も多くなっている。これら〈液体〉と〈生物〉と〈固体〉の3つの差はあまりないが、使われる感情に少しの差がみられる。〈液体〉では嫌悪が少し大きい。これは用例が多いためである。〈生物〉では、興奮と悲しみ、怒り、恐怖が目立つ。これらの4つの感情は抑制が難しいもの、また、主体にとって悪い影響を与える感情としての意識が強いためであろう。〈固体〉では恐怖の星が最も大きい。悲しみや恐怖、嫌悪も大きい。これは〈固体〉に喩えられる場合、その感情のもつイメージに当てたものに喩えることができ、様々な表現を作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もう一つの特徴として〈攻撃〉の概念の使用が少ないことである。悲しみや恐怖などの強い感情は〈攻撃〉

が用いられる。本対象でも悲しみと怒りと恐怖で用いられているが、用例数は多くない。悲しみは<生物>、怒りは<生物>と<もの>、恐怖は<もの>に喩えた用例が最も多くなっている。これは<強い感情は攻撃性がある>という認識が当然になり、比喩としての珍しさが失われてしまい修辞要素の強い現代の作品では使われなくなっ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

### 1.3 身体の状態を用いた表現

身体部位ごとに使用回数をまとめたものが[表6-4]である。用例数は全115例、身体部位は全12部位で、「顔・目・口・唇・胸・腹・足・体」、そして、身体外部の「皮膚」、身体内部である「内臓・血・心」である。身体部位の使用は「顔」と「目」が最も多く、そして、「体」と続く。以下、使用回数が多い部位を中心に用例をみていく。

[表6-4] 身体部位別使用回数

感情	身体部位												計
	顔	目	口	唇	胸	腹	足	体	皮膚	内臓	血	心	
喜	2											1	3
愛													0
安					1			2				1	4
楽	6												6
追		2						1					3
興		5									1	1	7
緊	2		1										3
驚		2						1					3
悲	4	4		1				5	1			2	16
怒	6	11		2	1	11		2					33
恐				1			1	7		1			10
不	1				1			1					3
絶												1	1
恨													0
嫌	9	7	1									2	19
悔													0
後													0
恥								2				1	3
混		1											1
計	30	32	2	4	3	11	1	20	1	1	1	9	115

最も多く得られた「顔」は感情の正負に関係なく全体的に用いられている。嫌悪で最も多く用いられ、内容は笑いや色、状態など様々である。楽しさは6例すべて笑いで表現されている。怒りは赤い顔色や顔の熱さなどの表現がみられる。

(18) 「不幸な国、不幸な国」毛布のなかで彼は辛辣にせせら笑った。(輝 p.223)

(19) 記者たちがおなじ質問をすると某は顔を赤くして怒り、それはひどいデマだ、われわれとアメリカ人は徹底的にタムドンなのだといって追いかえた。(輝 p.205)

(18)は嫌悪の感情であり、「せせら笑う」とは相手を馬鹿にした笑いである。嫌悪は笑いで多く表現される。(19)は怒りにより血管が広がり顔が赤くなっている。身体の状態変化は強い感情によって起こるものである。

続いて「目」は怒りで多く用いられている。目の光りや熱、様子など幅広い表現がみられる。嫌悪も同様、目の冷たさや様子など表現が幅広い。

(20) 急に涙を両方の怒りにみちた眼からあふれさせた。(人 p.58)

(21) 彼女の小さな眼は愚かしく、あさましく、凄惨な光がこもっていて、正視できなかった。(輝 p.169)

(22) <やれやれ、また煮え切らぬ弁論がはじまる。ひとつ弥次り倒すか>と、聴衆たちは不味い腐肉を見る秃鷹の眼を壇上に送った。(大 p.88)

(23) 何個かの憎しみでよじれた眼がどこか物かげから私を注視していた。(輝 p.248)

(20)は「怒りにみちた眼」と怒りを<液体>、目を<容器>として捉えた表現である。目という<容器>のなかに怒りという<液体>が満ちているという比喻である。(21)は母親が怒っている時の目の描写である。同様に目を<容器>とし、その中にこもっている光によって怒りを表わしている。見ている人の視点で描かれているため、目の描写というよりも母親に対する描写である。母親を愚かで浅ましい人だという非難の気持ちからの描写である。(22)は嫌悪を持つ人々の目を「まずい腐肉を見る秃鷹の目」と喩えている。腐肉や秃鷹という言葉を用いることで嫌悪感を強く表現している。(23)は憎しみによって曲がってしまった心の状態を目で表現したものである。

次は首下の部位を用いた表現である。「胸」は前章の戦後1の作品に続き、使用は多くない。一方、「腹」は用例が最も多いが、怒りの慣用句「腹が立つ・腹立ち・腹を立てる」の使用のみである。「腹」は心や気持ちが入っているところ、「立つ」は「立ち上がる」から派生した激昂するという意味を持っている<sup>71)</sup>。

(24) 軀をならべて歩きつづける教員にただ絶望的に腹を立てていた。(人 p.57)

(24)は天皇の息子、皇太子と並んで歩いている姿を見ての怒りである。本対象ではこのように戦後の日

71) 「意味解説の読み物」参照。 <https://meaning-book.com/blog/20190910133623.html> (2022.03.01閲覧)

本への怒りが多く表現されている。続いて「体」は顔と同様に正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みられる。体で表現された追憶や悲しみ痛みで、恐怖は体温低下や震えて、怒りは熱で描写される。体の状態や変化で描かれる感情は身体に影響を強く与える感情であるといえ、「悲しみ・怒り・恐怖」の3つの感情はそれに当る。

(25) 私にはゆとりが生じ、どこか安堵していた。醒めることは遮断することであるらしかった。私は何かの隔壁のなかにあぐらをかいていた。さからいようのないおびたらしいものはそこまで迫りながら壁にさえぎられて足踏みし、弱まり、消えていく。(輝 p.250)

(26) ベーコン・エッグスを食べながら私はジョウンズ、パーシー、ヘインズの三人をふいに疼痛に似た懐かしさで思い出していた。(輝 p.290)

(25)の「あぐらをかく」は特に何もしないという意味である。安全な場所にいるという安堵の気持ちを状態で表現したものである。(26)は「痛み<sup>72)</sup>に似た懐かしさ」と喩えることで、苦しさのある懐かしさを表わしている。ふたつの用例は同じ追憶の感情であるが、用いられる言葉によって心地好い感情になったり痛みの伴う苦しい感情になったりする。

(27) 「原爆展をやった。その入口へ来てセガレが『こんなつまらぬものは見ない』と云ったんだ」横腹を蹴飛ばされたように、柿見はしばらく声も出なかった。(大 p.103)

(28) 急激な怒りに体を震わせて僕は教員を見あげた。(人 p.51)

(29) 体は凍りかけ、俺はおびえ怖れているが、今までの時とはなにかが全く違う。(待 p.311)

(27)は親愛する皇太子が言った言葉にショック(悲しみ)を受ける描写である。「横腹を蹴飛ばされたように」と痛みや「声が出ない」という表現で悲しみと感情による体への衝撃の強さを表わしている。

(28)は、震えるほどの怒りを表わしている。強い恐怖や怒りなどを感じる時我々の体には震えが起こる。この感情による震えは、ストレスによる自律神経の乱れから起こる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震えである<sup>72)</sup>。

(29)は恐怖で体が動かない様子を「凍る」で表わしている。

続いて「心」である。心も正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全体的に用いられている。

(30) 見る人が多ければ、あの少年像もよりひろめられよう。そうした正当化を試みかけた柿見の心は、次の森の言葉でひどく打ちこわされた。「それもあるが、ついて来るのが多いんだ。自動車三杯、それに

72) 怒りや恐怖などの強い感情は情動と呼ばれ、自律神経反応、内分泌反応などの身体反応も伴う。

護衛らしいのが目ざわりでね」武蔵野の中のH高とはちがい、都心にある名門のT大のことゆえ、随行者も護衛も多かったのではないか。(大 p.102)

- (31) 戦争はすでに次の戦争を用意しつつあった。男は絶望して三文小説を書きはじめ、金が入ると阿片窟へでかけるようになる。(中略)しばらくしてたちあがると彼は足音をしのばせて部屋をでていった。つつまやかで礼儀正しいその後姿は砕かれた心を肉に浸ませているにしては精悍であり、毅然としていた。(輝 p.243)

(30)は護衛を引き連れない皇太子を期待したが、その期待をうらぎられた残念な気持ちの描写である。心は期待感を指し、その期待が打ち壊されている。心が<固体>としての概念を持ち、それを打ち壊すことで悲しみや残念な気持ちを表わしている。(31)は戦争への絶望感を抱えている人の描写である。絶望感は「砕かれた心」と喩えられ、抱えているは「肉に浸(しみこ)ませている」と喩えられている。

次に感情別では、「怒り」の感情が最も多く、次に「嫌悪」、そして「悲しみ」と続く。「怒り」は目と腹を用いたものが最も多く、特に「腹が立つ」が多い。しかし、その他部位も6個所あり、用例の数に比例して他の感情より多くの部位が用いられており、怒りの感情といっても多数の部位で表現も認識も可能である。次に多い「嫌悪」の感情は、使用部位は4個所で顔と目に集中している。「悲しみ」は6個所の部位が用いられ、体が最も多く、次に、顔、目と続く。悲しみであるため涙や痛みが多く用いられるだろうと予想できるが、涙での表現は少ない。悲しみと涙という当然の組み合わせでの表現が好まれなくなってきたと考えられる。

#### 1.4 身体の部位別・状態別表現

次に、身体・身体部位の状態で表現された用例全てをまとめたものが[表6-5]である。部位別に分類し、下位分類として状態別の分類になっている。

部位別では、「顔」は笑いで表現したものが多く見られた。負の感情の嫌悪は笑いで表現されるということが特徴としてあげられる。顔の色と状態は血管などの収縮によって起こる体の変化を述べたものである。顔は内部の感情が表れる表面としての役割を担っている。身体内部に湧き出した液体(感情)が、水面(顔)に浮き上がってきているのである。「目」は顔と同様に感情が表われる部位であるが、顔と異なる点は目は感情の表出する水面ではなく感情の入った容器として描かれていることである。感情は目の中にある液体であり、ものでもある。また、目は見るものであるため「レンズ」に喩えられている。泣く行為や涙によるものは悲しみや興奮と怒りの感情、また、色や光、熱や冷たさなど負の感情で多く用いられている。目の冷たさや様子など表現が豊

富にみられる。「口」は舌打ちなどの行為で、「唇」は主に震えが用いられている。「胸」は拍動や体温上昇で表現されている。「腹」は怒りの感情のみで用いられている。「足」は恐怖で歩けない様子を表わす1例のみである。「体」は恐怖の感情が多くみられ、身体反応である体温上昇は怒りと恥、体温低下は恐怖、震えは怒りと恐怖、痛みは悲しみと追憶など我々が感情によって経験する身体反応がそのまま言語化されたものが主である。これら以外でも、安堵を体の軽さで表現したり、驚きを電気に打たれたと喩えたものもみられる。「皮膚」は体の一部がなくなることへの寂しさを描いたものに用いられている。悲しみは痛みを伴うことが多いため、「皮膚を剥がれる」という強い表現を用いたと考えられる。「内臓」は恐怖による異常であり、「血」は興奮による血流の増加を描いている。最後に「心」では、心拍数の増加による表現や、心を<物体>と捉え、壊したり重さなどで表現したものがみられる。また、<心は容器である>という表現もみられる。「心を開く」とよく使われるように心を容器として捉え、閉じていたものが開き、中にある感情があらわれるという認識を我々は持っている。

【表6-5】 身体部位別表現（その1）

表現方法	身体部位		感情	状態
身体部位表現	顔	笑い	喜び	顔が気持よくほころんでいる・満足の微笑が浮かんだ
			楽しさ	狂気の血にかりたてられるように笑いわめいた・発作のように激しく笑いとよめいた・物でも噴き出すように笑った・くすくす笑った・腹をかかえて笑いころげた・クスクス笑いながら
			悲しみ	陰鬱に微笑して
			嫌悪	被害者のほほえみ、弱々しく軽い微笑をおくろうとした・こぼった笑いをつくる・苦笑がこみ上げてくる・辛辣にせせら笑った
		色	緊張	顔が蒼ざめて行く
			怒り	顔は朱に染まって行く・顔を紅潮させた・気色ばむ・顔を赤くして怒り・
			不安	蒼白に頬をひきつらせ
			嫌悪	蒼白な顔をして
		状態	悲しみ	悲しみが表情にあらわれてくる・顔はあらわにゆがんでいた・彼の顔に孤独があらわれた
			緊張	表情をかたくしてふり返る
			怒り	額に太い筋が走った・頬が熱くなり
			嫌悪	蔑みを浮かべた表情・眉をしかめる・口調は憎しみみちて、顔がゆがんでいた・彼女らの皺はかたくなによりあわされてほぐれることがなく

[表6-5] 身体部位別表現 (その2)

表現方法	身体部位	感情	状態	
身体部位表現	目	泣く	悲しみ 着物も売ってしまった母は毎日泣いていた	
		涙	悲しみ	粘りつく涙が少しずつ流れた・不幸だといって涙を流すし
			混合興怒	急に涙を両方の眼からあふれさせた
		色	興奮	眼だけが生彩を放って迫って
		光	興奮	眼を光らせる・ギラギラ眼を光らせて・眼には殺意が閃いた
			怒り	眼には凄惨な光りがこもっていて・瞳は憤怒で輝き
		熱	怒り	熱をおびた眼・熱っぽく苛だたい眼
		冷	嫌悪	眼はうつろで冷たかった
		他状態	追憶	眼を細めた
			興奮	眼はふたたび鋭くなり
			怒り	血走った眼を瞞って大佐を一瞥してから・眼をつり上げて・にらみつけて
		容器	嫌悪	憎しきでよじれた眼・射すようなまなざし・禿鷹の眼
			追憶	鋭かった眼がやらわぎ、何か淡い波のようなものがゆれた
			驚き	眼を洗われる思い
			悲しみ	彼の暗い眼には傷をうけてもだえているものがあつた
			怒り	怒りにみちた眼・眼には怒りがあつた・眼に激しさがゆれた・陰しさと激しさが彼の眼から消えた
	レンズ	嫌悪	非難にみちた眼・憎しみにみちた眼	
		驚き	眼を拭った	
	口	緊張	固唾を呑む	
		嫌悪	オオ、シーッと舌うちして	
	唇	嘔む	悲しみ 唇を嘔む	
		ふるえ	怒り	唇を震わせていた・唇をふるわせた
	恐怖		くちびるをふるわせて耐えていた	
	胸	安堵	胸にあたたかなものがぐんぐんひろがって行った	
		怒り	胸がしきりに灼けてくるばかり	
		不安	胸は急にはげしく動悸をうち始める	
	腹	怒り	腹だたい・腹を立てる・腹が立つ・腹立ち	
	足	恐怖	足が萎えていくのを感じながら	
	体	熱	怒り	急に体中が熱くなった
			恥	当惑と恥ずかしさで軀をほてらせた・体が熱り出すのを感じる
		冷	恐怖	底深い冷たさが体内に、指から砂が洩るようにひろがる・小きざみにふるえて全身が寒かった・体は凍りかけ、俺はおびえ怖れている
		ふるえ	怒り	怒りに軀を震わせて
			恐怖	戦慄が体を灼いて走り・私はふるえあがつた
		痛み	悲しみ	苦痛を全身にさらけだして
			追憶	疼痛に似た懐かしき
		状態	安堵	体は体重が抜けたように軽い
			驚き	電気に打たれたように手を引く
			悲しみ	体中がうずいてくる・横腹を蹴飛ばされたように・彼は青い血を流しているように見え
	異常	恐怖	小動物のように軀を縮めた・心臓が咽喉へとびあがり、肺がきしみ、膝がわなわなふるえ	
	皮膚	不安	自分の行きどころがどこにもないような不安と未練につつまれて	
	内臓	悲しみ	皮膚を一枚剥かれるような淋しさを感じた	
	血	恐怖	急激な恐怖に内臓を揺さぶられた	
		興奮	体中の血が、一つの方向めざして、はげしく流れはじめる	

[表6-5] 身体部位別表現 (その3)

表現方法	身体部位		感情	状態
身体部位表現	心	状態	喜び	心が浮き立つ
			興奮	騒ぎ立つ心を抑えようと
			悲しみ	心は乱れだした
			恥	心は騒いだ
	容器	安堵	心を一度に明るく開いてくれた	
		悲しみ	心は言葉でひどく打ちこわされた	
	物体	絶望	砕かれた心	
		重さ	心の重さだけは減るにちがいない・心が重く口が聞かない	

## 2. まとめ

本章では、終戦時10代であった作家の作品を対象に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考察した。対象作品から得られた用例は241例で、18の感情と混合の感情が見られた。5つの時期の中で最も多くの用例と感情が得られた。感情は「怒り」が最も多く、次は「恐怖」、そして「嫌悪」と続いた。表現方法は、感情を類似したものに置き換える直喩や隠喩が126例、身体の状態で表わした換喩が115例であった。

本対象の全体的な特徴としては、複雑な比喩文がみられたことである。1つの文章の中に1つの概念ではなく、いくつかの概念が含まれていた。それは1つの感情を多方面から見て作成された結果である。また、感情を読者に分かりやすく伝えるための比喩ではなく、文を装飾するための修辞目的の表現がいくつかみられた。文章を飾る目的で比喩を用いているため、どのような感情であるのか判断し難いものも多かった。その分かりにくさが比喩を高度なものと感じさせ、文装飾の役割を果たしていた。

感情の認識に関しては、〈感情は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という認識が最も多く、その中で興奮は〈液体〉より〈気体〉とした用例が多くみられた。次に多かったものは〈感情は固体である〉という認識である。物体に喩えたものが多く、抱えたり、崩れたり、重荷であったりした。また、飲食物に喩えたものは正と負の感情で見られたが、主に負の感情で使われていた。感情は顔や目を通して外部に表われるが、口を通して出入りするという〈感情は飲食物〉という認識も増えてきている。次に多かったものは〈感情は生物である〉という認識である。感情は体内で移動したり、外部から侵入するものとして表現されていた。本対象では〈感情は方向性がある〉に分類されたものも多く見られ、感情が「軽い・濃い・冷たい」など多様に形容されていた。



感情を身体の状態で表現した換喩では、「顔」と「目」、そして「体」を用いたものが多かった。「顔」は笑いが最も多く、色や表情などで表わしたのもも豊富であった。「目」も顔と同様に、涙のみならず、色や熱、目の様子など豊富な表現が用いられていた。「体」を用いたものは、我々が経験する感情と共に起こる体の変化が言語化されていた。また、感情で特徴的であったものは「怒り」である。使用が最も多かったこと、そして、慣用句も多いが、それ以外でも6個所の部位が用いられていた。元々怒りは「腹」での使用も目立つが、「腹」という特定の部位ではなく様々な部位で表現され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次に、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のは嫌悪である。嫌悪は笑いで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ことが分かった。加え、悲しみの表現は泣く行為や涙で表現されるものが少なかったことも他の戦争作品と比較すると本対象の特徴といえるだろう。「悲しみ＝泣く」というつながりは非常に一般的であり装飾を好む戦後の文学作品ではあまり使用されなくなったという可能性が考えられる。

最後に本章の作品の特徴をまとめると次のことが挙げられる。本章の作品は終戦時作者は10代であり、終戦直後から始まった占領軍(GHQ)の統制下で過ごす。その影響か支配されているという押さえ込まれた感情としての怒りが最も多く出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また、作品を発表するにあたっての政府による制約などはなく、今までの戦争のように記録として残し、報道し、国民に知らせるなどの目的があって書かれたものではない。作家によって自由に書かれているため、その作品のテーマに沿って感情の偏りがみられたことと、分かりやすさより文を飾るための修辭的な表現が多いのが特徴であった。全体的に比喩表現の量も増え、創作レベルも高く、感情を多視点で捉えるなど表現の幅も非常に広がっているのがみられた。しかし、太平洋戦争の作品でみられた西洋言語の特徴である自己分離など自分と自分、または自分と身体を分離させた表現は見られなかった。これは、最終的に日本にはなじみがない自己を分離させるという認識は浸透しなかったという結果であるといえる。

## Ⅶ. 通時的考察 1

### —使用数と使用率—

本章では、全ての用例を用いて考察を行う。1節ではどの感情が多く用いられていたか結果を示し、時期ごとの考察を行う。2節では、使用された喩辞をみていく。喩辞とは喩えられたものであり、感情が何に喩えられ認識されているのかを考察するものである。3節では、使用された身体部位をみていく。どの部位が多く用いられ、各感情はどの部位によって主に表現されているのかを考察する。以下、日露戦争作品は日露、日中戦争作品は日中、太平洋戦争作品は、太平洋、戦後すぐの作品は戦後(一)、戦後の日本とベトナム戦争の作品は戦後(二)と表記する。

#### 1. 背景別比喻用例数

考察対象から収集できた用例数は全730例である。その中で最も多いものは「悲しみ」で136例(18.6%)と、どの戦争においても最も多く用いられている。戦争作品が対象であり、戦場での仲間の死や別れが描かれているため用例数が多く得られたことは当然といえよう。次に多いものは「興奮」で、用例数は86例(11.7%)である。興奮は戦いに挑む前の感情であるため、戦地での戦いを描いた日露・日中・太平洋で多く用いられている。次に多いものは「嫌悪」で、81例(11.0%)である。日露からは嫌悪の感情は得られなかったが、それ以降は嫌悪の感情は時代が進むにつれて用例数が増えている。日露では嫌悪の感情を表わす場合、比喻表現を用いていないということもあり得るが、相手に対する嫌な感情を嫌悪に似た恨みの感情で主に表わしていると予想できる。恨みという感情は仲間を殺された場合や裏切られた際に持つ感情であり、戦場では誰にでも起こり得る感情であるが、日露以外では恨みの感情の用例はほぼみられない。しかし、嫌悪の感情が多く用いられていることから恨みで表現する代わりに憎悪の感情で表現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恨みは「人から不利益を受けたとしてその人に対する不満や不快感を心に抱き続ける<sup>73)</sup>」感情である。そして、嫌悪の憎むは「嫌だと思う。不快に思う。また、よくないこと、あってはならないこととして、許しがたく思う」とある。ここでは、相手を不快に感じているのは同様であ

73) 松村明 (2008) 「スーパー大辞林 3.0」三省堂

るが、恨みは「心に抱き続ける」と長期にわたって心に存在する相手に対する不満や不快であり、憎むは「思う」とその時の嫌だという感情を表わす場合に用いられるようである。しかし、現在は区別して使われていないようである。『日本語大辞典<sup>74)</sup>』では、「恨む」の項目では「不満に思う。にくく思う」とある。これは憎むと意味は同様である。「恨む・恨み」は「憎む」にその座を奪われ、次第に使用量が減少していった言葉のひとつとして挙げるができる。

次に多いものは「恐怖」で、用例数は79例(10.8%)、そして、「怒り」は77例(10.5%)である。恐怖と怒りは日露から戦後(一)までは他の感情から突出して多いとはいえないが、戦後(二)においては悲しみの感情よりも多く用いられている。以下、各背景の比喩用例数を表で示したものが [表7-1] である。

[表7-1] 背景別比喩用例数 (%)

感情	日露	日中	太平洋	戦後1	戦後2	合計
喜び	4 (3.6)	11 (7.5)	15 (12.0)	4 (3.7)	6 (2.4)	40 (5.4)
愛好	2 (1.8)	6 (4.1)	3 (2.4)	2 (1.8)	9 (3.7)	22 (3.0)
安堵		9 (6.1)	1 (0.8)	7 (6.5)	7 (2.9)	24 (3.2)
楽しさ	1 (0.9)	1 (0.6)	1 (0.8)		7 (2.9)	10 (1.3)
平静			2 (1.6)			2 (0.2)
追憶	5 (4.5)	5 (3.4)	3 (2.4)		7 (2.9)	20 (2.7)
興奮	21 (18.9)	23 (15.7)	13 (10.4)	5 (4.6)	22 (9.1)	84 (11.5)
緊張	1 (0.9)	3 (2.0)		4 (3.7)	3 (1.2)	11 (1.5)
驚き		4 (2.7)	3 (2.4)	5 (4.6)	4 (1.6)	16 (2.1)
悲しみ	34 (30.6)	26 (17.8)	28 (22.4)	19 (17.7)	29 (12.0)	136 (18.6)
怒り	3 (2.7)	8 (5.4)	10 (8.0)	6 (5.6)	50 (20.7)	77 (10.5)
恐怖	11 (9.9)	8 (5.4)	11 (8.8)	13 (12.1)	36 (14.9)	79 (10.8)
不安	9 (8.1)	24 (16.4)	11 (8.8)	9 (8.4)	7 (2.9)	60 (8.2)
絶望	4 (3.6)	2 (1.3)	1 (0.8)	1 (0.9)	1 (0.4)	9 (1.2)
恨み	8 (7.2)			1 (0.9)	4 (1.6)	13 (1.7)
嫌悪		14 (9.5)	17 (13.6)	20 (18.6)	31 (12.8)	82 (11.2)
悔しさ	3 (2.7)		5 (4.0)		1 (0.4)	9 (1.2)
後悔		2 (1.3)	1 (0.8)	1 (0.9)	1 (0.4)	5 (0.6)
恥	1 (0.9)				12 (4.9)	13 (1.7)
混合	4 (3.6)			10 (9.3)	3 (1.2)	17 (2.3)
計	111 (100)	146 (100)	125 (100)	107 (100)	241 (100)	730 (100)
感情数	14	16	16	15	19	

### 1.1 感情の使用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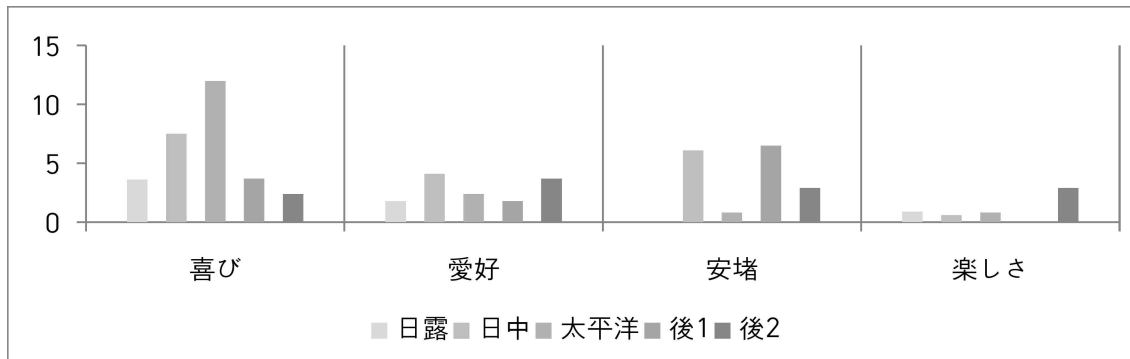
次に、感情の使用率を目視し考察するため [表7-1] の感情の使用率を図で示す<sup>75)</sup>。正の感情は [図7-1]、正負の感情は [図7-2]、負の感情は [図7-3] である。用例数により縦軸の数値(%)は図ごとに異なっている。

74) 梅棹忠夫他監修 (1992) 『日本語大辞典』講談社

75) 各感情の用例がどの割合で使用されているのか時期ごとに使用率を計算した。(感情用例数÷合計×100)

### 1.1.1 正の感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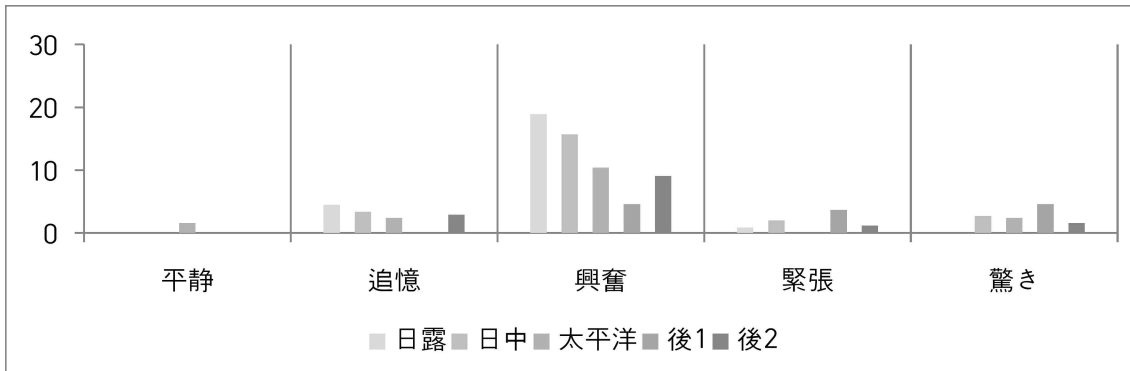
正の感情では喜び最も多い。日露は正の感情が少ない。日露では戦いと仲間の死が多く描かれているためである。日中では喜びと安堵の感情が多く、愛好の感情も他の戦争と比べて多い。兵士同士のやりとりで得られる安心感や仲間への尊敬の気持ちなどが描かれている。太平洋では、喜びの感情が他の戦争と比べ抜き出ているが、一方、安堵の感情は少ない。喜びの感情は美しい風景を見て、強そうな戦艦をみて、入れない区域に入れる嬉しさなど様々な登場人物によるそれぞれの感情が描かれているためである。戦後(一)は、全体的に例文は多くなく、楽しさの例文は得られなかった。まだ生きることへの安堵、死が避けられた安堵が主に描かれている。戦後(二)も例文はあまり多くないが、楽しさのみ他の戦争より多い。日本での生活が描かれているため、日常に起こる他愛もない小さな楽しさが描かれている。



【図7-1】 正の感情使用率

### 1.1.2 正負の感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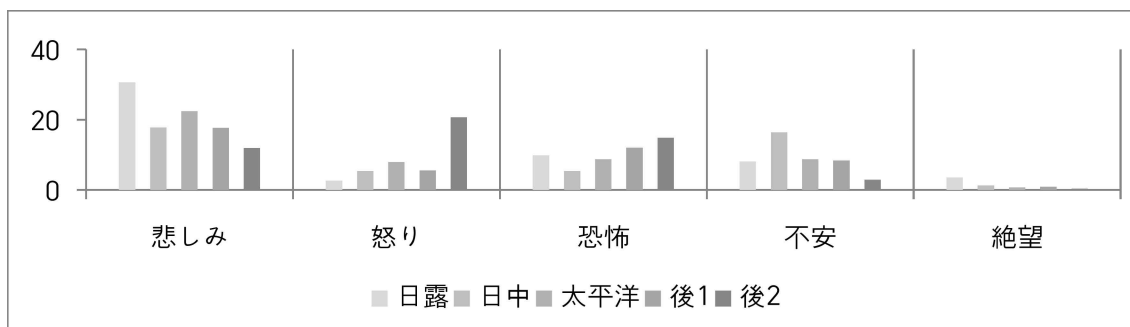
正負の感情は全体で見ると興奮の使用が目立つ。興奮は戦いへ挑む興奮が大部分である。特に戦闘への闘志が多くみられた日露では興奮が最も多く、日中から戦後(一)にかけて減り続け、戦後(二)は(一)より少し多くなっている。特に戦後(一)が少なく、戦場での戦いの場面がほぼ描かれなかったためである。戦後(二)ではベトナム戦争が背景の作品があるため興奮が少し増える。その他特徴として、戦後(一)は、祖国を思う追憶の感情がなく、興奮も他の戦争と比べると非常に少ない。また、緊張と驚きが他の戦争よりも多く使用されており、作中で直接の合戦ではない終戦間近の生き残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に意識が向いていた時期であることが使用数に影響を与え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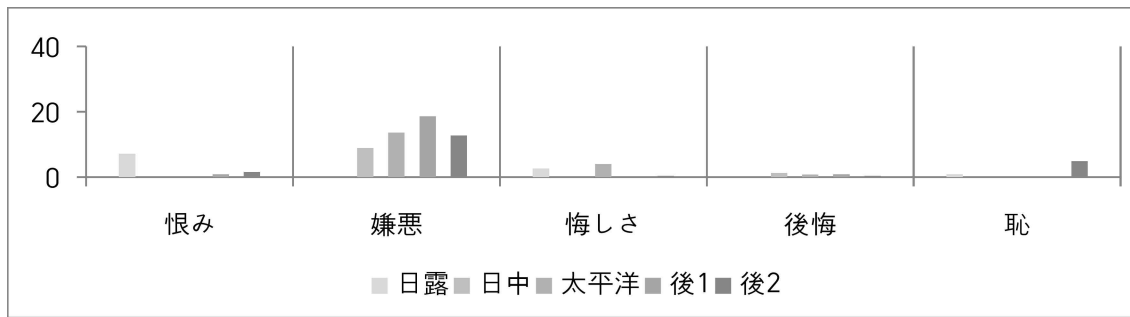
[図7-2] 正負の感情使用率

### 1.1.3 負の感情

負の感情が目立つ感情は、悲しみ、怒り、恐怖、不安、嫌悪であり、悲しみが最も多く、特に合戦が描かれた日露で多く用いられている。日露では仲間の死が多く描かれているからである。怒りは戦後(二)で多くみられ他の時代との差が大きい。戦後(二)では、アメリカに占領されているが何もできない自分への怒り、天皇制廃止を受け入れる国民への怒り、ベトナム戦争に反対する怒りが描かれている。恐怖と不安では、日中で恐怖が少なく、不安が多い。日中では作者が兵士ではなく記録する側であったことが不安が多くなっている要因であろう。その逆で、戦後(二)では恐怖が最も多く、不安が最も少なくなっている。戦後(二)はベトナム戦争が背景となっているため戦地での生き抜けるだろうかという恐怖が多く描かれているからである。嫌悪の感情は、日露では見られないが、敵に対する負の感情は日露では憎しみの感情ではなく恨みの感情で表現されている。戦後(一)で特に多いのは敵の存在を感じているが身動きがとれない状況への不満が描かれているからである。



[図7-3] 負の感情使用率 (その1)



[図7-3] 負の感情使用率 (その2)

## 1.2 各背景作品の考察

これらの感情の用例数は、主にその時代の背景による作品の方向性や内容に関係している。各背景作品の特徴を述べると、「日露」は戦いへ向かう興奮が多く、死に対する恐怖や不安などはあまり描かれていない。これらはその時代の軍国主義思想が関係している。興奮は「殺気を帯びる」「志気は張り裂けむばかり」「渾身の血が湧く」など闘志が描かれる。加え、仲間の死に対する悲しみも多く描かれている。「悲哀に打たれた」「腸をえぐる」など痛みでの表現がある。また、涙での表現も豊富である。「涙が流れる」という一般的なものから「襟を潤す」や「露を宿す」、「落つる一雫」など、「泣く」という行為ではなく涙で表現している。これは静かに泣く様子を表わす。この表現から日露の時代は「感情をあまり表に出さない」という特徴が導き出せる。恨みの感情も同様に「恨みを呑む」と外には出さず体内に取り込んでいる表現である。

「日中」は、戦いへの興奮や仲間の死への悲しみ以外に不安の感情が多く描かれ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作品には兵士との戦い以外に現地の人々との交戦もあったことで長期化し、なかなか終わらない現状への不安が表れている。「不安に襲われる」や「不安と戦う」、「不安が濃くなる」など強い不安が感じられる表現がみられる。また「不安が蝕む」「這いよる」など不快なものに喩えられている。興奮も多くみられ「狂暴な感情」など強い興奮の凶暴性が表わされている。悲しみは主に泣く行為や「衝撃を与える」「胸が痛い」など苦しみや痛みで表現されている。これらの表現から得られる日中の時期は精神的、身体的に不快な時期であったと推測される。

「太平洋」は、日露や日中と比較すると戦いへの興奮は少ない。感情は悲しみが最も多く、その他の感情は悲しみと比較した場合、多くはない。戦争に負けていく過程で仲間が次々と自殺行為ともいえる死を選んでいくことが描かれた内容であるためだと考えられる。悲しみの感情は「胸がしめつけられる」や「胸がつまる」、「胸が騒ぐ」など拍動の増加による苦しみに由来する表現が

みられる。また、興奮では「こころを嘔むような興奮」、嫌悪では「触手でなでられた気味の悪さ」、恐怖では「恐怖はとおいに見えてそばへは寄って来ない」など、感情を体外のもののように喩える表現がみ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この時期から感情は体内にあるものという認識から、外部から来るものとの認識が入ってきていることが分かる。

「戦後(一)」は、終戦間近な戦場での様子を描いたものである。作品の中で戦いは行われなため興奮は少ない。日本は戦況はいったいどうなっているのか、今後どうなってしまうのかという長引く戦争の中で、何かに対する不快な感情や恐怖が描かれている。特に、不快な感情である嫌悪は「苦笑い」や「残忍な微笑」と笑いで表現されているのが特徴といえる。これは感情を外に出すようになって来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また、「羽虫のよう(後悔)」、「かびのよう(嫌悪)」、「悲しみに身をひたす」など、感情が外部のものとしての表現も日中より多くみ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戦後(二)」は、戦後の日本について、また、ベトナム戦争に赴いて書かれた作品である。戦後(二)の特徴は怒りが多いことである。他の戦争作品では、怒りの感情は比較的多く描かれていなかったことと比較すると非常に高い使用数になっている。怒りは戦中と戦後の人々の変化に戸惑い、怒りを感じている国民を代弁した感情である。慣用句の「腹が立つ」をはじめ、「唇を震わせる」や「顔を赤くする」、「怒りに襲われる」などがみられる。また、恐怖も同様に他の戦争より多くなっ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特に恐怖は「恐怖がのしかかる」や「恐怖に処刑される」、「恐怖が足踏みする」、「恐怖の中にいる」など、外部の感情として描いている用例が多くみられる。また、恐怖の感情は戦場での兵士が感じる心理を想像によって描いたものではないかと予想する。なぜなら実際の体験を描いた作品では恐怖の感情は興奮や悲しみ、嫌悪の感情と比べると多くないためである。我々の戦争への認識は、戦争は死であり、死とは人間にとって最大の恐怖である。戦場の兵士らは当然、死への恐怖を感じていると誰もが考えるが、死と隣り合わせの状況であっても、実際は、恐怖より勝る感情、または伝えたい感情があることが作品の表現から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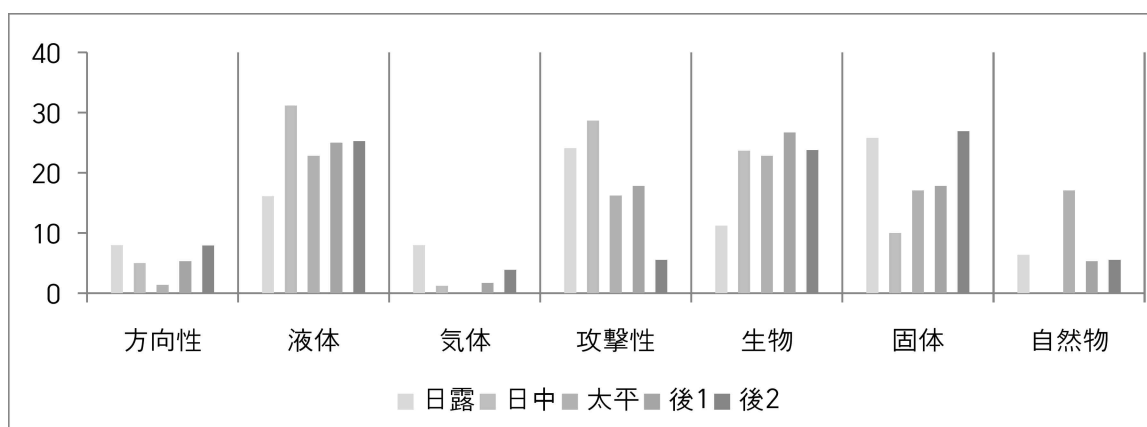
## 2. 喩辞使用数

### 2.1 喩辞

喩辞の使用数をまとめたものが [表7-2]、使用率を図で示したものが [図7-4] である。全体では<固体>が最も多く、次に<液体>、そして<生物>、続いて<攻撃性>が多い。作品別では、日露では<固体>が最も多く、日中では<液体>、太平洋では<液体><生物>、戦後(一)では<生物>、戦後(二)では<固体>である。使用率からみると時代の流れによる表現方法の変化ではなく、作者の表現方法の違いによる可能性が高い。

[表7-2] 使用喩辞数 (%)

喩辞	日露	日中	太平洋	戦後1	戦後2	合計
方向性	5 (8.0)	4 (5.0)	1 (1.4)	3 (5.3)	10 (7.9)	26 (6.5)
液体	10 (16.1)	25 (31.2)	16 (22.8)	14 (25.0)	32 (25.3)	95 (241)
気体	5 (8.0)	1 (1.2)	0	1 (1.7)	5 (3.9)	12 (3.0)
攻撃性	15 (24.1)	23 (28.7)	13 (16.2)	10 (17.8)	7 (5.5)	68 (17.2)
生物	7 (11.2)	19 (23.7)	16 (22.8)	15 (26.7)	30 (23.8)	86 (21.8)
固体	16 (25.8)	8 (10.0)	12 (17.1)	10 (17.8)	34 (26.9)	105 (26.6)
自然物	4 (6.4)	0	12 (17.1)	3 (5.3)	7 (5.5)	26 (6.5)
空間	0	0	0	0	1 (0.7)	1 (0.2)
計	62 (100)	80 (100)	70 (100)	56 (100)	126 (100)	394 (100)



[図7-4] 喩辞使用率

## 2.2 感情別喩辞—全体

### 2.2.1 正の感情の認識と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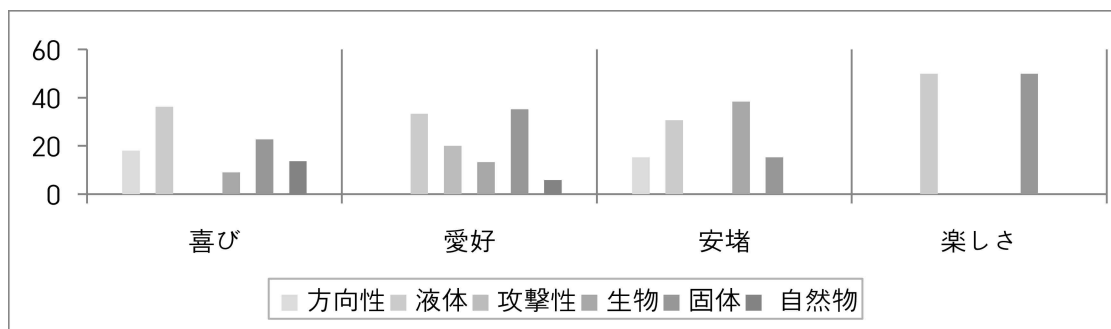
正の感情である喜び・愛好・安堵・楽しさの4つの表現方法を [図7-5] で示す。喜び、愛好、楽しさは<液体>と<固体>の認識が最も多く用いられ、安堵は<生物>の項目が最も多い。

感情別特徴として、「喜び」の感情は<方向性>があり、<攻撃性>がない感情である。また、<生物>の項目が少ないことから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感情という認識が薄いようである。

「愛好」は、正の感情の中で唯一攻撃性を持っている。相手を愛するという感情は主体自身を



攻撃する感情にもなるのである。「安堵」は喜びと同様に＜方向性＞があり、＜攻撃性＞がない感情である。しかし、＜生物＞の項目が多いことから自身で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感情との認識が濃く、その逆で物質的な性質のある＜固体＞としての認識が薄い。「楽しさ」は用例が2例のみであり、隠喩ではあまり表現されない感情である。



【図7-5】 正の感情の表現別使用率

### 2.2.2 正負の感情の認識と考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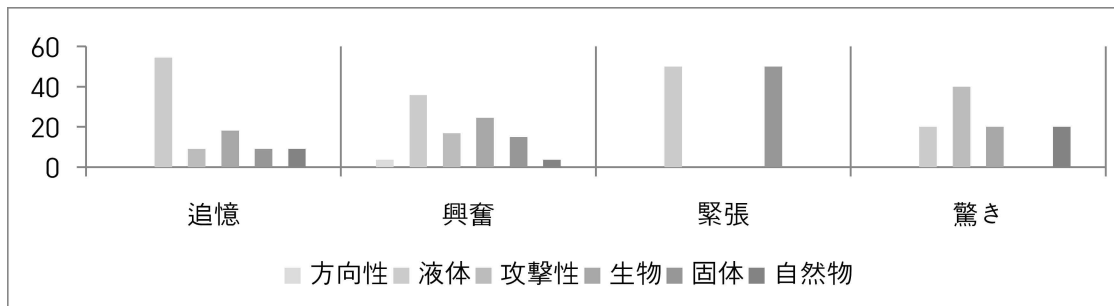
次に、正負の感情である。左から追憶、興奮、緊張、驚きと [図7-6] に示した。追憶と興奮は＜液体＞の項目が最も多かった。緊張と驚きは用例が少なく、緊張は1つ、驚きは4つの用例のみである。これら4つの感情は正と負の両面を併せ持つ感情であるため、身体に対して＜攻撃性があるもの＞としての認識も少数であるがみられる。

感情別特徴として、「追憶」の感情は＜液体＞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表現が最も多く、身体から湧き出る感情としての認識が強い。「興奮」は、＜方向性＞があり、体から出る＜液体＞でもあるが、液体の項目に含まれる＜気体＞としての認識が強い<sup>76)</sup>。また、＜攻撃性＞も他3つの感情よりも強い。殺気なども含まれるからである。「緊張」は用例が少なかったため特徴を述べるのは難しい。「驚き」は用例が4項目1つずつみられ、驚きの感情も＜液体＞であったり＜生物＞であったりと様々な側面を持っている。

### 2.2.3 負の感情の認識と考察

次に、負の感情は [図7-7] で示した。悲しみは＜攻撃性＞の項目が最も多く、恐怖と恨み、嫌悪、恥は＜固体＞、怒りと不安は＜生物＞の項目が最も多い。絶望と悔しさ、後悔は用例が少ない。

76) 興奮の場合＜容器の中の液体＞の項目で用例は19例であるが、その中で＜気体＞は11例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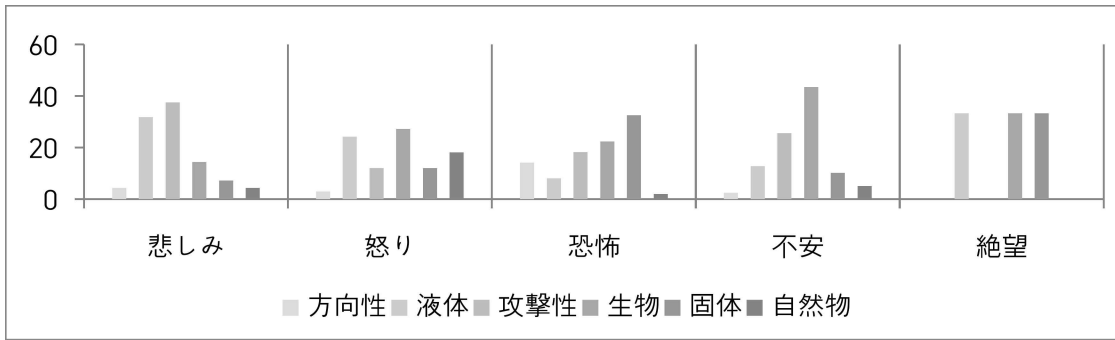
【図7-6】 正負の感情の表現別使用率

感情別特徴として、「悲しみ」は<攻撃性>のある感情であり、また、体に湧き出る<液体>という認識が強い。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いう<生物>の認識や<固体>としての認識もみられるが、それは強くない。「怒り」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生物>との認識が最も強く、また、<液体>や<自然物>の割合も高い。特に<火>で表現される傾向があった。しかし<攻撃性>はあまりない感情である。「恐怖」の感情は<方向性>が少しみられ、<固体>としての認識が強く、様々な性質を持っている。また、<生物>の特徴である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いう認識もある。しかし、<液体>や<攻撃性があるもの>としての認識はあまり持っていないのが特徴である。「不安」は恐怖と類似した感情であるが、恐怖との認識の差がみられた。<生物>が最も高く、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感情、または、外部の生物という認識の高さがみられる。そして、<攻撃性>の側面もややあるが、<液体>や<固体>といった認識はあまり高く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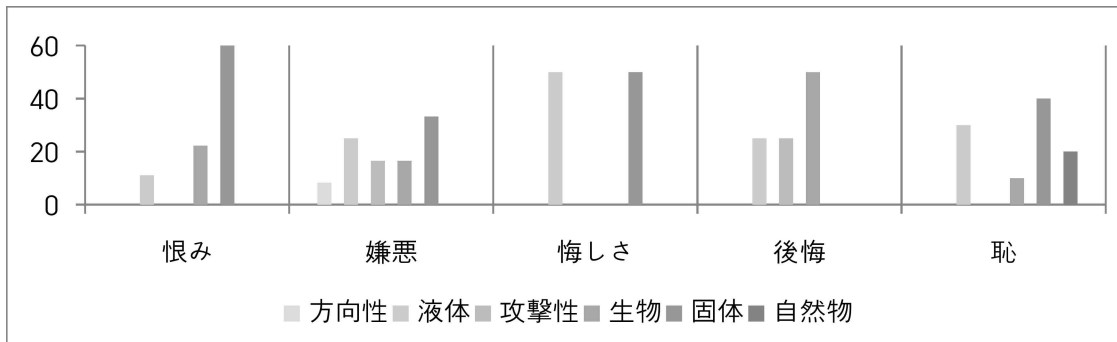
「恨み」は<固体>の認識が最も高い。用例の大部分は日露戦争の作品でみられ、そこでは呑み込むもの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嫌悪」は不快、嫌だという感情がすべて含まれているため、使われる表現も幅広く、特別に抜き出た使用はない。様々な対象に対する不快な感情であるため、様々な性質を持ち、それに類似した<固体>で多く表現される。「恥」は<固体>としての認識が大きく、物質の性質を持った感情である。<液体>としての認識や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感情という認識もある。「絶望」と「悔しさ」と「後悔」は用例が少数であるため考察は難しい。

### 2.3 感情別喩辞—背景別

次に、用例が多く得られた感情を対象に背景別に表現の使用が異なっているのかを考察する。考察の対象は「興奮」と「悲しみ」と「恐怖」である。その他の感情は用例が少なく考察が難しいため省く。



【図7-7】 負の感情の表現別使用率（その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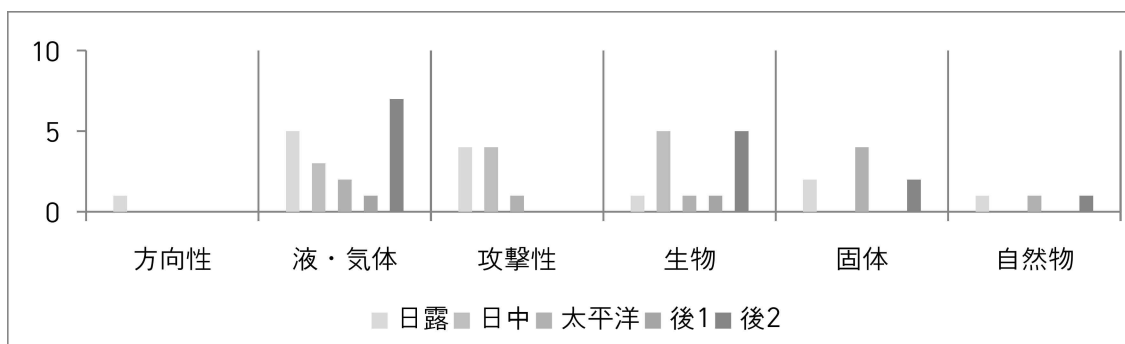


【図7-7】 負の感情の表現別使用率（その2）

### 2.3.1 興奮

どの表現がどの程度使用されているか、背景別に図で示す。【図7-8】は使用数である。興奮はく容器の中の液体・気体>という認識が最も多く使用されている。その中で「殺気天に満ちる」や「肩からたちのぼる」など半数以上は気体をイメージする表現が占めている。時代別では、戦後(二)で最も多く用いられている。日露の場合、5例はみなく気体>として認識されており、日中ではく気体>と「湧き上がる」や「みなぎる」などと用いるく液体>、太平洋ではく液体>、戦後(一)ではく気体>、戦後(二)ではく気体>とく液体>であった。日露ではく液体>がみられなかったが、他の感情をく液体>と認識しているため、この概念がその時代になかったわけではなく、興奮をく気体>と認識する傾向が強い。次にく攻撃性>の項目は、日露と日中、そして太平洋に1つである。「意気敵勢を圧する」や「勇気は敵の気を奪う」「鬼気人を衝く」など相手に対する殺気が主なものになっており、作品の内容で使用数の差が出ている。く生物>の項目では日中と戦後に数例みられ、それ以外の戦争は用例はひとつだけである。く生物>の場合は「野獣の衝動」や「蘇って来る」、「渴望がびくびく動いた」など感情が活動する生き物として描かれている用例が多い。これらは時代の流れでの変化はみられない。く固体>では太平洋では数例、日中と戦後(一)では使用がない。「びりりと辛い感じ」や

「焦燥につつまれる」などがみられる。〈自然物〉の場合、「熱して火の如く」や「熱き渴望に灼かれる」など興奮が性質を持つものに喩えら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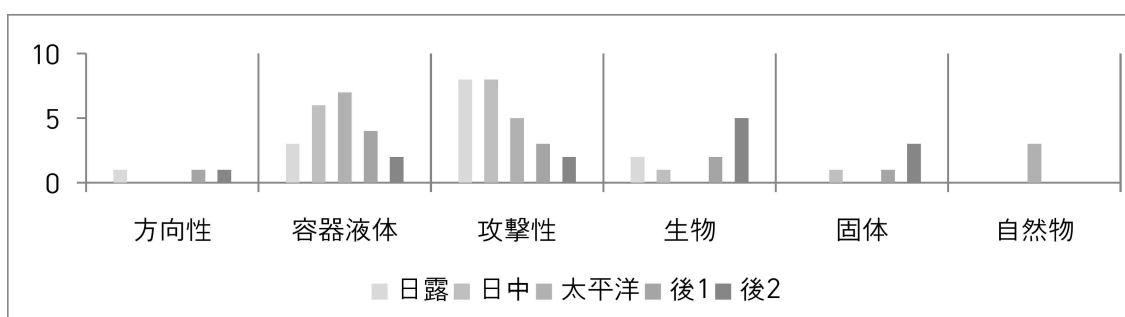


[図7-8] 興奮

### 2.3.2 悲しみ

悲しみは「肝をえぐる」や「胸をしめつける」など〈攻撃性がある〉ものとしての表現が多いが、時代が流れるにつれて使用数が減っている。「湧き上がる」や「あふれる」などと用いられる〈液体〉の項目は太平洋までは使用数が増え続けるが、その後減っている。これらは時代の流れによって一般的な認識による表現が好まれなくなった可能性が考えられる。一方、〈生物〉の項目は戦後(二)で使用が多い。「悲しみが胸に戻ってくる」や「感傷が胸をよぎる」などがみられる。〈固体〉と〈自然物〉は全体的に使用が少ない。〈自然物〉は太平洋でのみみられ、「胸の底からかすかなメロディーがなりひびいてくるよう」と音色に喩えられている。

背景ごとでは、日露では〈攻撃性があるもの〉との認識が強く、日中では、〈攻撃性があるもの〉という認識と〈容器の中の液体〉との認識が強い。太平洋は〈容器の中の液体〉と〈攻撃性があるもの〉との認識が強い。日露・日中・太平洋では強い悲しみが描かれた内容であっ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戦後(一)は用例の偏りはみられず、各表現が少しずつ使用されている。戦後(二)は、〈生物〉という認識が強く、悲しみ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感情という認識が強く表わ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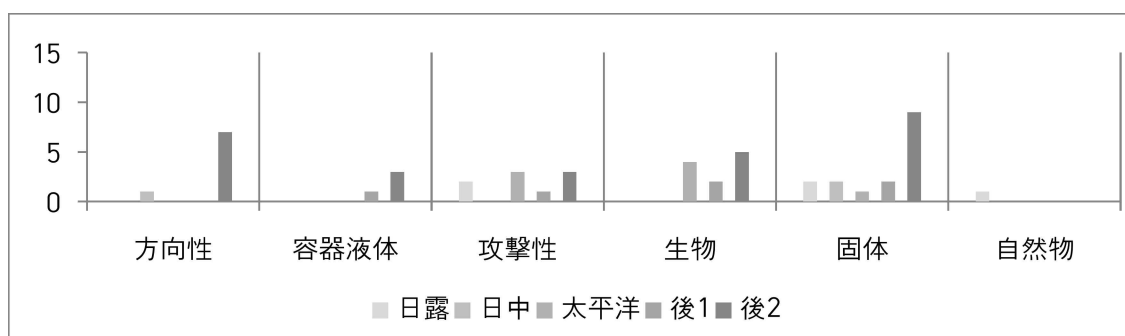


[図7-9] 悲しみ

### 2.3.3 恐怖

次に恐怖である。恐怖の感情は戦後(二)で多く用いられているが、全体的に恐怖の感情の使用は少ない。その中で全時期に使われているのは<固体>であるが抜き出した使用数ではない。<固体>は恐怖と物の類似点から導き出し置き換えた比喻表現である。「暗黒なものを包む」や「鋭い恐怖」などがみられる。次に多い<生物>は「私を捉えた恐怖」のような自分の意思で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という側面と、「恐怖はそばに寄って来ない」など外部からやってくる未知のものという認識で用いられる。<攻撃性>の項目は「胸を衝く」や「肌身に針を突き立てる」など数例見られる。これは恐怖という感情が身体に痛みや苦しさを与える場合に使われる表現であるが、用例は多くないため恐怖は身体に痛みや苦しさを与える感情という認識は薄い。また、<自然物>にはほぼ喩えられておらず、恐怖は自然が持つ性質と重なる部分が少ない感情である。

背景ごとでは、日露では使用数が少なく<攻撃性>と<固体>の認識が同数得られた。日中も使用数は少なく<方向性>と<固体>の認識が少しみられた。太平洋では<攻撃性>と<生物>の認識がみられた。戦後(一)では<方向性><自然物>を除く全てで得られたが、用例は少ない。戦後(二)でも全ての認識が得られたが最も多いものは<固体>である。そして、恐怖の<方向性>を表わすものも多い。<方向性>とは感情の強さや大きさなどの程度を表わすものである。戦後(二)では恐怖の感情が持つ物質としての特徴によって作られた比喻表現が多いことがこのグラフから導きだせる。



[図7-10] 恐怖

### 3. 身体部位表現

#### 3.1 部位使用数

身体部位表現は全25部位、337例の用例が得られた。背景別では、日露50例、日中66例、太平洋55例、戦後(一)51例<sup>77)</sup>、戦後(二)115例であった。部位別使用数は [表7-3] にまとめる。

最も多い部位は「顔」の80例である。顔は色や表情などの状態を表わすものが45例、笑いが35例である。顔色は血管の拡張と収縮に関係している表現で「朱に染まる」や「紅顔」は怒りや喜びで使われ、「蒼ざめる」や「色を失う」は負の感情で使われる。顔の状態では、筋肉の動きが関係している。「顔がゆがむ」や「顔をかたくする」など負の感情で主に使われる。顔に喜びなどが現われる場合は「微笑が浮かぶ」、嫌悪は「苦笑い」や「こわばった笑い」など表現が分かれる。次に多い部位は目の76例で、色や光、目の様子などの状態で表わされているものが43例、涙や泣く行為は33例である。色は「黒く冴える」や「濁り沈む」など負の感情で主にみられ、光も「眼を光らせる」や「輝く」など負の感情が多い。「血走る」や「鋭い」は興奮を表わし、「にらむ」や「熱をおびた眼」などは怒りを表わしている。感情が起こると顔面の筋肉の動きや血行により色の変化が現れるため、多くの感情が顔面部位を用いて表現されている。これは我々が感情は身体内部で生まれ、顔という表面に出て来るという認知構造を持っ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その認知構造によって顔や目を用いて表現され、また、読者もその表現が理解できるのである。次に多い部位は体全体を意味する「体」の47例である。体は感情と共に起こる体温の変化「冷水を浴びる」、「ほてらせる」や震えの「戦慄する」、筋肉の硬直の「ひきしまる」などで多く使われている。これらは一瞬で表れる表情と違い、身体の変化を伴う感情の強度や状態の変化が持続的に続く場合に用いられる。次に多いものは「心」の39例である。心は感情の拠り所であると言われるが、実際は心は主体自身、または身体の一部、それに加え、自身の所有物とした多くの認識を我々は持っている。「心が躍る(自分自身)」、「心が痛む(内臓)」、「心が壊される(所有物)」などの表現がみられる。

その他部位の中で多かったものは「胸」の26例、「腹」の12例である。胸と腹は先行研究では内臓の一部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部位である。胸は感情と共に変化が起こる心臓の拍動であり、腹は胃腸を意味するからである。しかし、「胸(心)を打つ」や「腹(心)を探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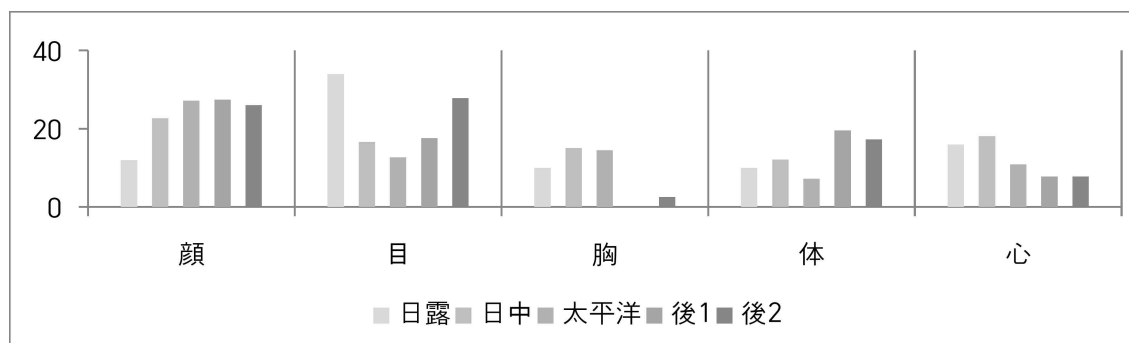
77) 呼吸を用いた表現が4例みられ、それを除くと全47例である。

のように胸も腹も心の意味でも用いられるため、本論では心を身体の一部として論じると同様に内臓ではなく、身体の一部位として分類している。胸は様々な感情で用いられるため、内臓の中では最も用例が多いと言われているが、身体の一部とした場合はそうではない。腹は戦後(二)は「腹が立つ」という怒りを表わす慣用句のみであり、用例の種類は2種類と多くない。

[表7-3] 身体部位使用数

	頭	髪	顔	目	鼻	口	唇	歯	舌	耳	胸	腹	背	足	体	皮	内臓	肝	腸	血	神	心	気	魂
露			6	17			1	4		1	5				5					1	2		8	
中			15	11	1	2					10	1	1		8					1	2	12	2	
洋	1	1	15	7		3	2	1	1		8		2		4	1		1				6	1	1
一	1		14	9				4					1	1	10				1	1	1		4	
二			30	32		1	4		1		3	11		1	20	1	1			1		9		
計	2	1	80	76	1	6	7	9	2	1	26	12	4	2	47	2	1	1	1	2	5	2	39	3

次に使用数の多い部位の背景別使用率を [図7-11] で示す。使用数が多い部位は「顔・目・胸・体・心」である。日露は他の戦争に比べ顔の使用は少なく、その代わりに目の使用が多くなっている。悲しみの感情が多く、その悲しみを涙で表わした表現が多かったためである。日中は胸と心の使用が他の戦争と比べて多いが、抜き出て多く用いられる表現や感情はない。太平洋は、顔以外は他の戦争と比較すると使用が多いものはない。身体に影響を与える強い感情を描いていないことが関係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戦後(一)は、顔と体の使用が最も多く、胸を用いた表現がない。胸は熱や圧迫で用いられるが、戦後(一)では体温上昇であったり痛みや苦しみの身体状態はほぼ描かれていないためである。戦後(二)は顔と目の使用が多く、胸が少ない。戦後(二)の場合は熱や痛みは胸ではなく体を用いて表現されている。これらの使用数は時代の流れとともに変化するものではなく、作品の内容や感情の種類によつての差であると結論付けることができる。



[図7-11] 身体部位使用率

### 3.2 部位と感情—全体

次の [表7-4] は、感情がどの身体部位を用いて表現されているかを感情別に示したものである。前述したが、多くの感情は顔と目を用いて表現されている。特に喜びや楽しさは笑顔で、悲しみは目の項目の涙や泣く行為で主に表現されている。しかし、恐怖は体で表現されているものが多い。恐怖は他の部位と使用数の差が大きく、体の状態の変化が大きく表われる感情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戦慄する」や「凍る」「体を縮める」など代表的な表現は体温の低下や震えで表わされたものである。また、他と異なった特徴が挙げられる感情は嫌悪である。嫌悪で最も多く用いられている部位は顔で、「苦い笑い」や「こわばった笑い」などの不快な笑いで表現されているものが半数を占める。嫌悪という内部で生じた感情が外部に放出される時、身体内部の変化が表われるよりも、行為によって相手に示される感情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次に、その部位だけが持つの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ものは、頭を用いた「頭に血を上らせる」と髪を用いた「怒髪天を突く」であり、これらは怒りで用いられ、怒りによる血圧の上昇が関係している。唇と歯と舌は負の感情で用いられる傾向がある。「唇を震わせる(怒り)」、「唇をかむ(悲しみ・悔しさ)」、「歯ぎしりする(不安・嫌悪)」、「歯の根浮く(恐怖)」、「舌うつ(怒り・嫌悪)」など実際に感情を感じたときに無意識にする筋肉の動きを表わしている。

[表7-4] 感情別身体部位使用数

	頭	髪	顔	目	鼻	口	唇	歯	舌	耳	胸	腹	背	足	体	皮	内	臓	肝	腸	血	経	心	気	魂
喜			9	1							3				1								4	1	
愛				3				1															1		
安			1	1							3				2								4		
楽			7												1										
追				4							3				1								1		
興			2	8							6	1			4	1					3		6		
緊			4			1									1					1					
驚			1	2		2					1		1		3								2		
悲			13	26	1		1				6				6	1		1	1	1	1	9			
怒	1	1	8	13			3	1	1		1	11			4										
恐			3	1			2	2					3	2	14		1				1		2		
不			5	1				1		1	3				6							1	1	2	
絶	1		2	1																			2		
恨							2																		
嫌			24	8		1		1	1						2		1					1	6		1
悔			1	2		2	1	1																	
後				1																					
恥															2								1		
混				4																					



### 3.3 部位と感情表現

各感情はどの部位が主に用いられているのかを背景別に示す。[表7-5]は正と正負の感情である。用例が多いものから、表現の共通点や相違点をみていく。

まず、「喜び」は顔と心が4つの時代でみられる。顔は笑いで表現されている。嬉しいときは笑顔になるという人間の共通する身体経験である。心は体温の上昇や、心を置き換えた隠喩、「心が踊る」「心を洗う」「心が浮き立つ」がある。心は身体の一部であるという認識と別の人格としての認識がある。「追憶」では、「胸を痛める」の胸や「疼痛に似た懐かしさ」の体の痛みと苦しさで表現しているのが共通している。これら追憶は負の意味で用いられている。「興奮」は、全体で共通している点は「熱い血が湧く」や「熱いものが胸に突き上げてくる」などの身体の体温上昇である。血の流れ「体中の血がはげしく流れはじめる」や身体部位の熱「胸が熱くなる」で表現されている。「驚き」では、3つの戦争でそれぞれ「渦巻きにつきあたる」「背に棒を通された思い」「電気を打たれた」など独特な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のが特徴的である。驚きは意外な出来事に対する反応であり、体も硬直する。その身体経験を言語で表現したものには「息をのむ」「目を見張る」「飛び上がる」など身体の行為を用いたものがある。このような体の状態ではなく、驚いた心の状態を述べたい場合に独特な表現が使われると考えられる。

[表7-5] 感情別表現 正と正負の感情

感情	日露		日中		太平洋		戦後一		戦後二	
喜び	顔	笑い	顔	笑い	顔	色・笑い	体	全文	顔	笑い
	胸	圧迫	胸	圧迫	心	踊る	心	洗う	心	浮き立つ
			心	体温	気	浮き立つ				
愛好			目	光	目	熱	歯	食いしばる		
			心	引かれる						
安堵			目	涙			顔	表情	胸	熱
			胸	熱・圧迫			心	治癒	体	軽・行動
			心	ひろがり						
楽しさ			顔	笑い	体	うきうき			顔	笑い
追憶	胸	痛み	目	泣く	目	涙			目	状態,容器
	心	残る	胸	圧迫	胸	痛み			体	痛み
興奮	目	血走る	顔	色	顔	色	目	餓えた野獣	目	色,光,状態
	体	踊り立つ	目	光	胸	熱,はずむ	体	熱,ふるえ	血	流れる
	血	湧く	胸	熱	膚	色			心	騒ぎ立つ
	心	踊る,跳る, 狂う,はやる	腹	熱						
			体	熱						
緊張			血	熱い,湧く						
			心	状態						
			顔	色			顔	色	顔	かたくする, 色
驚き			体	固まる			腸	杭を突く	口	固唾を呑む
							息	苦しい		
			口	息をのむ	口	生唾をのむ	顔	表情を失う	目	容器,レンズ
			心	渦巻きにつ きあたる	胸	びっくりして いる胸	体	体温低下, 震え	体	電気を打た れた
				背	棒を通され た思い					

次に、負の感情である。「悲しみ」は全体を通して痛みで表現されており、部位は顔面部以外は胸の「胸が痛かった」や腸の「断腸の思」、血の「血を吐く思ひ」、心の「心は打ちこわされた」など身体内部に位置する部位が用いられているのが特徴である。「怒り」は主に首上部位の状態「額に太い筋」や「頬が熱くなる」などや「にらむ」、「震わせる」、「舌うつ」、「歯を噛みくだく」などの行為で表わされている。戦後(二)は表現が幅広く、慣用句の「腹が立つ」をはじめ、「紅潮させた」や「胸が灼けてくる」などの体温の変化でも描写されている。「恐怖」は全体を通して、体温低下の表現を用いている。部位は顔では「蒼ざめる」や唇では「色失う」、体では「底深い冷たさ」や背では「悪寒が走る」が用いられている。日露から太平洋にかけては顔色の表現がみられるが、戦後は震えが主であった。「不安」は未来に対する恐怖であるため、恐怖と同様に「蒼ざめる」など体温低下の表現が全体を通してみられる。また、日露から太平洋までは、「力がぬける」や「気が狂う」など身体の異常を表わす表現が使われている。不安の感情は自らの想像によって起こる感情であるため、不安を表わ

す比喩表現も自らが想像により作り出した「迷路に落ちる」や「置きざりにされる」など異常な状況で表わされる傾向がみられる。「絶望」は用例が少なく、よく使われる慣用的表現は多くないため「心喪う」、「身も世もあらぬ」、「頭をかきむしる」など時期ごとに異なった表現が使われている。「恨み」は日露のみ見られ「歯を噛む」「切歯する」と歯で表現されている。「嫌悪」の特徴は前述したが、笑いで表わされる。しかし、顔のみならず他の部位での表現も多様である。特に感情による苦しさを身体感覚の不快感で表わしている。「口が粘る」であったり、「触手になでられる」という体の感触、呼吸の苦しさ「呼吸がつまる」などである。また、「重く沈む」や「重い鎖につながれる」など心や体の重さでも表わされており、これは全時期を通してみられる。「悔しさ」は日露と太平洋のみで、顔の「笑いこみあげる」や目の「無念の涙」、口の「煮え湯呑む思い」や唇の「唇をかむ」、歯の「無念の切歯」と用例がみられた。特徴として悔しさは口で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後悔」は泣く行為1つのみで特徴を挙げることができない。「恥」は3例中2例が体温上昇の表現「体をほてらせる」と「体が熱り出す」がみられた。

[表7-6] 感情別表現 負の感情

感情	日露		日中		太平洋		戦後一		戦後二	
悲しみ	顔	色,笑い	顔	笑い,色,表情	顔	色	顔	表情	顔	笑い,表情
	目	涙			目	涙,色,光	目	泣く	目	泣く傷
	胸	躍る,圧迫	目	泣く	胸	圧迫,拍動	体	状態	唇	噛む
	腸	断腸	鼻	泣く	体	痛み	肝	痛み	体	痛み,状態
	血	血を吐く	胸	痛み	心	痛み,状態	心	状態	膚	剥がれる
	心	苦しき,痛み	心	痛み					心	乱れ,壊され
怒り			癩	痛み	頭	血が上る	目	光色	顔	色状態
					髪	怒髪天突	体	行為	目	にらむ,血走る,熱,光,容器
					顔	色			唇	ふるわせる
					唇	固く結ぶ			胸	灼ける
					舌	舌打つ			腹	腹立つ
				歯	噛み砕く			体	震え,熱	
恐怖	顔	色失う	目	色黒	顔	蒼ざめる	顔	状態	唇	震え
	唇	色失う	背	震え	背	震え	歯	合わない	足	萎える
	歯	浮く	体	震え	体	震え	背	震え	体	冷,震え,縮める
	体	水を浴びる,震え	心	体温低下			体	震えすくむ	血	凍る
不安	顔	色	体	状態異常	顔	色失い蒼ざめ	歯	歯ざしり	顔	蒼白
	耳	声が囁く	気	狂う	目	魚			胸	動悸
	胸	騒ぐ	神経	崩れる	胸	うずく			体	状態
	体	置き処ない			心	ざわめき				
絶望	目	血走る	顔	蒼ざめる表情			頭	かきむしる	心	砕かれた心
	心	喪う								
恨み	歯	噛む,切歯								
嫌悪			顔	苦笑い	顔	色,笑い,表情	顔	苦笑い,表情	顔	色,笑い,表情,状態
			口	粘る	体	感触	目	色	目	状態,容器
			神経	痛み	臓	痛み	歯	歯ざしり	口	舌うち
			心	沈む	心	進まず	体	重い	心	重い
				魂	震え	心	罅			
						呼吸	苦しい			
悔しさ	目	涙			顔	笑い				
	歯	切歯			口	煮え湯呑む,血涙呑む				
					唇	かむ				
後悔			目	涙						
恥									体	ほてる
									心	騒ぐ

## VIII. 通時的考察 2\*

### -身体部位「胸」を用いた表現-

身体部位の「胸」は全時代で正の感情から負の感情にわたって様々な感情の表現に使われている。胸は感情によって起こる心拍数の変化、心臓の拍動による身体の状態を言語化するとき用いられるため、ほぼ全ての感情でみられ、慣用表現も多い。胸を内臓として捉えた場合、用例数が最も多い臓器とされている。しかし、本対象では胸を用いた比喩表現が得られなかった作品が太平洋に2作品、戦後(一)に1作品あった。用例が1つのみの作品も4作品あり、必ずしも胸が多用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かった。用例数は作者の使用言語の特徴によって偏りも見られるが、本章では作品や作者別考察ではなく、その時代で表現され理解されていた使用言語としてひと括りに考察する。

#### 1. 作品別比喩用例数

次の〔表8-1〕は各作品の感情と比喩表現の用例数をまとめたものである。日露3作品は16例、日中4作品は31例、太平洋4作品は26例、戦後(一)3作品は18例、戦後(二)4作品は11例見られた。18作品全体の感情を見ると、悲しみが多くみられ、次に不安、そして興奮と続いた。戦場を舞台にした内容が主であるため、仲間の死への悲しみや死への不安、そして戦いへの闘志である興奮が多いことは必然である。背景ごとでは、日露では5種類の感情がみられ、悲しみが最も多く、日中では、11種類の感情がみられ、同様に悲しみが最も多い。太平洋では、9種類の感情がみられ興奮が最も多く、戦後(一)では、8種類の感情がみられ混合が最も多い。戦後(二)では、9種類の感情がみられ悲しみが最も多く、用例数に比べ感情の種類が多い。用例数や感情の種類は、作者による表現の選択も関係しているが、作品の長さや物語なのか戦記なのか内容でも左右されている。

\* 本章は2020年『言語学研究』第71輯（韓国言語研究学会）に掲載された伊藤江美「身体部位〈胸〉を用いた感情表現の考察—近代から戦後の戦争文学における比喩を中心に—」に加筆・修正を行ったものである。

[表8-1] 作品別比喩用例数

	作品	感情														計		
		喜	愛	安	懐	興	緊	驚	悲	怒	恐	不	絶	嫌	後		恥	混
日露	肉	1			1				5								1	8
	一				2				3				2					7
	此								1									1
日中	生					1			2		1							4
	麦	1		2	2	2			2	1		1						11
	あ	1							3									4
	呉	1	1		1				3			4			1		1	12
太平洋	花																	0
	海			1	1	7	1	1	2		1	5						19
	ノ																	0
	戦	2							4		1							7
戦後一	俘								1									1
	桜		1				1		3	3	1	2	2				4	17
	出																	0
戦後二	人															1		1
	大		1	1	1				1	1		1		1				7
	輝								2									2
	待										1							1
計		6	3	4	8	10	2	1	32	5	5	13	4	1	1	1	6	102

## 2. 比喩の構成と表現方法

本節では、収集した102例の比喩表現を構成別に分類し考察する。感情が起こるとき、身体でも変化が起こっており、この生理的变化は隠喩や換喩で表現される。まず、文の構成別に分類し、各感情の表現方法を示す。

### 2.1 比喩表現の構成別分類

文の構成により以下のように分類する。(1) 感情を胸の状態を表わしているもの、(2) 感情を胸への外部からの刺激で表わしているもの、そして、(3) 胸を感情の活動の場としているもの、(4) 胸を物として捉えているもの、の4つである。

#### (1) 胸の状態で感情を表わしているもの

##### ① 「胸」の状態<痛み>で感情を表わしている換喩

・ 胸が痛い・ 胸を痛める

② 「胸」の状態<圧迫>によって感情を表わしている換喩

・ 胸が迫る・胸がこみあげてくる

③ 「胸」の状態<熱>によって感情を表わしている換喩

・ 胸が熱くなる

④ 「胸」の状態<拍動>で感情を表わしている隠喩

・ 胸が騒ぐ・胸は波立つ

下位分類の①は、ある感情によって起こる心臓の痛みを胸で表現したものである。痛みは一般的に悲しみを感じている時に使われている。②の<圧迫>とは、心臓の拍動によって胸が圧迫されているような感覚を表現したもので、喜び、安堵、悲しみといった正と負の感情で使われている。③の<熱>とは体温の上昇を胸で表現したものであり、愛好や安堵、興奮、恐怖などで使われている。④は、心臓の拍動を隠喩を用いて表現したものである。喜び、悲しみ、絶望、興奮、緊張など幅広く使われている。

(2) 胸への外部からの刺激で感情をあらわしているもの

①外部から「胸」への<攻撃>で感情を表現している隠喩

・ 胸を突く・胸を刺す・胸を抉る・胸を締めつける・胸を襲う

②外部から「胸」が何らかの<影響>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感情を表現している隠喩

・ 胸を悩ます・胸に逼る・胸をおびやかす

①は、感情主体が苦しみを感じている様子を<攻撃>に属する言葉で表現した隠喩である。悲しみや絶望、不安などで使用が目立つ。この場合、感情は「突く」や「刺す」ことのできる攻撃的な生物と捉えられる。②は、外部からの攻撃ではないが何らかの影響を身体が受けている様子で表現したものである。悲しみと不安でみられる。ここでは感情とは必ずしも生物であるとは言えず、主体を悩ませたり脅かしたりする影響力のあるものに置き換えられる。

(3) 胸を感情の<活動の場>として捉えているもの

①胸を感情を入れる<容器>として捉えている隠喩

・ 胸に湧く・胸にあふれる・胸がいっぱいになる

・ 胸につまっている・ 胸にしまう

②胸を感情がいる<空間>として捉えている隠喩

・ 胸を往来する・ 胸をよぎる・ 胸に疼きいる  
・ 胸の底からメロディーがなりひびく  
・ 胸の中をふきぬけるような風の音

①は、胸を<容器>と捉えている隠喩であり、感情を<容器の中の液体>と捉えた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胸に湧く」を用いた例文の1つに「憤りが胸の底から湧き上がってくる」という表現がある。これは、怒りの感情が液体であり、それが胸の中に湧き出ている。「胸がいっぱいになる」などの表現は、胸という<容器>が感情でいっぱいになっている状態である。それ以外にも、「胸にしまう」など、必ずしも感情が液体であるとは限らないが、胸が感情の<容器>として認知されていることは明らかである。②は、胸を<空間>とし、感情がそこで<活動するもの>と捉えた概念メタファーである。感情が胸に往来する様子や「胸に疼きいる」のように胸に居る様子がみられる。また、「胸の底からメロディーがなりひびく」や「胸の中をふきぬけるような風の音」のように、感情がメロディーや風に喩えられ、胸という<空間>を吹き抜けている様子がみられる。

(4) 胸を<固体>として捉えている隠喩

・ 胸に染み透る・ 胸をつつむ・ 胸を持つ・ 胸はきゅっと鳴った

「胸に染み渡る」は感情という<液体>が<布>や<紙>などに置き換えられた胸に染みている様子、「胸をつつむ」や「胸を持つ」などは包んだり持ったりできる固体に喩えられているのが分かる。

## 2.2 感情の表現方法

胸を用いて表現されている感情を表現方法別に示す。[表8-2]は前述した分類に感情を当てたものである。胸の状態の<痛み>と<圧迫>と<熱>は換喩に分類され、それ以外は隠喩である。



[表8-2] 感情の表現方法分布

感情	胸の状態				外部刺激		場		固体物
	痛み	圧迫	熱	拍動	攻撃	影響	容器	空間	
喜び		●		●			●		
愛好			●		●		●		
安堵		●	●				●	●	
追憶	●	●					●	●	
興奮			●	●	●		●	●	
緊張				●	●				
驚き									●
悲しみ	●	●		●	●	●	●	●	●
怒り						●	●	●	
恐怖			●		●		●	●	
不安				●	●	●	●	●	●
絶望				●	●				
嫌悪							●		
後悔							●		
恥							●		
混合					●		●	●	

換喩より隠喩が多く使われており、その中で最も多いものは、胸を感情の〈容器〉として表現したもので、次いで〈空間〉である。胸は感情が生まれ活動する場とした表現方法が最も多く使用されている。次に、〈攻撃〉が多く、負の感情で使用されている。胸の状態の項目では、心臓の拍動で表現された隠喩が多く、次いで、心臓の拍動の増加による胸への〈圧迫〉で表現された換喩が多く、正から負の感情にかけて広く使用されている。同じ心臓の拍動で表現された換喩と隠喩であるが、共通の感情は喜びと悲しみのみ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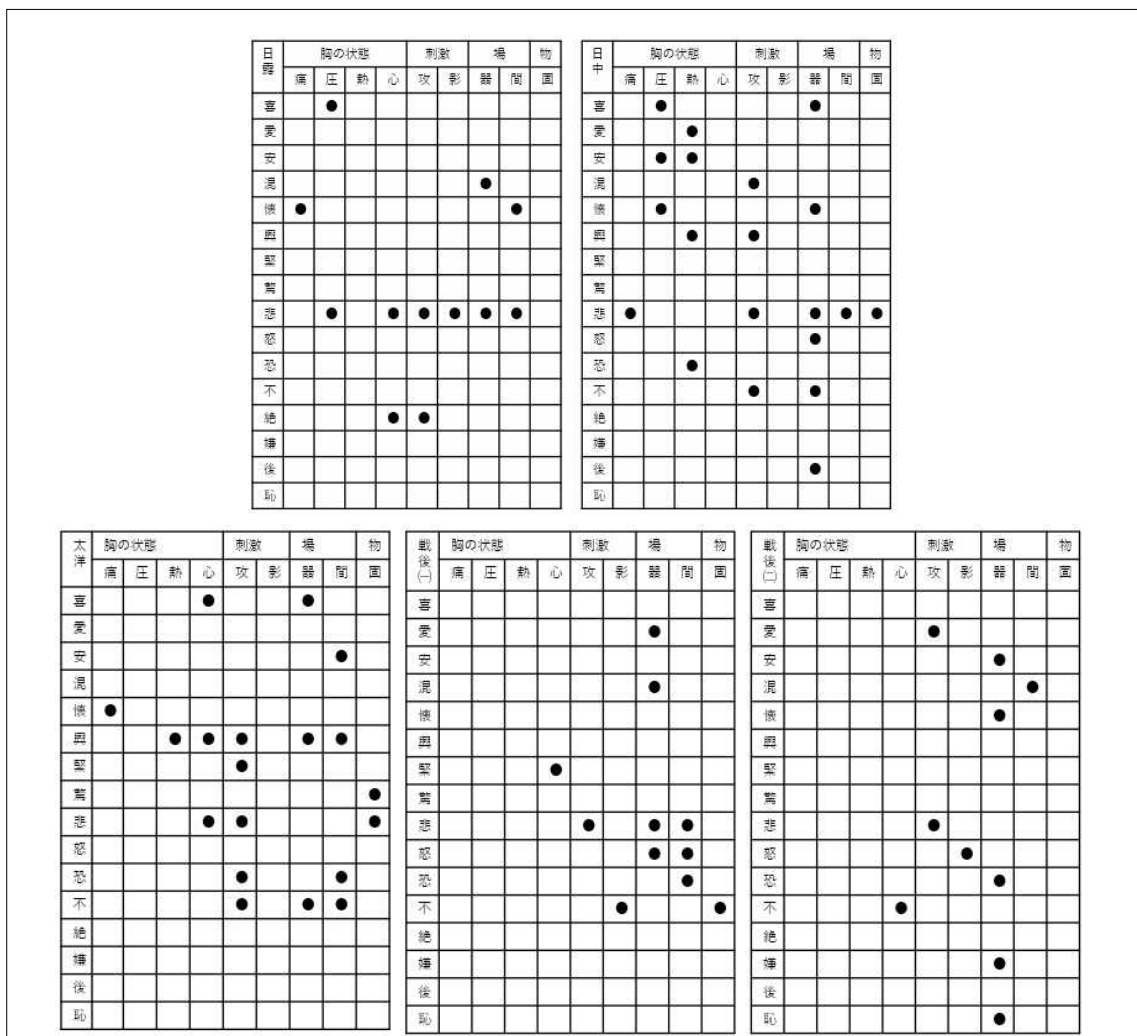
表現方法では、〈痛み〉は追憶と悲しみで使われている。ここでの懐かしむ気持ちは故郷に帰りたいが帰れない悲しみの気持ちが含まれているため、痛みで表現されている。〈圧迫〉は喜び、安堵、追憶、悲しみで使われており、正と負の両感情でみられる。〈熱〉は愛好と安堵の正の感情、正負の感情の興奮、そして負の感情の恐怖にみられ、正から負の感情にわたって幅広く使われている。次に、感情別に見ると、悲しみを表わす表現が最も多くみられる。これは、表現の多さと収集した用例数は比例しており、悲しみを表わす表現が他の感情よりも多いという結論には至らない。表現方法の多い感情を特定するためには、さらに多くの用例の収集が必要である。

### 2.2.1 背景別感情の表現方法

次に、背景別の比喩表現である。[図8-1] は感情の表現方法分布図を背景別に分けたものである。用例数は日露16例、日中31例、太平洋26例、戦後(一)18例、戦後(二)11例であ

るが、同じ用例もあるため分布数とは一致しない。

すべての戦争で換喩より隠喩が多く使用されていたが、換喩に関しては、日中で多くみられ、戦後(一)(二)ではひとつもみられない。日露と戦後は得られた用例が少ないためだといえるが、太平洋では26例中、換喩は2種類のみで、用例数と比べて少ないことが分かる。これは身体の状態を言葉で表現する換喩よりも、置き換えて表現する隠喩の使用が増加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すなわち隠喩は換喩よりも修辭的で裝飾された表現であり、時代の流れとともに文章に彩りを沿えるための工夫を凝らした表現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図8-1] 時代別感情の表現方法分布図

### 3. 背景別比喩表現の考察

#### 3.1 換喩

本節では、背景別比喩表現の詳細を見ていく。まずは換喩である。[表8-3] は表現方法別に分類し、さらに背景別に細分したものである。感情を胸の痛みで表わす比喩は日露、日中、太平洋で1つずつみられたが、戦後の作品ではみられない。次に胸の<圧迫>は、日露と日中のみでみられ「胸が迫る」が多くを占める。体温上昇を胸の<熱>で表わしたものは、日中で多くみられ、それ以外では太平洋で1つ、日露、戦後ではみられない。<熱>の表現は日中では愛好、安堵、興奮、恐怖と幅広く使用されているが、これはある作者の作品に集中していたため時代の特徴とは言い難い。

[表8-3] 背景別比喩表現<sup>78)</sup>—換喩

表現方法	戦争	感情	比喩表現
胸の痛み	日露	追憶	・ 胸を痛めた(一)
	日中	悲しい	・ 胸が痛かった(麦)
	太平洋	追憶	・ 刺されるように胸が痛い(海)
	戦後(一)	—	—
	戦後(二)	—	—
胸の圧迫	日露	喜び	・ 胸が迫つた(肉)
		悲しみ	・ 胸がひっきりなしに込み上げてくる(一)
	日中	喜び	・ 胸の迫る思い(麦)・ 胸がこみあげてきた(あ)
		安堵	・ 胸が迫つて来る(麦)
		追憶	・ 胸に迫るものがあつた(呉)
	太平洋	—	—
	戦後(一)	—	—
戦後(二)	—	—	
胸の熱	日露	—	—
	日中	愛好	・ 胸が熱くなつてくる(呉)
		安堵	・ 胸が熱くなつてくる(麦)
		興奮	・ 胸が熱くなるような感情(生)
		恐怖	・ 胸を熱くして蘇る(生)
	太平洋	興奮	・ 胸が熱くなつた(海)
	戦後(一)	—	—
戦後(二)	—	—	

#### 3.2 隠喩 (感情)

次に [表8-4] は感情の概念化が見られる隠喩である。

78) ( ) 内は作品名。肉弾 (肉)、一兵卒 (一)、此一戦 (此) と表記する。

[表8-4] 背景別比喩表現—隱喩（感情）

拍動	日露	悲しみ	・感慨に胸を躍らせた(肉)
		絶望	・胸が騒ぐ(一)
	日中	—	—
	太平洋	喜び	・胸のうち疼きて止まず(戦)
		興奮	・胸は波立つ(海)・胸をはずませた(海)
		悲しみ	・胸騒ぎて(戦)
戦後(一)	緊張	・胸が動悸を打つてゐる(桜)	
戦後(二)	不安	・胸ははげしく動悸をうちはじめ(大)	
胸に攻撃	日露	悲しみ	・胸を襲つた(一)・胸をうつたこともないではない(一)
		絶望	・胸を衝いた(一)
	日中	混合	・稲妻のように私の胸をつらぬいた(呉)
		興奮	・熱いものが胸に突き上げて来る(麦)・胸を衝たれた(麦)
		悲しみ	・胸を突かれた(生)・胸を衝たれ(麦)
			・胸が締め付けられる(あ)・胸を締めつける(呉) ・胸には急にたまらない淋しみがひしひしとおそつてきた(呉)
	不安	・胸つかれる(麦)・不安が私の胸を襲つてくる(呉) ・胸をつらぬいていた(呉)	
	太平洋	興奮	・胸をしめつけられるこの思い(海)
		緊張	・胸をしめつけられる(海)
		悲しみ	・胸はしめつけられた(海)・胸を衝く(戦)・胸を扶る(戦)
			・胸を衝き上げ(戦)
		恐怖	・胸をしめつけられる(海)
	不安	・胸を刺した(海)	
	戦後(一)	悲しみ	・胸をつかれた(俘)・胸を噛むにかいものを感じた(桜)
絶望		・胸に突き刺さつて来る(桜)・胸に深い傷をえぐつて(桜)	
戦後(二)	愛好	・胸に衝き迫ってくる(大)	
	悲しみ	・胸をおそい(輝)・胸へつきあげてきた(輝)	
胸に影響	日露	悲しみ	・頻りに胸を悩ました(肉)・胸に逼りて(此)
	日中	—	—
	太平洋	—	—
	戦後(一)	不安	・胸をおびやかす(桜)
	戦後(二)	怒り	・胸が灼けてくる(大)

心拍数の増加を胸で表現した<拍動>の隱喩は、感情が胸を動かすものに喩えられている。日中以外の戦争でみられ、特に太平洋では多くみられる。心拍数を用いた換喩の場合、太平洋と戦後ではみられないため、隱喩が換喩よりも多く使われていることが分かる。次に感情が胸を<攻撃>する表現は、全時期でみられ、共通して悲しみの感情を表わすときに使われている。また、絶望や不安、恐怖など死を意識した感情にも使われている。また、日中では混合と興奮、太平洋は興奮や緊張でもみられるため、さらに多くの用例が収集できれば様々な感情で使用されてい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攻撃>を表わす動詞は日露では「襲う・打つ・衝く」、日中では「襲う・突く・突き上げる・衝つ・つらぬく・締め付ける」、太平洋では「衝く・衝き上げる・しめつける・扶る・刺す」、戦後(一)は「つく・突き刺さる・えぐる・噛む」、戦後(二)は「衝き迫る・おそう・つきあげる」がみられた。「胸をつく・胸をうつ」は慣用句であり、「胸を襲う」「胸を締め付ける」などもよく使われる表現である。太平洋と戦後にある「えぐる」は強調

するため、戦後の「嘔む」は生物の要素が入っており、修辭的要素の高い表現である。次に胸に〈影響〉を与えている表現は、日露と戦後(一)(二)の負の感情において各1つの用例が得られたのみである。負の感情により胸になんらかの衝撃を感じる場合、〈影響〉より〈攻撃〉の表現が多く使用されることが明らかである。

### 3.3 隱喩 (胸)

次に、感情を表わすために用いた胸がどのように認知されているのかが確認できる隱喩をみていく。[表8-5] は表現方法別に分類し、さらに背景別に細分したものである。

先行研究で示されている〈胸は感情を入れる容器である〉としたものは、全時期で見られる。感情も正と負で使われている。また、胸を感情が活動する〈空間〉として捉えている表現も全時期で見られる。そして、胸が持つこの〈空間〉という概念も様々な感情で用いられている。感情が往来する表現は、「胸に往来する(日露)」、「胸に来る(日中)」、「胸に戻ってくる(太平洋)」、「胸をよぎる(戦後一)」、「胸にもどってくる(戦後二)」と全時期で見られる。往来以外でも「胸に念が燃える(日露)」、「胸にメロディーがひびく(太平洋)」、「胸の中で鬼が荒れ狂う(戦後一)」など、感情が胸の中で活動している様子を表わす様々な表現が用いられている。感情は液体のみならず火や風、メロディー、鬼などがあるが、胸という〈空間〉で活動するものという共通点によって我々はその喩えられたものが感情であることを理解している。つまりこれは、我々が〈感情は胸という空間で活動するものである〉という認知構造を持っ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最後に、胸を〈物〉として捉えた表現の項目は、用例数も少なく日露と戦後(二)ではみられない。日中では感情が〈液体〉で、胸はその液体が染み渡る素材のものに喩えられている。これは〈容器〉に〈液体〉が入っているものと同様であるといえるが、〈容器〉の中で感情が「湧いて、いっぱいになり溢れる」とは違ったものであるため分類は別にする。次に、太平洋の「びっくりしている胸を持って通り抜ける」という比喩表現は胸が身体の一部ではなく身体外部の物、例えば荷物のようなものに喩えられている。身体は自己の一つであると考え、自己が所有しているものとして捉えている思考は西洋の思考であるといわれており、このような西洋の思考が入った表現が太平洋と戦後で見られたことは、時代の移り変わりによって表現方法や概念の変化が表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先行研究でも述べたが、大石(2008)の日英対照研究では、英語は「自己分裂」として「自己を視る主体」と「視られる主体」に分裂させるという。「びっくりしている胸を持って通り抜ける」という文の「びっくりしている胸」は「視られる主体」であり、「胸を持って

通り抜ける」のは「自己を視る主体」である。このようにこの比喩表現は「自己分裂」を用いた表現になる。

[表8-5] 背景別比喩表現—隠喩（胸）

胸は 容器	日露	混合	・ 胸に溢るる(肉)
		悲しみ	・ 胸がいっぱいになる(肉) ・ 胸が張り裂けんばかりになつて(肉)
	日中	喜び	・ 胸が一杯になり(呉)
		追憶	・ 胸一ぱいに広がつて来る(麦)・ 胸が一ぱいになり(麦)
		悲しみ	・ 別離の感情で一杯になつた(あ)
			・ 胸には悲痛の感情がいっぱいだつた(呉)
		不安	・ 胸につかえていた(呉)・ 胸に涙を湧かせ(呉)
		怒り	・ 憤りが胸の底から湧き上がつて来る(麦)
	後悔	・ 胸のなかに湧いてくる(呉)	
	太平洋	喜び	・ 胸裏ひそかに歓心湧く(戦)
		興奮	・ 胸の中にせりあがつてくる感情があつた(海)
			・ 胸をつまらせた(海)
	不安	・ 胸の不安(海)・ 胸には音色があふれていた(海)	
	戦後(一)	愛好	・ 愛情が、どっと胸にあふれた(桜)
		混合	・ 胸に湧き上がつて来る(桜)／湧き上がった(桜)
			・ 胸一ぱいに拡がっては消えた(桜)・ 胸に残っている(桜)
		悲しみ	・ 哀感が胸に湧き上がった(桜)
	怒り	・ 胸に湧き上がつて来る(桜)	
戦後(二)	安堵	・ 胸にあたたかなものがぐんぐんひろがって行った(大)	
	追憶	・ 胸の中に懐かしさが溢れる(大)	
	恐怖	・ 恐怖が胸につかえ(待)	
	嫌悪	・ 胸にうつつしているものを吐き出す(大)	
恥	・ 屈辱を胸にかかえこむ(人)		
胸は 空間	日露	追憶	・ 胸中には何等の情が往来しつつありけん(肉) ・ 胸にはこれまでに幾度も祖国を思うの念が燃えた(一)
		悲しみ	・ 胸裡に往来し(肉)
	日中	悲しみ	・ 胸に来た(あ)
	太平洋	安堵	・ 何かがおびただしく胸に戻ってきた(海)
		興奮	・ 私の胸にひびいた(海)
		恐怖	・ 胸に何か疼き居し心(戦)
	不安	・ 胸の底からかすかなメロディーがなりひびいてくるよう(海)	
		・ 胸のなかには苦しいほどにメロディーがひびいた(海)	
		・ 胸に悲しい復讐の気持ちを自ら意識せずに育てて行く(桜)	
	戦後(一)	恐怖	・ 胸の中をふきぬけるやうな風の音(桜)
		怒り	・ 鋭く胸をよぎつた(桜)
・ 鬼のようなものが彼の胸の中で荒れ狂つてみるよう(桜)			
戦後(二)	混合	・ 悲しみと憤りが胸にもどってくる	
胸は 物	日露	—	—
	日中	悲しみ	・ 胸にしみ渡る哀感(生)
	太平洋	驚き	・ びっくりしている胸を持って急ぎ通り抜ける(海)
		悲しみ	・ 胸はきゅつと鳴つた(海)
	戦後(一)	不安	・ にかく胸をつつんだ(桜)
	戦後(二)	—	—

#### 4. まとめ

本稿では、身体部位「胸」を用いた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対象に胸と感情がどのように表現され認識されているのか通時的考察を行った。胸は正から負の感情まで幅広く使われており、感情によって起こる身体的変化、例えば胸の痛みや心臓の拍動、温度変化などを用いた換喩で表現されていた。また、隠喩では胸の痛みなどを外部からの攻撃としたものや、先行研究で普遍的なものとして挙げられている〈胸は感情の容器である〉、〈感情は水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は日露から戦後まですべてでみられた。そして、容器のみならず胸を感情が活動する空間として捉えている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

比喩表現の移り変わりでは、時代の流れと共に換喩より隠喩での表現が多くなっていき、修辞技法の発達による表現の多様化がみられた。感情や胸の概念化では、太平洋戦争からは自身の一部である胸を人格を持った自己として客観視するという西洋の特徴が表れた比喩がみられた。

以上、「胸」を用いた比喩表現を対象に考察を行ったが、比喩表現を収集し考察することは、様々な言語における比喩表現の比較研究を行う上で有益な資料となる。本章では西洋の特徴を少しばかり述べたが、例えば次のような違いもみられる。英語で「beat your breast/chest」というイディオムがある。胸を叩いて「悲しむ(悲しみをみせる)」という意味である。悲しんでいる人が自分の胸を叩いている。日本語で直訳すると「胸を打つ(叩く)」であるが、日本では胸を叩いて悲しみを表現することはない。そして、「胸を打つ」は日本では慣用句であり、「感動する」という英語とは異なる意味を持っている。また、胸を打つという行動をするのは自分ではなく、映画や物語などが胸を打つのである。韓国語では「가슴을 치다(胸を打つ)」という慣用句がある。これは「もどかしい」や「悔しい」という意味で使われる。胸を打つという行動によって悔しさを表現したもので、これは英語と共通している。日本語の慣用句の「胸を打つ」に当る英語は「touch my heart(心に触れる)」であり、韓国語は「가슴/마음에 와 닿다(胸/心に来て触れる)」である。日本では「打つ」という言葉には胸を打つと胸が楽器のように震えたり響いたりすることから心が揺れるほどの感動という連想をする。一方、英語や韓国語の場合、「打つ」というと自らの行動を示し、「触れる」という柔らかい接触の言葉で感動を表わしている。しかし、感動を表わす「心に触れる」という日本語もある。これは「心の琴線に触れる」が省略されたものだと考える。心を楽器としてとらえ、それを触わることで共鳴するという認識

は「心を打つ」と共通している。

このように慣用句1つを取り出しても言語的・文化的差異がみられ、言語の比較なども含め言語と認知の研究は幅広く研究する余地があり、すべきことは多く残されている。



## 結論

これまで、文学作品内の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対象に、我々は感情をどのように表現し、どのように認識しているのか認知言語学の観点から考察を行った。また、身体部位を用いてどのように表現しているのか、感情と身体の関係の考察も行った。研究対象は戦争文学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作品を選定し、日露戦争、日中戦争、太平洋戦争、終戦後すぐ、そして、終戦時10代であった作家の作品と5つの時期に分けて考察を行った。その後、全時期の用例をもとに結果を示し、用例が多くみられたものに関しては通時的考察も行った。研究対象から得られた感情は全19種類で「喜び・愛好・安堵・楽しさ・平静」の正の感情と「追憶・興奮・緊張・驚き」の正負の感情、「悲しみ・怒り・恐怖・不安・絶望・恨み・嫌悪・悔しさ・後悔・恥」の負の感情である。そして、その感情は何に喩えられ、また、認識されているのか、認知言語学的分析により、全時期共通して大きく6つの概念メタファーに分類できた。〈感情は方向性がある〉、〈感情は容器の中の液体である〉、〈感情は攻撃性がある〉、〈感情は生物である〉、〈感情は固体である〉、〈感情は自然物・現象である〉の6つである。また、感情を表わすために使用された身体部位は全25カ所みられた。頭部と顔面は「頭・髪・顔・目・鼻・口・唇・歯・舌・耳」、身体部は「胸・腹・背・足・全身」、感覚や身体内部は「皮膚感覚・内臓・心臓・肝・腸・血・神経」、心は「心・気・魂」であった。以下、章ごとの考察結果を述べる。

まず第2章の「日露戦争」を舞台にした作品の比喩表現の考察では、用例は111例、感情は13種類みられ、悲しみが最も多く、次に恐怖、興奮、恨みと続いた。これらの作品中、軍国主義の作品は興奮が多く描かれ、反軍国主義の作品は悲しみが多かった。感情の認識の考察で特徴として明らかになったものは、「怒り」の感情は〈熱湯〉〈上昇する火〉、「興奮」は〈気体〉であり、それは外部への攻撃を与えるものとして捉えられていた。また、「恨み」は〈口から出るもの〉であり、「恥」は〈汚れ〉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怒りは熱湯／火である〉という概念は先行研究と同様であるが、〈興奮は気体である〉と〈恨みは口から出るものである〉という概念は新しく、他の感情と区別でき、興奮や恨みが持つ特徴として示すことができる。また、〈恥は汚れである〉という概念は、日本の文化と関係がある。日本人誰もが連想できる「恥は汚れ」という表現であるが、これは日本に広がっている昔からの考えであり、異なる言語で同様の結果が出る可能性は低い。恥の用例が少ないのが残念だが、対照研究をする価値のある感

情である。次に、負の感情は「攻撃性のあるもの」として表現される傾向があった。身体部位を用いた表現の考察では、使用数は「目」に分類される「涙」と「泣く行為」が最も多く、主に「悲しみ」で用いられていた。「泣く行為」や「涙」を「露」「雫」「袖／襟を濡らす」などに置き換え描写されていたのが特徴であり、この時期の表現技法だといっていいただろう。身体部位と感情の関係は、「恨み」や「悔しさ」は「口（唇・歯を含む）」との関係が深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恐怖」の感情は「体温低下」で表現される傾向があり、用いられた身体部位は「顔」「唇」「歯」「体」と幅広く、状態は震えや色で表わされていた。身体への変化が顕著に表われる感情は誰もが予想できる結果であるが、そうでない感情の場合、身体との関係が予想できない場合が多い。本章では「恨み」や「悔しさ」は「口」で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ことを結果として示すことができる。

第3章の「日中戦争」を舞台にした作品の考察では、用例は146例、感情は15種類がみられ、悲しみが最も多く、次に不安、興奮と続いた。作品の特徴としては仲間の死への悲しみが少ないことが挙げられる。感情の認識の考察で特徴としてあげられるものは、「不安」が「動物」に喩えられ、身体に潜む不気味なもの、または、抑制のきかない生物として認識されていたことである。身体部位の考察では、使用数は「顔」が最も多く、顔面部位である「目」「鼻」「口」を含むと半数を占め、特に顔と目は正から負にかけて様々な感情で用いられていた。感情と身体部位の関係は、「興奮」は体温上昇、「恐怖」は体温低下が多く用いられ予想できる結果であった。しかし、「不安」は身体異常の表現が多く使用される傾向があった。不安という未来の未知への恐怖に対する我々の認識に対する新しい発見である。

第4章の「太平洋戦争」を舞台にした作品の考察では、用例は125例、感情は16種類みられ、悲しみが最も多く、次に嫌悪、そして喜び、興奮と続いた。作品の特徴としては報道員の視点で書かれているため感動（興奮）や兵士への哀れみ（悲しみ）の感情が多くみられた。感情の認識の考察で得られた特徴は、「恐怖」と「不安」の感情が「動物」に喩えられたものが多く、感情が外部から主体に不快な影響を与える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た。身体部位の考察では、使用数は「顔」が最も多く、笑いや顔色で表現されていた。感情と身体部位の関係では、「悲しみ」は目の色で表現される傾向がみられ、「怒り」は「唇・歯・舌」で表現される傾向がみられた。また、自分の身体の一部を分離させて扱う西洋的表現もみられ、西洋の表現方法を受け入れ理解する段階から使用し表現する段階になった例として提示することができる。

第5章の「戦後(一)」の作品の考察では、107の用例、14種類の感情がみられ、嫌悪が最も多く、次に悲しみ、恐怖と続いた。作品の特徴としては感情では祖国を思う追憶の気持ちがない

かったこと、表現では文全体が比喩である文脈の比喩が多か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感情の認識では、「感情は未知であり、外部の意思を持ったもの」と捉えた表現が目立ち、感情を内から起こるものより、客観的に見る傾向になってきたことが分かった。感情と身体部位の関係では、他の戦争と同様、「恐怖」は体温低下で表現される傾向がみられた。また、「嫌悪」は笑いで多く表現されていた。この笑う行為は正負の感情に関わらず様々な感情に伴って起こる顔面の筋肉の動きである。そして、それが多用される感情は「楽しさ」そして「嫌悪(不快)」の感情であるという結果になった。最後に身体部位の特徴として、「心」は今までは身体内部にある<容器>であったが、外部にある<容器>や外部の<物体>として身体とは分離したものととの認識が追加されていた。

第6章の「戦後(二)」の作品の考察では、241の用例と18種類の感情がみられ、怒りが最も多く、次に恐怖、そして悲しみと続いた。作品の特徴としては、作品のテーマに沿って作品ごとに感情の偏りがみられたこと、怒りの感情が非常に多いこと、そして語彙数と比喩表現数も多いことが挙げられる。感情の認識の考察では、感情が<固体>に喩えられたものが多く、感情を様々な視点からみて作成された比喩表現が多かった。感情と身体の関係の考察から得た特徴として、「怒り」の感情は「腹」だけでなく、「顔・目・胸・口・体」と多くの部位を用いて表現できるということと、「悲しみ」の感情も同様に「顔・目・唇・体・皮膚」と多くの部位を用いて表現され、涙での表現が少なかったことが特徴としてあげられる。これは、表現の幅がひろがり、感情の持つイメージ通りの表現を作成するだけに留まらなくなっている結果である。

第7章では、全用例を用いて、各作品の感情の使用率、喩辞の使用数、感情の認識と考察を行った。用例数は全730例であり、悲しみの感情が最も多く、次に興奮、嫌悪と続いた。各作品の感情の用例数は作品の方向性や内容に関係していた。「日露」は戦いへの興奮、仲間の死への悲しみ、「日中」は戦いへの興奮、仲間の死への悲しみ、終わらない戦争への不安、「太平洋」は仲間が死へ向かうことへの悲しみ、「戦後(一)」は長引く戦争の中での嫌悪と恐怖、「戦後(二)」は現状への怒りが目立った感情であった。まず、最も多く見られた各感情の持つ概念である。用例が1つないし2つのみの感情「楽しさ・緊張・驚き・絶望・悔しさ・後悔」に関しては提示できない。

正の感情

- 喜び 液体
- 愛好 液体
- 安堵 生物
- 楽しさ ×

正負の感情

- 追憶 液体
- 興奮 液体
- 緊張 ×
- 驚き ×

負の感情

- 悲しみ 攻撃性
- 怒り 液体 · 生物
- 恐怖 固体
- 絶望 ×
- 恨み 固体
- 嫌悪 固体
- 悔しさ ×
- 後悔 ×
- 恥 固体

特徴として述べられるものは、「悲しみ」は<攻撃性があるもの>、「安堵」は<生物>に喩えられる傾向にあることである。残りの感情は<液体>や<固体>に主に喩えられていた。しかし、<悲しみは攻撃性があるもの>という概念を用いた比喩表現は時代と共に徐々に減っていた。これは、ありふれた表現を使用しないという作家の文章力の向上が関係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ことができる。身体部位を用いた比喩表現では、部位の使用数、感情と部位の関係性を示した。身体部位は全25カ所、730例中、336例の用例がみられた。最も多かった部位は顔であり、色や表情、笑いが使われていた。次に多かったのは目で色や光が使われていた。次は体で、体温変化や筋肉硬直で使われていた。次に、感情がどの部位を用いて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のかをみた。多くの感情は顔や目によって表現されていた。「顔」は「喜び・楽しさ・緊張、嫌悪」で最も多く使われていた。「目」は「愛好・追憶・興奮・悲しみ・怒り・後悔」で最も多く使われていた。体は「驚き・恐怖・不安・恥」で、「唇」は「恨み」、「心」は「安堵」の感情で最も多く使われていた。

第8章では、身体部位の「胸」を用いた表現の考察を行った。用例は102例であり、悲しみの感情が最も多く、次に不安、そして興奮と続いた。胸を用いてどのような表現で表わしているのか、胸と感情はどう認識されているのかを考察した結果、胸を用いた表現は大きく4つに分類できた。1つ目は胸の状態「痛み・圧迫・熱」で感情を表わしているもの、2つ目は胸への外部からの刺激<攻撃・影響>で感情を表わしているもの、3つ目は胸を感情の<活動の場(容器・空間)>として捉えているもの、4つ目は胸を<物(個体)>として捉えているものである。比喩表現の移り変わりでは、時代の流れと共に、換喩より隠喩での表現が多くなっており、修辞技法の発達による表現の多様化がみられた。

以上、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対象に、感情の概念、そして身体部位と感情の関係を中心に考察を行った。特に感情がどの概念を用いて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のか、どの部位を用いて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のか、先行研究ではまだ取り上げられていない様々な感情に関する結果

を示すことができた。今後は喩えた語である喩辞を中心に細かく分析することで、感情表現に対する我々の認識もさらに解明できると考える。そして、用例を増やし考察を行うことで日本語独特の表現の発見につなげたい。そして、これらは今後行われていく対照研究を補う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 参考文献

### 【単行本】

- 赤羽研三 (1998) 『言語と意味を考える—隠喩とイメージ—』 夏目書房
- 秋元美春 (2002) 『語彙』 語文学社
- 大木幸介 (1983) 『感情はいかにしてつくられるか』 講談社
- 河上誓作 (1996) 『認知言語学の基礎』 研究社出版
- 佐藤信夫 (1978) 『レトリック感覚—ことばは新しい視点をひらく—』 講談社
- 島崎敏樹 (1952) 『感情の世界』 岩波書店
- 田中章男 (1978) 『国語語彙論』 明治書院
- 谷口一美 (2003) 『認知意味論の新展開—メタファーとメトニミー—』 研究社
- 鍋島弘治朗 (2016) 『メタファーと身体性』 ひつじ書房
- 野内良三 (2000) 『レトリックと認識』 日本放送出版協会
- 寺山秀夫 (1982)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 I』 くろしお出版
- 中村 明 (1977) 『比喩表現の理論と分類』 秀英出版
- 増田 明 (2009) 『ボディートーク入門』 創元社
- 宮本敏夫 (2002) 『脳のはたらき—知覚と錯覚—』 ナツメ社
- 初山洋介 (2010) 『認知言語学入門』 研究社
- (2014) 『日本語研究のための認知言語学』 研究社
- 山梨正明 (1995) 『認知文法論』 ひつじ書房
- (2015) 『修辭的表現論—認知と言葉の技巧—』 開拓社
- 吉村公宏 (2004) 『はじめての認知言語学』 研究社

### 【外国人著者・翻訳本】

- アンリ・ピエール・J. 著、石井直志訳 (1989) 「おびえる象徴体系」 今井仁司監修  
『恐怖』 リブレポート
- エヴァンズ・E. 著、遠藤利彦訳 (2011) 『感情』 岩波書店
- オーエン・T. 著、田中春美他訳 (1977) 『比喩の研究—言語と文学の接点—』 英潮社

- ジョンソン・M. 著、菅野盾樹他訳 (2001) 『心のなかの身体』 紀伊国屋書店
- シトウウィック・R. 著、山下篤子訳 (2002) 『共感覚者の驚くべき日常』 草思社  
 (原典：Cytowic, Richard E. THE MANWHO TASTED SHAPES)
- ダイグナン・A. 著・渡辺秀樹他訳 (2010) 『コーパスを活用した認知言語学』 大修館書店  
 (原典：Deignan, A.(2005) Metaphor and corpus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ダマシオ・A. 著、田中光彦訳 (2003) 『無意識の脳 自己意識の脳 身体と情動と感情の神秘』 (原典：Damasio, Antonio R.(2000)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 デカルト・R. 著、谷川多佳子訳 (2008) 『情念論』 岩波文庫
- デュボワ・F. 著、下川茂訳 (1989) 「身も凍る恐怖 —恐怖の凶像あるいは様々な情念、表情から表現へ—」 今井仁司監修 『恐怖』 リプロポート
- レイコフ・G.、ジョンソン・M. 著、渡部昇一他訳 (1986) 『レトリックと人生』 大修館書店  
 (原典：Lakoff, G. and Johnson, M.(1980) "Metaphor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レイコフ・M. 著、池上嘉彦他訳 (1993) 『認知意味論—言語から見た人間の心』 紀伊国屋書店 (原典：Lakoff, G.(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övecses, Z. (2000) "Metaphor and emotion :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論文・雑誌】

- 有蘭智美 (2007) 「「頭」「胸」「腹」—精神活動の在り処としての身体部位詞—」 『日本認知言語学会論文集』 第7巻、pp.310-320.
- (2013) 「行為のフレームに基づく「目」、「耳」、「鼻」の意味拡張：認知行為から高次認識行為へ」 『名古屋学院大学論集 言語・文化篇』 第25巻 第1号、 pp.123-141.
- 石原俊一 (2007) 「自律神経系に及ぼす自発的笑いの実験的検討」 『人間科学研究』 第29巻、文教大学、pp.51-59.

- 伊藤江美 (2019) 「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の考察－明治の戦争文学を対象に－」 『日本文学研究』 第71輯、동아시아일본학회、pp.321-346.
- (2020) 「身体部位〈胸〉を用いた感情表現の考察－近代から戦後の戦争文学における比喩を中心に－」 『言語学研究』 第25巻、한국언어연구학회、pp.153-172.
- 内海 彰 (2006) 「隠喩はどのように理解されるか？－計算モデルによる検討－」 『日本認知科学学会大会発表論文集』 23巻、pp.44-47.
- (2007) 「認知修辞学における比喩の認知過程の解明」 楠見孝編 『メタファー研究の最前線』 ひつじ書房、pp.403-420.
- 内海 彰・金井明人 (2007) 「認知修辞学の構想と射程」 『認知科学』 第14巻3号 pp.236-252.
- 遠藤利彦 (1996) 「情動の生物学的基盤を問う」 土田昭司・武村和久 (編) 対人行動学研究シリーズ4 『感情と行動・認知・生理 感情の社会心理学』 誠信書房 第1章 pp.1-27.
- 遠藤好英 (1993) 「怒りを表わすことば」 『日本語学』 第1巻12号、明治書院、pp.23-32.
- 大森文子 (2018) 「人の心と空模様 シェイクスピアのメタファーをめぐる」 島弘治朗、楠見孝、内海彰編 『メタファー研究』 ひつじ書房、pp.175-194.
- 沖本正憲 (2009) 「身体部位詞の比喩的意味拡張と顔の認識」 『苫小牧工業高等学校紀要』 第44号、pp.64-79.
- 沖 裕子 (2004) 「比喩の形式と意味－本語教育のための基礎的研究－」 『信大日本語教育研究 4』 信州大学人文学部日本語教育学研究室、pp.2-15.
- 大石 亨 (2006) 「「水のメタファー」再考 コーパスを用いた概念メタファー分析の試み」 『日本認知言語学会論文集』 第6巻、日本認知言語学会、pp.277-287.
- (2007) 「日英文対照研究に向けた感情のメタファーの分類」 『言語処理学会年次大会発表論文集』 第13巻、日本認知言語学会、pp.1034-1037.
- (2008) 「感情のメタファーの日英差をもたらす要因についての考察」 『日本認知言語学界論文集』 第8巻、日本認知言語学会、pp.274-284.
- (2009) 「概念メタファー理論と構文文法の統合、およびその含意」 『日本認知言語学界論文集』 第9巻、日本認知言語学会、pp.426-436.
- 大神雄一郎 (2016) 「身体活動語彙による知性的概念の構造化について -1つの主題を共



- 有する複数のメタファーの“共生”の実体ー」『日本認知言語学会論文集』第16巻、日本認知言語学会、pp.350-362.
- 岡隆之助・楠見孝 (2007) 「比喩表現の産出しやすさに説明対象が及ぼす影響ー感情と行動の説明の差異ー」『認知科学』第24巻、日本認知科学会、pp.540-555.
- (2018) 「感情比喩の理解に及ぼす聞き手の当事者性」『感情心理学研究』第26巻、第1号、日本感情心理学会、pp.1-11.
- 岡本雅史 (2007) 「比喩表現における意味論的主観性と語用論的主観性」『日本語用論学会第9回大会発表論文集第2号』日本語用論学会、pp.9-16.
- 鎌田智史 (2008) 「想像した感情に及ぼす比喩の影響ー比喩機能の観点からー」『九州大学心理学研究』第9巻、九州大学大学院人間環境院、pp.93-99.
- 楠見孝 (1992) 「比喩の生成・理解と意味構造」箱田裕司編『認知科学のフロンティアⅡ』サイエンス社、pp.39-64.
- (1996) 「感情概念と認知モデルの構造」土田昭司・武村和久(編)対人行動学研究シリーズ4『感情と行動・認知・生理ー感情の社会心理学』誠信書房第2章 pp.29-54.
- (2002) 「メタファー研究の総括、21世紀に向けて：認知心理学の立場から」『日本認知言語学会論文集2』日本認知科学会、pp.268-271.
- (2004) 「物語理解における恐怖の生起メカニズムー怪談とメタファーー」『表現研究』表現学会、第82号、pp.16-26.
- (2005) 「認知心理学からみた比喩」『日本語学』第24号、明治書院、pp.26-36.
- 楠見孝他 (2007) 「感情と言語」藤田和生編『感情科学の展望』京都大学学術出版会、pp.55-84.
- 桑原雄、内海彰 (2003) 「隠喩理解における創発特徴の生成機構」『人工知能学会全国大会論文集』17巻2号、pp.1-3.
- 後藤秀貴 (2018) 「<感情は液体>のメタファーの成立基盤と制約」島弘治朗、楠見孝、内海彰編『メタファー研究』ひつじ書房、pp.195-230.
- 酒井彩加 (2003) 「日本語の共感覚的比喩(表現)に関する記述研究」名古屋大学博士論文
- 坂本真樹 (2007) 「色彩語メタファーへの認知言語学的関心に基づくアプローチの検討」楠見孝

- 編『メタファー研究の最前線』ひつじ書房、pp.307-326.
- 鈴木はる江 (2008) 「感覚と情動から心身相関を考える」第7回学術集会資料
- 鈴木幸平 (2010) 「<怒り>を表す英語類義語が持つメタファーへの選好：概念比喩理論の視点から」『神戸言語学論叢』第7号、神戸大学紀要論文、pp.60-77.
- 鈴木宏昭 (1999) 「人間の認知におけるカテゴリーと類似」『日本語学』第18巻9号  
明治書院、pp.69-78.
- 清海節子 (2007) 「感覚表現とは何か？」『駿河台大学論叢』33号、pp.31-45.
- 瀬戸賢一 (2007) 「メタファーと多義語の記述」楠見孝編『メタファー研究の最前線』  
ひつじ書房、pp.31-61.
- 平 知宏 (2010) 「比喩理解と身体化認知」楠見孝編『現代の認知心理学3 思考と言  
語』北大路書房、pp.245-269.
- 平知宏、中本敬子、楠見孝 (2007) 「比喩理解における親しみやすさと解釈の多様性」『認  
知科学』14巻3号、pp.322-338.
- 平知宏、楠見孝 (2011) 「比喩研究の動向と展望」『心理学研究』第82巻第3号、  
pp.283-299.
- 高橋敏夫 (2010) 「プレカリアート文学とプロレタリア文学のあいだに —ホラー小説・『蟹工  
船』・雨宮処凛的転回」『国文学 解釈と鑑賞』4月号、至文堂、pp.27-34.
- 谷 映子 (2004) 「占領下の出版物検閲と児童文学 —全文削除を命じられた作品をめぐって  
—」『北星論集(文)』第42巻第1号、pp.1-13.
- 田畑博敏 (1987) 「言語・メタファー・こころ」『鳥取大学教養部紀要』21号、鳥取大学教養  
部、pp.23-48.
- 多門靖容 (2005) 「日本語の比喩史」『日本語学』第24巻5号、明治書院、pp.58-69.
- 辻 幸夫 (2014) 「学際研究としての認知言語学を捉え直す」『日本認知言語学会論文集』  
15巻、日本認知言語学会、pp.577-587.
- 寺井あすか・中川正宣・徳永健伸 (2006) 「比喩理解過程における創発特徴の心理実験  
による検証」『日本認知科学大会発表論文集』23巻、日本認知言語学会、  
pp.388-389.
- 中道真木男、有賀千佳子 (1993) 「感情表出表現における副詞のはたらき」『日本語学』  
第1巻12号、明治書院、pp.85-93.
- 中村 明 (1993) 「近代文学に見る感情表現のひろがり」『日本語学』第1巻12号、明治書

- 院、pp.33-43.
- 鍋島弘治朗 (2018) 「脳科学とメタファー」 鍋島弘治朗、楠見孝、内海彰編 『メタファー研究』 ひつじ書房、pp.1-47.
- 西尾寅弥 (1993) 「喜び・楽しみのことば」 『日本語学』 第1巻12号、明治書院、pp.14-22.
- 野村益寛 (2002) 「〈液体〉としての言葉 -日本語におけ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メタファー化をめぐる-」 大堀寿夫編 『シリーズ言語科学3 認知言語学Ⅱ：カテゴリー化』 東京大学出版会、pp.37-57.
- 治山純子 (2014) 「フランス語の「怒り」に関するメタファー表現・メトニミー表現 -類型論的研究を通して-」 『日本認知言語学会論文集14』 日本認知言語学会、pp.174-186.
- 半沢幹一 (1979) 「上代の比喩表現について-共通性と素材の関連から-」 『国語学研究』 第19号、東北大学文学部国語学研究所刊行会、pp.36-47.
- (2004) 「わけたい比喩」 『日本語学』 第23巻4号、明治書院、pp.84-93.
- 久岡賢治 (2020) 「占領期GHQによる検閲・宣伝工作の影響と現代日本」 『彦根論叢』 第423号、滋賀大学経済学会、pp.98-111.
- 姫本由美子 (2017) 「日本占領下のインドネシアをめぐる「報道」と「宣伝」のはざままで -朝日新聞社所蔵写真を手掛かりに-」 『アジア太平洋討究』 28号、pp.261-291.
- 福田正治 (2001) 「感情(情動)の分類 -進化論的感情階層仮説-」 『富山医科薬科大学一般教養』 26号、pp.35-52.
- (2008) 「感情の階層性と脳の進化 -社会的感情の進化的位置づけ-」 『感情心理学研究』 第16巻、第1号、pp.25-35.
- 星野光徳 (1973) 「明治の戦争文学 -近代文学における戦争・序説-」 『語文論叢』 千葉大学人文学部国語国文学会、第2巻、pp.46-61.
- 前田富祺 (1993) 「日本語の感情を表わす言葉」 『日本語学』 第12巻1号、明治書院、pp.4-13.
- 松本 曜 (2000) 「日本語における身体部位詞から物体部分詞への比喩的拡張 -その性質と制約」 坂原茂編 『認知言語学の発展』 ひつじ書房、pp.317-346.
- 宮武利江 (2003) 「比喩と感情表現」 『日本語学』 第22巻1号、明治書院、pp.56-64.
- 山梨正明 (1999) 「外界認知と言葉の世界 -空間認知と身体性の問題を中心に-」 『日本語学』 第18巻9号、明治書院、pp.4-14.

- 山梨正明 (2007) 「メタファーと認知のダイナミクス 知のメカニズムの修辭的基盤」  
楠見孝編 『メタファー研究の最前線』 ひつじ書房、 pp.3-29.
- 山口仲美 (1982) 「感覺・感情語彙の歴史」 『講座 日本語学4 語彙史』 明治書院、  
pp.202-227.
- ケバウアー・G. 著、桑原俊介訳 (2012) 「共感と比喩 感情をめぐる言語の問題」 『美学芸術学研究』 30巻、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文学部美学芸術学研究室、  
pp.323-341.
- Oberwinkler・M. (2015) 「日本人はどう悲しむか -日独の自死遺族掲示板コーパスと均衡コーパスを用いた「感情」の言語表現比較の試み-」 『同志社大学日本語・日本文化研究』 第13号、 pp.25-44.
- レイコフ・G.著、杉本孝司訳 (2000) 「不変性仮説 -抽象推論はイメージ・スキーマに基づくか?」 坂原茂編 『認知言語学の発展』 ひつじ書房、 pp.1-59.
- 韓 涛 (2014) 「《言葉は液体》のメタファー再考 -日中対照の観点から-」 『ことばの科学』 第28号、名古屋大学言語文化研究会、 pp.37-49.
- 김주연 (2007a) 「日本語에서의 感情関連語 「恐怖(怖)」의 表現様相」 『일본어문학』 vol.35、한국일본어문학회、 pp.115-132.
- (2007b) 「일본어 감정 표현의 양상 고찰 -미움(厭)에 관한 표현을 중심으로」 『일본근대문학연구』 제15집、 pp.145-159.
- (2007c) 「감정 관련어 슬픔(哀)의 표현양상」 『日本語文学』 第36輯、  
pp.23-40.
- 宋誓天 (2007) 「'怒'의 感情表現に関する日韓兩國語의 認知分析」 『日本文学研究』 梅光学院大学日本文学会、 pp.1-12.
- 林八龍 (1998) 「日・韓身体語彙慣用句の対照考察 I 頭部を中心として-」 『日本教育』 第13号、韓国外国語大学校外国学総合研究センター、 pp.279-304.
- 張富妍 (2013) 「감정표현의 신체관련 양상에 관한 고찰 -「怒」-분노-의 일한 대조를 중심으로-」 『日本言語文化』 第25号、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99-419.
- (2014) 『感情의 身体関連表現 様相에 日・韓 対照研究』 韓国外国語大学  
博士論文

## 【辞典】

梅棹忠夫他監修 (1992) 『日本語大辞典』 講談社

遠藤織枝他編 (2003) 『使い方の分かる 類語例解辞典 新装版』 小学館

(goo辞書：類語 <https://dictionary.goo.ne.jp/thrsrs/>)

国立国語研究所 (1964) 『分類語彙表』 秀英出版

尚学図書編 (1989) 『国語大辞典 新装版』 小学館

瀬戸賢一他編 (2012) 『プログレッシブ英和中辞典 第5版』 小学館

(goo辞書：feeling <https://dictionary.goo.ne.jp/word/en/feeling/#ej-30929>

:emotion <https://dictionary.goo.ne.jp/word/en/emotion/#ej-27709>)

辻幸夫編 (2013) 『新編 認知言語学キーワード事典』 研究社

中村明 (1980) 『感情表現辞典』 角川書店

—— (1995) 『比喩表現辞典』 角川書店

新村出編 (1998) 『広辞苑 第五版』 岩波書店

松村明 (2008) 『スーパー大辞林3.0』 三省堂

—— (2020) 『デジタル大辞泉』 小学館

ブリタニカ・ジャパン株式会社編 (2007)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

ロゴヴィスタ (コトバンク：大和魂

<https://kotobank.jp/word/%E5%A4%A7%E5%92%8C%E9%AD%82-144215>)

## 【インターネット検索】

・ 「青空文庫」 黒島伝治 (1970) 「明治の戦争文学」 (底本：「黒島伝治全集 第三巻」

筑摩書房) [https://www.aozora.gr.jp/cards/000037/files/45454\\_35421.html](https://www.aozora.gr.jp/cards/000037/files/45454_35421.html)

(検索日：2019.4.15)

・ 「意味解説の読み物」 <https://meaning-book.com/blog/20190910133623.html>

(検索日：2022.03.01.)

・ 「心理学用語の学習」 <https://psychologist.x0.com/terms/132.html>

(検索日：2022.11.12.)

## 【用例出典】

平野謙他編 (1972) 『戦争文学全集』朝日新聞社

第1巻

- ・ 桜井忠温 「肉弾」 (1906) ・ 田山花袋 「一兵卒」 (1908)
- ・ 水野広徳 「此一戦」 (1911)

第2巻

- ・ 石川達三 「生きてゐる兵隊」 (1938) ・ 火野葦平 「麦と兵隊」 (1938)
- ・ 尾崎士郎 「ある従軍部隊」 (1939) ・ 日比野士郎 「呉淞クリーク」 (1939)
- ・ 井伏鱒二 「花の町」 (1943) ・ 丹羽文雄 「海戦」 (1942)
- ・ 高見順 「ノーカナのこと」 (1943)

第3巻

- ・ 吉田満 「戦艦大和の最期」 (1952) ・ 大岡昇平 「不慮記」 (1946)
- ・ 梅崎春生 「桜島」 (1946) ・ 島尾敏雄 「出孤島記」 (1949)

第6巻

- ・ 大江健三郎 「人間の羊」 (1958) ・ 城山三郎 「大義の末」 (1959)
- ・ 開高健 「輝ける闇」 (1968) ・ 石原慎太郎 「待伏せ」 (1969)

<要旨>

「感情」の比喩表現の研究

—戦争文学を中心に—

伊藤江美

済州大学校 大学院 日語日文学科

指導教授 李昌益

比喩は言語学の分野では情報伝達的手段として重要な役割を果たすものとして注目されており、目に見えない抽象的なものを言語化する際、我々の理解の手助けをしている。その中で認知言語学では、表現に注目するのではなく、言語の認識に焦点がおかれ研究が行われている。

本論文では、文学言語の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対象に、目に見えない感情が何に置き換えられ認識されているのかを認知言語学での研究方法に沿って議論を展開していく。研究対象として戦争文学を選定し、日露戦争の作品から戦後の作品まで（1906～1969）を戦争の背景別に5つの時期に分けて考察を行う。5つの時期の感情の概念と感情と身体の関係进行分析・考察し、感情の表現方法および言語化された感情から我々の持つ認知構造を明らかにする。そして、その表現方法や認知構造は時代の流れによって違いがみられるのか通時的考察を行う。本論文での対象となる感情は18種類である。正の感情は「喜び・愛好・安堵・楽しさ」の4種類、状況によって正にも負にもなる感情として「追憶・興奮・緊張・驚き」の4種類、負の感情は「悲しみ・怒り・恐怖・不安・絶望・恨み・嫌悪・悔しさ・後悔・恥」の10種類である。

日露戦争を舞台にした3作品の考察では、軍国主義の作品は戦争への興奮が多く描かれ、反軍国主義の作品は悲しみが多く描かれていた。表現では「興奮は攻撃性のあるもの」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が多くみられた。戦いに対する興奮が多く描かれており、日露戦争時代の軍国主義的思想が作品の表現にも表われていた。また、身体部位を用いた表現では「目」の項目に含まれる涙を用いた表現が豊富にあったのも特徴のひとつとしてあげられる。身体部位の表現では「恨み」が主に口から呑み込むものであったり、歯で表現されたりと、口との関係が深い感情である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

次に、日中戦争を舞台にした4作品は政府が派遣したペン部隊によって書かれているため、悲しみ

の感情では、仲間の死への嘆きだけでなく、寂しさや哀れに思う気持ちも多く見られた。戦場であっても正の感情が18%と多く描かれているのもこの戦争作品の特徴といえよう。表現ではく不安は生物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が多くみられた。不安の感情が「這いよる」や「蝕む」などと共起し、気味の悪いものとして描かれていた。また、不安に陥っている状況を身体の異常で表現したものが多かったことも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

太平洋戦争の4作品では、戦いへ向かう興奮よりも兵士を見て心が動かされる報道員の感動の気持ち、そして、死へ向かっていく兵士に対する悲しみの感情が主に描かれていた。表現の特徴としては、「恐怖」と「不安」ではく感情は生物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が目立ち、これは、感情が体内で生じるという認識以外に、外部からやってくるもので、制御できないものという認識が強いことを示している。また、<感情は固体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も多く、各感情と物の類似性から導き出した比喩が豊富に作られており、表現の幅に広がりが見られた。身体部位からは、怒りや悔しさ、恨みなどという負の感情は「口」との関係が深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して、自分の身体一部を自分と切り離して扱う西洋的表現がみられたのもこの時期の特徴のひとつである。

戦後すぐに発表された3作品では、終戦間近の戦闘がない待機の状態であるため、戦地で過ごす不快な感情が多く描かれ、戦いへ挑む興奮は少なかった。表現の特徴は、多くの感情で<感情は生物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が多く、「感情はコントロールできないもの」という認識よりは、感情の擬人化であったり、「感情は所有物ではなく外部の未知のもの」として捉えられていることが特徴であった。また、<感情は固体である>という概念メタファーも多く、これは感情を様々な視点からみて描くという表現の幅の広がりをお表わしている。身体部位では、身体の状態のみならず置かれている状況を文全体を用いた比喩でお表わしたものが数例みられた。これは今までのように単に類似しているものや状況に置き換えて表現するのではなく、文章全体を使った比喩表現が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身体部位と感情の関係では、「心」を身体の一部として捉えるより、容器や物体として捉えている表現が多くあり、時代が流れるにつれ、感情や身体部位が体から切り離されて存在するもの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ことが表現にはっきりと表われていた。

終戦時10代であった作家の作品の考察では、GHQに支配されているという抑さえ込まれた感情として怒りの使用数が抜き出していた。また、作者が定めたテーマに沿って感情の偏りがみられたことと、分かりやすさより文を飾るための修辭的な表現が多くみられたのが特徴であった。感情と身体部位の関係では、「怒り」は6箇所部位が用いられ、「腹」のみならず多くの部位と関係がある感情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全体的に比喩表現の量も増え、創作レベルも高く、感情を多視点で捉えるなど表現の幅も非常に広がっていたが、「悲しみ」を表わす泣く行為は本対象では少なくなるなど、慣用的な表現を好



ま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傾向がみられた。

通時的考察では全730例の用例を用いて行った。その中で最も多かったものは「悲しみ」で、次に「興奮」、「嫌悪」、「恐怖」、「怒り」と続いた。感情の使用数は内容や時代背景と関係していた。直喩・隠喩からは<固体>に喩えたものが最も多く、次に<容器の中の液体>、<生物>と続いた。正の感情と正負の感情は全体的に<液体>の認識が強く、<攻撃性がある>の認識が弱かった。負の感情は悲しみのみ<攻撃性がある>の認識が強く、不安は<生物>の認識が強かった。それ以外は<固体>の認識が強く、負の感情であっても<攻撃性がある>の認識は弱いものもあり、特に怒りの感情は<攻撃性>をあまり持ってい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液体>の認識はどの感情にも当てはまるが、恐怖と不安ではその認識は弱いことが分かった。これら概念は時代の流れによって種類の変化はみられなかったが、感情を身体外部のものとして捉える表現の増加はみられた。

身体部位を用いた換喩では、顔の使用数が最も多く、次に目、そして、体と続いた。感情と身体部位の強いつながりがみられたものは、「喜び・楽しさ・嫌悪」と「顔」、特に笑顔で表わされていた。次に「悲しみ」と「目」であり、これは涙が大部分を占め、それ以外では色や光が多かった。次に「恐怖」と「体」であり、体温低下や震えで表わされていた。最後に「恨み・悔しさ」と「口」であり、歯や唇などを用いて表わされていた。これらの換喩表現は時代とともに減少していき、身体の一部を本体から離して捉えている表現が増加した。

本論文では感情を表わす比喩表現を対象に、感情の概念、そして身体部位と感情の関係を中心に考察を行った。特に感情がどの概念を用いて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のか、どの部位を用いて表現される傾向があるのか、様々な感情に関しての結果を示すことができた。表現の通時的考察では、感情の使用数は時代背景と内容に左右されるが、感情の概念メタファーは時代が移り変わっても変化がない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喩辞（喩える語）は変化していき、比喩も時代とともに複雑な表現が好まれ、文章に彩りを沿えるための工夫を凝らした表現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今後は喩辞を中心に細かく分析することで、感情に対する我々の認識もさらに解明できると考える。そして、用例を増やし考察を行うことで日本語独特の表現の発見につなげていきたい。